長崎大学総合環境研究　第8巻　第2号　pp.81－152　2006年8月

長崎大学本『交隣須知』翻刻―ハングル編―

劉　卿美（翻刻）*・若木太一（解題）**

Transliteration of Nagasaki University's Collection "*COURIN SHUCHI*":— Korean sections —

Kyonmi YOU(transliteration), Taiichi WAKAKI(annotation)

1. はじめに

『交隣須知』4巻4冊は、朝鮮語学習のために編纂された会話辞書である。編者は対馬藩宗家の儒者で真文役（書記官、通訳）、裁判役などを務めた雨森芳洲（1668～1755）と伝えられている。『隣語大方』などと併せて通事養成のために編纂されたものである。成立時期は、雨森芳洲の報告によれば36歳から37歳の時、すなわち元禄16年（1703）9月から翌宝永元年（1704）11月の釜山の草梁和館に滞在中に「仕立」たと記している（『詞稽古之者仕立記録』）。

本書の完本として知られるのは京都大学本『交隣須知』4巻4冊（薩摩苗代川伝来、京都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蔵）で、古型をとどめている本として貴重である。これにたいし、増補系写本として明治6年写本である長崎大学本『交隣須知』（経済学部武藤文庫蔵）は、完本ではないが現在知られる増補系統の写本として唯一書写年代が明らかな資料である。もちろん薩摩沈寿官旧蔵本、前間恭作写本など数種類が存在するが、いずれも端本で書写年代が不明である。

これにくわえて、増補系刊本明治14年版『交隣須知』（韓国釜山図書館蔵本など）、明治十六年版、明治37年版などがあるが、その間にあって、増補、改訂の展開を見る際にかかせない資料である。

長崎大学本『交隣須知』については、写真版「『交隣須知』本文及び索引」（高橋敬一・不破浩子・若木太一編、2003年〈平成15〉2月、和泉書院刊）としてすでに公刊している。しかし同書は、『交隣須知』の書誌、写真複製・本文（日本語部分の翻刻）、編者雨森芳洲についての年譜と索引を付したものでハングルの部分は未翻刻であった。

このたびの本稿は、前書にかけていたハングル部分を翻刻し、言語資料として充全を期したいと思い補稿をおこしたものである。解題は若木太一、翻刻は劉卿美が担当し、両者で校訂にあたった。この度のハングル部分の翻刻によって、今後の言語環境研究のいっそうの進展を願うものである。なお、上記写真版「『交隣須知』本文及び索引」の参観を希望する。

2. 長崎大学本『交隣須知』大・写本・4巻3冊 書誌解題

*　長崎大学大学教育機能開発センター　助教授
**　長崎大学環境科学部　教授
受領年月日　2006（平成18年）　1月19日
受理年月日　2006（平成18年）　3月31日

【所蔵】長崎大学経済学部・附属図書館・武藤文庫［702／M8］

【装幀】袋綴じ。原装。巻之一は表紙の虫損、破損、シミなどの汚損がある。

【冊数】4巻3冊（巻之一・巻之三・巻之四存）

＊巻之二欠

小口に「須知　元（利・貞）」と墨書する。

【表紙】巻之一　紺色無地。　縦24，1cm×横15，7cm。

巻之三　柿渋色無地。縦24，1cm×横16，0cm。

巻之四　柿渋色無地。縦24，1cm×横16，0cm。

【表題】題簽なし。打ちつけ書き。

「交隣須知　一」

＊表紙右下に「久和氏」と署名。

「交隣須知　三」

＊表紙右下に「久和蔵」と署名。

「交隣須知　四大尾」

＊表紙右下に「久和蔵」と署名。

【内題】「交隣須知　巻之一」

＊巻之三、四は内題なし。

【印記】巻之三　初丁右上に「虐陸蔵書」（朱印、陽）カ

巻之四　初丁右上に「長崎高等／商業學校／武藤長蔵」（朱印、陽）

【書き入れ】巻之一には朱筆による数カ所の加筆訂正、日本語部分に墨筆で連音符号（撥音・促音を表示）、鉛筆による加筆訂正の書き込みがある。

【書写】「明治六年／八月　日　　久和馬壽」（七十六オ）

3. 長崎大学本『交隣須知』翻刻

以下の翻刻は長崎大学本『交隣須知』のハングル部分の翻刻である。「『交隣須知』本文及び索引」（和泉書院刊）に写真影印と日本語部分の翻刻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

同書を併せ参照いただきたい。

凡例

1，見セ消チの部分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記号を付して表した。

＊一墨書　※一朱筆　＃一鉛筆　〈　〉一消去

2，ハングルの左に宛てた漢字などには（　）を付した。

3，ハングルに□”とあるのは濁点（日本人が濁音読みしたと思われる注記）を表す。

4，翻刻にさいして、異体字、誤った漢字などは原文のままとした。

（例）巻一（六丁ウ）　雨主（正しくは「兩主」）

巻三（七十丁オ）　千（正しくは「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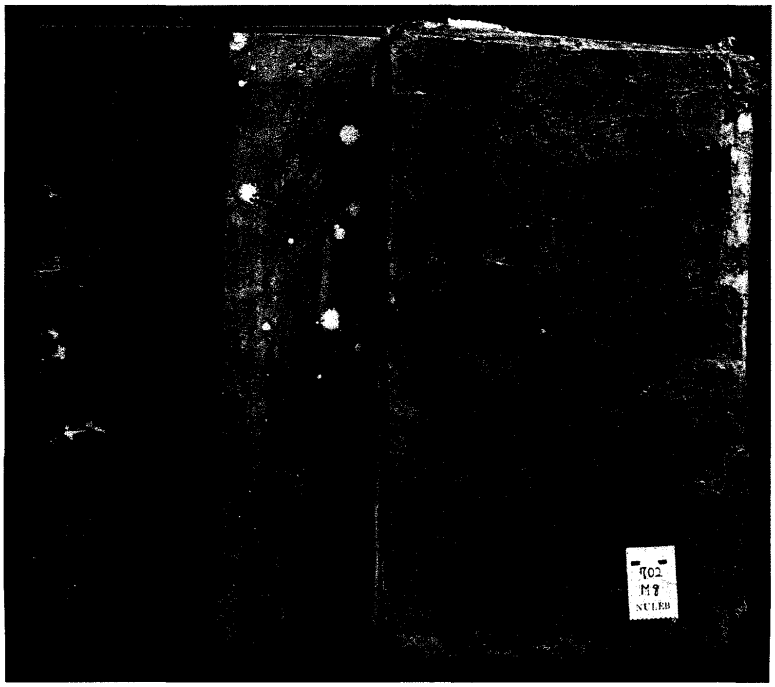

図1　長崎大学本『交隣須知』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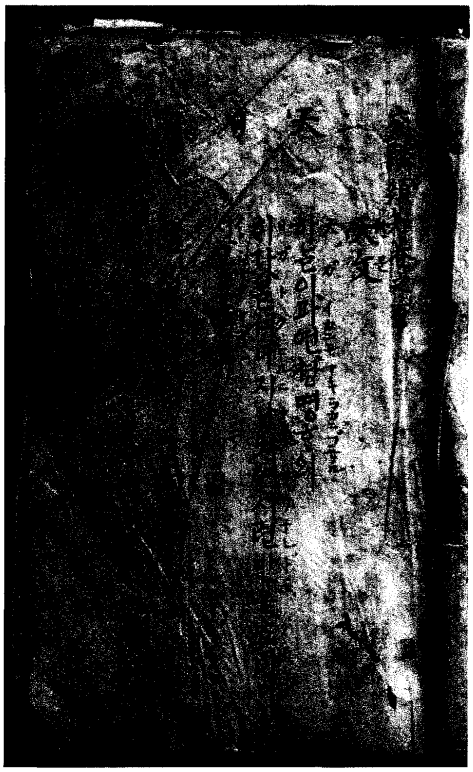

図2　長崎大学本『交隣須知』巻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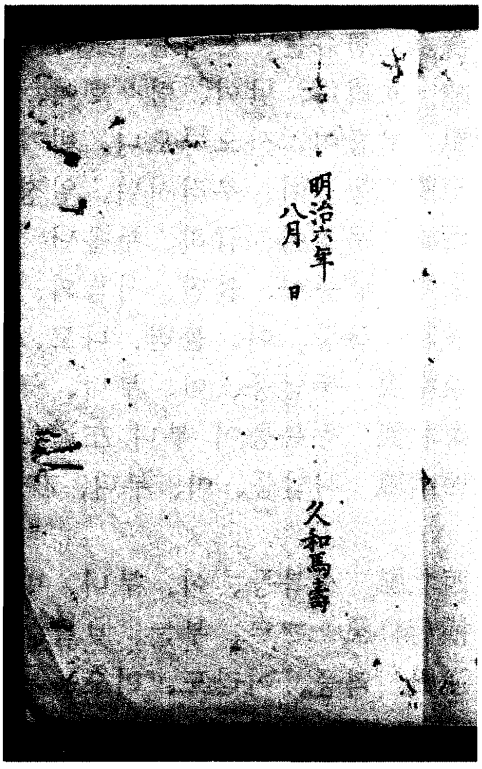

図3　長崎大学本『交隣須知』巻四

交隣須知 巻一

①天文 텬문

1 天 하늘이、과연、쳥명ᄒᆞ외
2 日 히가、불셔、나지나 되어시련만은、흐리니、ᄌᆞ시、모로올쇠
3 月 둘이、불그※붉오니、심々ᄒᆞᆫ디、말이나、ᄒᆞ옵새
4 星 별이、하늘의、총々ᄒᆞ여시니、맛치、씬、믄허진、々듀ㅣ ᄀᆞᆺᄉᆞ외 (一オ)
5 老人星 노인셩은、남방의、나되、보ᄂᆞᆫ、사ᄅᆞᆷ은、뎡슈、ᄒᆞᆫ다 ᄒᆞ옵닉
6 三台星 삼틱셩은、인간 삼공의、응ᄒᆞᆫ、별이라、ᄒᆞ옵닉
7 參星 숨셩과、샹셩은、서로、보지 못ᄒᆞᆫ*ᄒᆞᄂᆞᆫ、별이라 ᄒᆞ옵닉
8 日蝕 일식 홀 적은、통의、믈 담고、보면、분수를、아옵닉
9 月蝕 월식은、샹히 니ᄅᆞ기를、게가、버혀、먹ᄂᆞᆫ다 ᄒᆞ옵닉 (一ウ)
10 日暈 히가、귀엿골、ᄃᆞ랏숩닉
11 月暈 둘이、귀엿골、ᄃᆞ랏숩닉
12 明 창이、불그니、동이、터 오ᄂᆞᆫ가 시브외
13 暗 져、사ᄅᆞᆷ은、눈이、어득ᄒᆞ여、아모리 홀 줄、모로옵닉
14 朗 그 집은、과연、명낭이、잘、지엇숩닉 (二オ)
15 晴 개니、ᄒᆞᆫ 잇틀、쐬다가、다시、비가 오면、즉ᄒᆞ올가
16 照 둘이、창의、비최여시니、ᄉᆞ랑오와 즘이 업숩데
17 昏 날이、어두워시니、그만ᄒᆞ여、도라가옵소
18 微月 初生半(쵸싱반)둘을、미월(微月)이라、ᄒᆞ옵닉
19 漢水 한슈ᄂᆞᆫ、은하슈 (銀河水)ㅣ니、하늘、가온디 ᄲᅢ*뼛쳣숩닉 (二ウ)
20 暟 흐리니、날이、팀々ᄒᆞ여、블샹(不祥)ᄒᆞ외
21 風 ᄇᆞᄅᆞᆷ이、사오나오니、ᄇᆡ가 못 나올가、시브외
22 東風 동풍이、부러시니、일졍(一定)、ᄇᆡ가 오々리
23 西風 셔풍이、급히、부옵닉
24 南風 남풍이、블면、사ᄅᆞᆷ의、몸이、샹(傷)ᄒᆞ옵닉 (三オ)
25 北風 븍풍、이、블면、나모、닙、히、쩌러、지옵닉
26 東南風 동남풍、이、부니、긋치、면、좃ᄉᆞ오리
27 東北風 동븍풍이 부니 左道(좌도)에 표풍(漂風)ᄒᆞᆫ ᄇᆡ가 올가 시브외
28 西南風 셔남풍、이、부니、右道(우도)、의 블려、가던、ᄇᆡ가、올 듯ᄒᆞ외 (三ウ)
29 西北風 셔븍풍、이、부니、ᄇᆡ、드러、가기、좃케、ᄒᆞ엿숩닉
30 横(斜)風 ᄀᆞᄅᆞ、부ᄂᆞᆫ、ᄇᆞᄅᆞᆷ、은、덜、부ᄅᆞ、야、ᄇᆡ、가기、좃ᄉᆞ오니
31 逆風 역풍、이라도、ᄆᆡ오、부지、아니、ᄒᆞ니、비스기、노화도、 갈、듯、ᄒᆞ외
32 順風 슌풍、이、년(連)、ᄒᆞ여、부니、ᄇᆡ、올、가、시브외

33 風止　ᄇᆞ롬、이、긋치、니、죳ᄉᆞ외
34 殘風　잔풍、ᄒᆞᆫ、날의 히변(海邊)의 가셔 놀면 ᄌᆞ미(滋味)잇숩닉　(四才)
35 旋風　호르레ᄇᆞ롬이 부니 눈의 믄지 드러 민망(憫忙)ᄒᆞ외
36 急風　급ᄒᆞᆫ ᄇᆞ롬이 부니 아모거시나 브러질가 시브외
37 雪　눈이 만히 와셔 싸혀시니 산々잡々의 빅챠일(白遮日) 친 듯하외
38 雲　구롬이 머흘고 비 올가 시브외
39 雨　비 오다가 개니 초목(草木)이 빗나외　(四ウ)
40 驟雨　쇠*소나기 올가 시브외
41 雹　므릐가 츄슈(秋收) 젼의 오*오면 곡식(穀食)이 잘못 되옵닉
42 霰　ᄲᆞᆯ눈이 만히 오니 맛치 ᄲᆞᆯ이 ᄂᆞ려지ᄂᆞᆫ 듯ᄒᆞ외
43 霖　님위 디리(支離)ᄒᆞ니 그만ᄒᆞ여 개면 죳ᄉᆞ외
44 細雨　셰우가 쁘리니 ᄂᆞ믈이 사라나옵닉　(五才)
45 六花　눈을 뉵화라 ᄒᆞ옵ᄂᆞ니
46 霜　서리가 불셔 와시니 날이 졈々 치워가옵닉
47 著霜　서리가 ᄆᆡ오 치니 나모닙히 누르*릇려 다 ᄲᅥ러지고니
48 露　플님희 이슬이 ᄊᆡ*쓰ᄂᆞᆫ 거슨 보왐즉하외
49 霧　안개가 ᄭᅵ여시매 ᄃᆡ마쥬산(對馬州山)이 뵈지 아니ᄒᆞ외　(五ウ)
50 霞　노올이 져녁 앗춤의 쓰니 됴하우(朝霞雨) 모하(暮霞)쳥이라 ᄒᆞ옵닉
51 雷　우레 소릐가 진동ᄒᆞ니 비가 만히 오々리
52 電　번개 티니 어두온 ᄃᆡ 이시면 번득々々ᄒᆞ여 무셥ᄉᆞ외
53 霹靂　벽녁 소릐ᄂᆞᆫ 산이 문허진 듯ᄒᆞ외
54 天動　누에 올리지 아닌 젼의 텬동ᄒᆞ면 다 ᄇᆞ리옵닉　(六才)
55 震動　진동이란 말은 아모거시라도 만히 모하셔 덤벙여 요란(搖乱)ᄒᆞᆫ、거슬 진동이라 ᄒᆞ옵ᄂᆞ니
56 虹　므지게 ᄲᅥᆺ쳐시니 빗치 오싁이 어린 듯ᄒᆞ외
57 旱　ᄀᆞ므니 곡식이 다 몰라가더니 비가 오니 ᄒᆞᄅᆞ ᄉᆞ이라도 과연(果然) 긔특(奇特)ᄒᆞ외
58 快晴　날이 갠 후(後)에 부졀업시 우장(雨裝) 가져왓고나
59 牽牛　견우ᄂᆞᆫ ᄃᆡ녀과 냥취(雨主)니 텬샹의 계시□라　(六ウ)
60 織姬　ᄃᆡ녀ᄂᆞᆫ 하ᄂᆞᆯ의셔 뵈ᄌᆞ기ᄅᆞᆯ ᄒᆞᆫ다 ᄒᆞᄂᆞ니
61 七星　칠셩은 운수ᄅᆞᆯ 직흰다 ᄒᆞ옵고니 破運七星也 파운칠셩야
62 飄風　뵤풍은 삽々(颯々)부ᄂᆞᆫ ᄇᆞ롬이옵도쇠
63 暴風　폭풍이 니러다면 션샹은 무셔온지라
64 急雨　급ᄒᆞᆫ 비가 붓ᄃᆞ시 온다　(七才)
65 祈雨　명산의 비ᄅᆞᆯ 빌고져*쟈 가옵닉
66 瑞氣　셔긔ᄂᆞᆫ 아롬다은*온 긔운을 니ᄅᆞᆫ 말이라

67 靄　애는 닉도 아니요 안개도 아니요 산의 끼이옵닉
　增補
68 二十八宿　이십팔슈　(七ウ)
69 慧星　혜셩은 길치 아닌 별이로쇠　星ト云フ時ハ슈
70 南斗星　남투셩은 슈한을 뎡ᄒᆞ신다 ᄒᆞ옵닉
71 北斗星　븍투셩은 복녹을 뎜지 ᄒᆞ시니라
72 海霧　히무가 만거*고든 강무 江霞 쳔무 川霞
73 換風　환풍ᄒᆞ기의 비질 ᄒᆞᄂᆞᆫ가 보외　(八オ)
74 地震　지진이 무셥ᄉᆞ외

②時節

1 春　봄의ᄂᆞᆫ 만초가 나고 옷*온갓 시아술 심으니 ᄉᆞ시 듕의 읏틈이오니
2 夏　녀름은 날도 심히 덥고 댱마도 디니 민망ᄒᆞ외
3 秋　ᄀᆞ을의ᄂᆞᆫ 날이 서놀ᄒᆞ고 츄슈도 ᄒᆞ며 신믈이 나옵닉　(八ウ)
4 冬　겨올은 심히 치오니 싀탄(柴炭)을 무한(無限)히 쓰옵데*싀
5 年　올흔 다른 일란 아니ᄒᆞ고 알*말 공부(工夫)만 ᄒᆞ니 다힝ᄒᆞ외
6 豊年　풍년이 년ᄒᆞ여 되니 만민이 태평으로 지내옵닉
7 凶年　흉년이 참혹ᄒᆞ니 빅셩들이 뭇살개 되엿ᄉᆞᆸ닉
8 今年　금년은 대풍년이 되여 쳐々의 슈보ᄒᆞ려 ᄒᆞ옵닉　(九オ)
9 去年　샹년 농ᄉᆞᄂᆞᆫ 무단ᄒᆞ던가 시브외
10 明年　명년 시졀(時節)은 잘 되리라 ᄒᆞ옵닉
11 翌年　이듬히ᄭᅳᆺ지 못ᄒᆞᆯ다 ᄒᆞ니 올치 아니ᄒᆞ외
12 時　시가 드자가매 오셔 가옵소
13 時節　시졀이 회복(回復)ᄒᆞ면 즉ᄒᆞ올가　(九ウ)
14 寒　날이 ᄎᆞ니 구들의 드읍*옵소
15 凉　서놀ᄒᆞ니 즘이 온다
16 冷　닝ᄒᆞ면 습이 나ᄂᆞ니
17 曛蒸　날이 흔증ᄒᆞ외
18 温　ᄃᆞ사ᄒᆞ여 됴ᄉᆞ외　(十オ)
19 暄和　오ᄂᆞᆯ은 온화(暄和)ᄒᆞ외
20 暑　심히 더오니 약々ᄒᆞ외
21 爁熱　하 무더오니 춤아 견딕치 못ᄒᆞ올쇠
22 正月　뎡월은 샹원(上元)날이 읏쯈이오니
23 二月　이월의ᄂᆞᆫ 한식이 잇ᄉᆞᆸ닉　(十ウ)
24 三月　삼월 삼일은 큰 면*명일이오니
25 四月　ᄉᆞ월의ᄂᆞᆫ 팔일이 잇고니

26 五月　오월은 단오 잇숩닉
27 六月　뉴월은 뉴두라 ᄒᆞ고 ᄆᆡ오 더온 날을 니ᄅᆞ옵닉
28 七月　칠월의ᄂᆞᆫ 칠일이 잇ᄂᆞ니라　(十一オ)
29 八月　팔월의ᄂᆞᆫ 츄셕이 잇숩닉
30 九月　구월의ᄂᆞᆫ 구일이 잇고니
31 十月　십월ᄲᅮᆫ 아모 명일도 업거*고든
32 十一月　동지ᄃᆞᆯ은 동지 이셔 픗죽 쑤기를 슝샹(崇尚)ᄒᆞ옵닉
33 十二月 섯ᄉᆞᆯ은 납평이 이시니 ᄆᆞᆯ ᄭᅩᆼ을 즙숩다가 잇듬히 녀ᄅᆞᆷ의 달혀 먹
숩닉　(十一ウ)
34 閏月　윤ᄃᆞᆯ은 삼년 만의 드옵ᄂᆞ니
35 期年　긔년 만의 도라가시나 말을 다 ᄇᆡ화 가시니 긔특ᄒᆞ외
36 名日　명일은 ᄃᆞᆯ마다 이셔 졀일을 명일이라 ᄒᆞ옵닉
37 寒食　한식은 이월의나 삼월의나 이시되 게ᄌᆞ취 위ᄒᆞᆫ 날이라
38 冬至　동지날은 외방져신은 망궐슉ᄇᆡ ᄒᆞ시ᄂᆞ니　(十二オ)
39 百終　빅죵은 칠월 보ᄅᆞᆷ날이니 샹인은 망혼이라 ᄒᆞ고 대ᄉᆞ로이 노옵닉
40 重陽　듕양은 구월 구일이니 국화ᄅᆞᆯ 구경ᄒᆞ숩닉
41 臘　납월 미일을 납향이라 ᄒᆞ옵ᄂᆞ니
42 元日　원일은 한선날이니 술이나 먹고 덕담(德談)ᄒᆞᄂᆞᆫ 날이라
43 端午　단오ᄂᆞᆫ 남녀 업시 그닉*늬ᄅᆞᆯ ᄊᆡ옵ᄂᆞ니　(十二ウ)
44 秋夕　츄셕은 산소(山所)의 가셔 쳬 ᄒᆞ옵닉
45 上絃　ᄃᆞᆯ 초팔일을 초곰이라 ᄒᆞ옵닉
46 下絃　ᄆᆡ월 이십삼일을 하현이라 ᄒᆞ옵닉
增
47 歲　셔젼은 다ᄉᆞᄒᆞ니 셰후 보옵새
48 周年　쥬년교쳬로쇠
49 社日　샤일은 츈츄의 잇숩닉

③ 晝夜

1 晝　나ᄎᆞᆫ 삼ᄉᆞ월이면 막 기외　(十三オ)
2 夜　밤이 쟈로매 앗ᄎᆞᆷ즘을 잘 자옵닉
3 朝　앗ᄎᆞᆷ의 일 니러나옵소
4 夕　져녁 대 되면 ᄆᆡ양 도라가고져 ᄒᆞ시니 그 어인 일이니잇가
5 今夕　오ᄂᆞᆯ 져녁의 말ᄒᆞ게 오옵소
6 昨夜　어제 밤은 죵용이 말ᄉᆞᆷᄒᆞ고 라*와시니 든ᄃᆞᄒᆞ외　(十三ウ)
7 陰　날이 더올 제ᄂᆞᆫ 그늘의 가 안즈면 쉬훤ᄒᆞᄂᆞ니
8 陽　볏치 ᄃᆞᄉᆞᄒᆞ니 자리ᄅᆞᆯ ᄀᆞᆯ고 말ᄉᆞᆷ이나 ᄒᆞ옵새

9 曉 새벽의 일 니러나옵소
10 暮 졈으도록 놀고 가니 다힝ᄒᆞ외
11 早 닉일 々즉 드러오시게 ᄒᆞ옵소 (十四オ)
12 晩 므슴 연고(緣故)로 이리 늣게야 오옵던고
13 暗 어두온 밤은 길 가기 무셥ᄉᆞ외
14 明 붉은 ᄃᆡ셔 일ᄒᆞ게 ᄒᆞ옵소
15 月明 둘이 붉으니 ᄉᆞ향지심(思鄕之心)이 더ᄒᆞ외
16 暎 구술이 하 영디니 눈의 ᄇᆞ의여 바로 보지 못ᄒᆞ올쇠 (十四ウ)
17 曝 이거시 측々ᄒᆞ니 볏히 노화 물릐여라
18 夕陽 셔양 ᄯᅢ ᄂᆞ라가는 가마괴 빗츤 비흘 ᄃᆡ 업숩ᄂᆞ니
19 平明 닉일 평명(平明)의 드러가오리
20 久 오래만의 뵈오니 과연 든々ᄒᆞ외
21 遲 이 칙은 더ᄃᆡ 벗겨 보내니 ᄎᆞ히*키 무심이 너기시올고 (十五オ)
22 速 쉬이 ᄒᆞ고져 ᄒᆞ되 감디*긔(咸氣)가 대단(大段)ᄒᆞ여 이제야 되엿숩닉
23 蹙 잠간 와 단녀가옵쇼셔
24 急 급히 쓰노라 호되 밋처 못 되엿숩
25 俄 이윽이 드러갓다가 나오니 슈샹ᄒᆞ외
26 嚮者 져즘씌 술은 말ᄉᆞᆷ을 닛치 마ᄅᆞ셔 (十五ウ)
27 頃日 경일은 장히 ᄃᆡ졉(待接)ᄒᆞ시니 감샤(感謝)ᄒᆞ여 ᄒᆞ옵닉
28 近間 요ᄉᆞ이부터 계오 출입(出入)을 ᄒᆞ엿숩닉
29 頃刻 경긱 ᄉᆞ이예 글 라*화답ᄒᆞ니 영민(英敏)ᄒᆞ외
30 古 녯 사ᄅᆞᆷ은 信儀(신의)ᄅᆞᆯ 효측(效惻)ᄒᆞ옵데
31 今 이제 사ᄅᆞᆷ은 신의란 닛ᄀᆞ*고 욕심만 내니 무가내하(無可奈何)ㅣ로쇠 (十六オ)
32 今日 오ᄂᆞᆯ은 죵용치 못ᄒᆞ여 섭々ᄒᆞ외
33 夜間 밤 ᄉᆞ이 平安(평안)ᄒᆞ니 多幸(다힝)ᄒᆞ외
34 明日 닉일은 국긔(國忌)니 못ᄒᆞ옵닉
35 翌日 그리 먹어도 잇튼날ᄭᅡ지 취ᄒᆞᆫ 일이 업ᄉᆞ외
36 明々日 모릐란 관의 일 드러와셔 죵용히 말ᄉᆞᆷ하옵새 (十六ウ)
37 明々後日 글쾨는 宴享(연향)이니 그리 아옵소 享이바ᄭᅳ지향지라
38 昨日 어져*제는 나오마 ᄒᆞ시고 죵시(終始) 아니 오시니 긔 어인 일이온가
39 再昨日 그적긔는 귀ᄒᆞᆫ 거슬 드려 주옵시니 다들 ᄒᆞᆫ가지로 만히 먹엇숩닉
40 初一日 초ᄒᆞᄅᆞᆫ날은 길히셔 잠간 만나 보왓숩닉
41 初二日 초잇튼날은 분요ᄒᆞᆫ 날이옵도쇠 (十七オ)
42 初三日 초사흔날은 놀고 갓숩데
43 初四日 초나흔날의 졍ᄒᆞ게 ᄒᆞ옵소

44 初五日　초다샌날은 집의 잇숩데
45 初六日　초엿샌날로 완졍(完定)이 되엿숩닉
46 初七日　초일엣날쓰음은 긔별이 잇ᄉᆞ오리　(十七ウ)
47 初八日　초여딕렌날은 을*믈렷숩닉
48 初九日　초아흐렌날의 이소(移所)ᄒᆞ엿삽닉
49 初十日　초열흘날은 한가(閑暇)ᄒᆞᆫ 날이옵도쇠
50 二十日　스므날은 경연(慶緣)을 ᄒᆞ려 ᄒᆞ옵닉
51 眉月　미월은 그믐긔롤 니ᄅᆞ고니　(十八オ)
52 何月*日 어닉 날 발졍(發程)ᄒᆞ려 ᄒᆞ시온가
53 其日　그 날은 유복(有德)ᄒᆞᆫ 날이라
54 望　열다샌날을 보름날이라 하옵닉
55 晦　그믐날은 그 둘 ᄆᆞᄌᆞ막 날이오니
56 儭　섯둘 그믐날은 덕담(德談)도 ᄒᆞ고 희롱도 ᄒᆞᄂᆞᆫ 거슬 내라 ᄒᆞ옵닉
(十八ウ)
57 除夜　섯둘 그믐날 밤을 졔야라 ᄒᆞ옵닉
58 夏至　하지ᄂᆞᆫ 오월 듕슌의 잇숩닉
59 立春　닙츈은 덕담 글을 써 기동마다 부치ᄂᆞ니
增
60 旬　초슌의 회답이 오々리
61 望　슌망간의 믈리쟈
62 念　념젼의 될 거시 념후 됫엿숩닉

④方位　방위
1 東　동산의 올라 히 동*돗ᄂᆞᆫ 양을 보옵새　(十九オ)
2 西　셔산의 히 거져 간다
3 南　남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자연 좃다 하옵닉
4 北　븍안셩은 긱회(客懷)가 도々옵닉
5 左　왼손으로 쳐라
6 前　앏희 셔치 말고 에여라　(十九ウ)
7 後　후편의 붓쳐 보내오리
8 邊　바다ᄀᆞ의 가 노쟈
9 表　것치 곱다
10 右　을*올흔손 저어라
11 隅　모히 쑈죡(尖)ᄒᆞ다　(二十オ)
12 裡　속이 ᄆᆡ오 든々ᄒᆞ다
13 底　산 밋틔 방하공이 놀기 ᄀᆞᆺᄉᆞ외

14 內　안이 샹치 아니ᄒᆞ엿숩ᄂᆞᆫ가
15 隙　창 틈으로 여어(覗)보와라
16 隔　산과 믈이 막겨시니 가기 어렵ᄉᆞ외　(二十ウ)
17 掩　ᄒᆞᆫ 고개 ᄀᆞ리와시니(掩) ᄃᆞᆫ니기 민망ᄒᆞ외
18 遮　챠일(日覆) 쳐라
19 上　뫼 우히 오ᄅᆞ면 ᄉᆞ방이 ᄲᅥᆫ히 뵈옵닉
20 方裡　방니의 무어시 잇ᄂᆞᆫ고
21 下　아ᄅᆡ 집의 누고 계시냐　(二十一オ)
22 中　가온#온대ᄂᆞᆫ 관계치 아니ᄒᆞ외
23 外　밧긔 나가옵소
24 方　ᄆᆞᆺ 모힌가 보옵소
25 四方　ᄉᆞ방이 다 바다히온가
26 四面　ᄉᆞ면이 어득ᄒᆞ매 비가 만히 올가 시브외　(二十一ウ)
增
27 東西南北　東夷北狄南蠻西戎(통이븍뎍맘*남만세융)이 다 퇴놈이라
28 中間　듕간의셔 말 ᄭᅮ미지 마오
29 空中　공듕 다히 말 々*마게

⑤地理　(二十二オ)

1 地　짱은 븍이 놉다 ᄒᆞᄂᆞ니 又 짜히 즈다
2 山　산셰가 이시면 믈이 만타 ᄒᆞ옵닉
3 平地　평지가 너ᄅᆞ와 산이 뵈지 아니ᄒᆞ외
4 野　들의셔 노옵새
5 郊　교외예 나가 산양(山獵)이나 ᄒᆞ옵소　(二十二ウ)
6 禿山　버서진 산이옵도쇠
7 峯　ᄆᆞᆺ 봉이나 잇ᄂᆞᆫ고
8 嶺　재ᄅᆞᆯ 넘어 가옵ᄂᆞᆫ가
9 巖　바회 우히 남기나니 이샹(異常)ᄒᆞ외
10 壑　굴헝이 메엿숩ᄂᆞᆫ가　(二十三オ)
11 窟　굴 속이 감々ᄒᆞ외
12 崎　산 굿치 이셔 먼 ᄃᆡ가 뵈지 아닛다
13 石壁　셕벽이 심히 험(險)ᄒᆞ거*고든
14 填　ᄌᆞ시 메워라
15 峴　고개 넘어 ᄃᆞ니시니 ᄀᆞᆺ브시올쇠　(二十三ウ)
16 岸　언덕이 놉파 ᄂᆞ리기 졀박(切迫)ᄒᆞ외
17 原　언덕이 다 믄허졋숩데

18 丘　두던이 너ᄅ외
19 磧　쟉별을 주어다가 ᄭᅡ라々
20 濵　믈ᄀᆞ의 고기 낙으라 가쟈　(二十四オ)
21 礫　돌몽이로 쳐라
22 土　흙을 니겨라
23 灰　지 놀리니 문 다ᄃᆞ라
24 埃　틋글 잘만지 비가 왓습닉
25 炭　숫 업ᄉᆞ*스면 겨을의 못 견ᄃᆡ올레　(二十四ウ)
26 塵　틋글이 이시니 스러 ᄇᆞ려라
27 沙　ᄇᆞᄅᆞᆷ이 ᄆᆡ요 부니 몰래가 놀리옵닉
28 細砂　셰사는 ᄇᆞᄅᆞᆷ이 죠곰 부러도 놀리거니
29 泥　즌흙이 ᄲᅥᆺ*뭔다
30 乾　ᄆᆞᆯ랏다　又ᄆᆞᆯ랏다　(二十五オ)
31 穴　금기 몃 금기나 잇ᄂᆞ냐
32 石　돌이 ᄎᆞ니 돌 우히 안치 마오
33 怪石　괴셕의 나모 심거라
34 花草　화초 보옵소
35 谷　방々곡々을 ᄎᆞ자 보소 又谷 골ㅏᄃᆞ云　(二十五ウ)
36 園　後園(후원)의 가셔 구경하옵새
37 堰　믈ᄀᆞ 논의 방츄*츅을 놉피 ᄊᆞ면 좃ᄉᆞ오니
38 洞　골 ᄇᆞᄅᆞᆷ이 어렵ᄉᆞ외
39 窖　날이 ᄎᆞ면 짱히 움을 믓고 자옵닉
40 坎　괸 믈 기러라　(二十六オ)
41 凹　이 논은 움쑥ᄒᆞ기의 물이 괼가 시브외
　增
42 地圖書　지도셔 보면 대강은 아옵ᄂᆞ니
43 路程記　노졍긔 가져시니 니수는 아ᄂᆞ니라
44 沙汰　사타 졋다
45 湾路　완노ᄅᆞᆯ 와셔 쳔연ᄒᆞ엿삽닉
46 斜路　샤노는 좁ᄉᆞ오니
47 石假山　셕가산을 못 가온ᄃᆡ ᄒᆞ니 보기 죠회　(二十六ウ)

⑥江湖

1 江　강이 어러니 우흘 거러 갈 밧근 업ᄉᆞ외
2 海　바다흘 ᄀᆞᆺ곰 건너 ᄃᆞ니옵시니 과연 기특ᄒᆞ외
3 河　이 믈 깁희는 언마나 ᄒᆞ올*올고

4 島　이제 셤으로 도라가시니 섭々기 ᄀᆞ이 업ᄉᆞ외　(二十七オ)
5 川　우리ᄂᆞᆫ 내 건너기도 어려이 너기옵닉
6 澤　믈이 괸 거슬 웅덩이라 ᄒᆞ옵닉
7 淵　모ᄉᆡ 고기 노ᄂᆞᆫ가 보옵소
8 池　모ᄉᆡ 고기 쒸ᄂᆞᆫ 양이 보기 좃ᄉᆞ외
9 浦　개놈들은 헤욤을 못ᄒᆞᄂᆞᆫ 놈이 업숩닉　(二十七ウ)
10 津　ᄂᆞᄅᆞ 건널 제 ᄇᆞᄅᆞᆷ이 사오나오면 거복(去福)ᄒᆞ옵데
11 灘　여흘은 믈이 ᄆᆡ이 엿숩닉
12 溪　시내ᄀᆞ의 안자ᄭᅵ 발 담고 술 먹으면 좃ᄉᆞ오니
13 泉　심 솟숩닉
14 井　우믈 믈은 깃도록 됴ᄉᆞ외　(二十八オ)
15 温井　온졘은 겨올의도 ᄯᅳᆯ흐니 괴이ᄒᆞ옵데
16 水　믈 ᄯᅥ 오옵소
17 波　믈결이 흉용(洶湧)ᄒᆞ니 ᄇᆡ 내여 놋치 마라
18 源　이 믈 根原(근원)은 예셔 몃 니나 ᄒᆞ온고
19 泓　져 한가온ᄃᆡᄂᆞᆫ 믈가래가 몃 가래나 ᄒᆞ온고　(二十八ウ)
20 氷　어럼 우흐ᄅᆞᄂᆞᆫ 밋그러워 ᄃᆞᆫ니지 못ᄒᆞ옵닉
21 滑　믈의 失足(실쪽)ᄒᆞ면 밋그러지기 쉽ᄉᆞ외
22 潮　믈이 밀엇숩닉
23 澌　칩으니 셩어가 만ᄉᆞ외
24 汐水　믈이 켜ᄂᆞᆫ가 보소　(二十九オ)
25 水宗　슈종 넘엇숩닉
26 汀　波汀(파뎡)의 믈결이 둑々 치옵닉
27 洲　쥬ᄂᆞᆫ 江邊(파뎡#강변)의 잇ᄂᆞ니라
28 渠　ᄀᆞ쳔 처라
29 灣　믈구ᄇᆡ가 너ᄅᆞ외　(二十九ウ)
30 瀑布　폭포 ᄂᆞ려지ᄂᆞᆫ 양이 雄壯(웅장)ᄒᆞ외
31 清　믈이 하 묽으니 큰 고기 업숩닉
32 邊　海邊(히변)을 ᄀᆞ의라도 ᄒᆞ고 그릇ᄉᆡ ᄀᆞ의*가 〈다〉 잇ᄂᆞ니라
33 滓濁　주의 져시니 ᄀᆞ만히 두어라
34 濁　술이 흐리니 병을 안져 두어라　(三十オ)
35 濤　파도ᄭᅳ(波)를 닉라도 ᄒᆞ옵닉
36 水道　슈도를 굴기(掘開)ᄒᆞ여야 집이 샹치 아니ᄂᆞ니
　增
37 水患　슈환으로 길을 새로이 닷갓숩닉
38 隠石　음셕은 무셥ᄉᆞ오니

39 江水　강믈은 ᄊᆞ니라　(三十ウ)

⑦水貌

1 漏　믈이 ᄉᆡ니 ᄭᅦ여졋ᄂᆞᆫ가 보와라
2 滋　이거시 브러시니 믈의 ᄃᆞᆷ갓더냐
3 涌　믈이 솟ᄂᆞᆫ가 보소
4 溢　넘으니 그만ᄒᆞ여 부어 두어라　(三十一オ)
5 滴　손의 믈이 ᄯᅳᆺᄯᅳᆺᄂᆞᆫ고나
6 濕　저즈시니 벗ᄐᆡ ᄆᆞᆯ릐여라
7 深　깃픈 ᄆᆞᅀᆞᆷ을 뉘 알리
8 沈　믈의 ᄃᆞᆷ가라
9 汲　믈 기러 부어라　(三十一ウ)
10 灑　ᄭᅩᆺ 남긔 믈 ᄲᅥ다가 ᄲᅳ려라
11 洪　이 믈 너ᄇᆡᄂᆞᆫ 장ᄒᆞ외
12 洗　ᄂᆞᆺ 시서라
13 流　믈 흘러가ᄂᆞᆫ 소릐ᄂᆞᆫ 쳐연ᄒᆞ외
14 注　통의 믈 브어라　(三十二オ)
15 泅　허욤 헤ᄂᆞᆫ 양을 보니 과연 긔특ᄒᆞ외
16 泡　믈거픔 진다
17 溺　믈의 ᄲᅡ진 것 다 건져 내여라
18 潰　방츅이 문허져 믈이 나옵ᄂᆡ
19 涵　믈 속의 ᄌᆞᆷ기여도 헤욤을 ᄒᆞ니 이샹(異常)ᄒᆞ외　(三十二ウ)
20 水鈴　비곳 급히 오면 믈방올 치옵ᄂᆡ
21 浮　져 믈의 ᄲᅥ 가ᄂᆞᆫ 거시 무어신고 보ᄉᆞᆯ피라
22 淺　엿튼 사ᄅᆞᆷ과ᄂᆞᆫ 말ᄒᆞ기 슬ᄉᆞ외
　增
23 龍宮　뇽궁은 뇽신이 부지기수ㅣ 잇ᄂᆞᆫ가 보ᄭᅀᅬ
24 節水　졀슈를 간직ᄒᆞ여 두엇다가 녀ᄅᆞᆷ의 쓰쟈
25 米泔水　미감슈의 셜당을 녓고 먹으면 님질의 좃다 ᄒᆞ옵ᄂᆡ　(三十三オ)

⑧舟楫

1 舟　ᄇᆡ ᄐᆞ고 가쟈
2 帆　돗 ᄃᆞ라々
3 檣　돗대가 너모 코다
4 櫓　노 저어라　(三十三ウ)
5 筏　나모 시론 ᄲᅦ라

6 柁　ᄇᆡᄃᆞ리 노하라 ᄂᆞ리쟈
7 碇　닷 주어라
8 泊　ᄇᆡ ᄆᆡ여라
9 快舩　잰 ᄇᆡ ᄐᆞ고 몬져 가쟈　(三十四オ)
10 注乙　줄 주어라
11 渡　다 건너 왓ᄂᆞ냐
12 船頭　니믈의 셔々 ᄇᆡ 다힐 ᄃᆡ를 ᄉᆞᆯ피라
13 船梢　ᄇᆡ 고믈의 두어라
14 小船　쇼션은 ᄇᆞᄅᆞᆷ이 잔々ᄒᆞ여야 ᄐᆞᆺᄉᆞ오니　(三十四ウ)
15 下蓬　돗 지워라
16 櫓房　장방의 오ᄅᆞ쟈
17 水疾　ᄇᆡ ᄐᆞ고 오다가 슈질ᄀᆞ을 ᄒᆞ여 줄#죽을 번 ᄒᆞ엿ᄉᆞᆸᄂᆡ

⑨人品　(三十五オ)
1 両班　냥반인 즐 모로고 말을 ᄒᆞᆫ부ᄀᆞ로 ᄒᆞ니 ᄶᅢ심ᄒᆞ옵데
2 常人　샹놈들은 인ᄉᆞ(人事)를 모로오니
3 商賈　샹고ᄀᆞ들이 요ᄉᆞ이ᄂᆞᆫ 괴이들ᄀᆞ 되엿ᄉᆞᆸᄂᆡ
4 行賈　요ᄉᆞ이ᄂᆞᆫ ᄃᆞᆫ니며 쟝ᄉᆞᄒᆞ여 먹ᄂᆞᆫ 사ᄅᆞᆷ이 맛#만ᄉᆞᆸ데
5 市人　시졍의 ᄌᆞ손은 아모 벼슬도 못ᄒᆞ옵ᄂᆡ　(三十五ウ)
6 民　百姓(빅셩)들이 員(원)을 공경(恭敬)ᄒᆞ옵ᄂᆡ
7 軍　군ᄉᆞᄂᆞᆫ 몃치나 잇ᄂᆞᆫ고
8 兵　병장기ᄀᆞ들은 여러(ラ)가지매 ᄌᆞ셔 모로올레
9 丁　壯丁(장뎡)을 ᄲᅡ 치와라
10 奉足　봉죡ᄀᆞ (チヨク)ᄒᆞᄂᆞᆫ 쟈(者)가 만ᄉᆞ외　(三十六オ)
11 使令　ᄉᆞ령(使令) 블러 잡아(ザバ) 오라 ᄒᆞ고 닐러라
12 鰥　홀로 잇ᄂᆞᆫ 한뷔ᄀᆞ(夫)옵도쇠
13 寡　과부란 거슨 졀을 직희니 긔특ᄒᆞ오니
14 孤　외로이 이셔 죽히 민망ᄒᆞ시올가
15 獨　홈자 계시니 심々ᄒᆞ개 ᄒᆞ엿ᄉᆞᆸᄂᆡ　(三十六ウ)
16 覡　화랑이#을 보온가
17 巫　무당의게 무러 보소
18 客　손님이 와 계시매 아모거시나 댱만ᄒᆞ여라
19 隱士　은ᄉᆞᄂᆞᆫ 과거(科挙)를 슬희여 숨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로쇠
20 道士　도ᄉᆞᄂᆞᆫ 산골의 살고 道德(도덕)이 잇ᄂᆞᆫ 션뵈ᄅᆞᆯ 니ᄅᆞ옵ᄂᆡ　(三十七オ)
21 英雄　天下(쳔하) 영웅이옵도쇠
22 豪傑　호걸읫 사ᄅᆞᆷ은 젹ᄉᆞᆸ데

23 戯子　희ᄌᆞ란 거시 온간 ᄌᆡ조를 ᄌᆞ미(慈味)잇게 ᄒᆞ옵ᄂᆡ
24 傀　광대 노ᄅᆞᆺ ᄒᆞᄂᆞᆫ 양이 보기 좃ᄉᆞ외　又광대
25 師　자ᄂᆡᄂᆞᆫ 놈의 스승의 ᄇᆞᆯ셔 되여시니 깃브외　(三十七ウ)
26 弟子　제ᄌᆞᄅᆞᆯ 잘 ᄀᆞᄅᆞᆺ쳐 셩ᄌᆡᄒᆞ개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옵도쇠
27 中媒　즁ᄆᆡ란 거슨 혼인의 ᄉᆞ이예 드러 ᄒᆞ옵ᄂᆞ니
28 卜者　복쟈의게 졈을 무러 보옵소
29 僧　져 즁놈 잡아 긔 브ᄇᆡ여라
30 尼　승이란 거슨 겨집 즁이오니　(三十八オ)
31 匠　댱인은 무ᄉᆞᆷ 댱인 무ᄉᆞᆷ 댱인니 잇ᄉᆞᆸᄂᆞᆫ고
32 冶匠　플모아지라 ᄒᆞᄂᆞᆫ 쟝인도 잇ᄉᆞᆸᄂᆡ 又대쟝
33 鑄匠　아모거시나 덧ᄂᆞᆫ 댱인도 잇ᄉᆞᆸᄂᆡ
34 浦作　보작ᄀᆞ한(浦作漢) 이들 믈 속의 드러 싱포 ᄯᆞᄂᆞᆫ 양 보옵소
35 漁父　어부ᄃᆞ들이 고기ᄅᆞᆯ 언마나 잡앗더냐　(三十八ウ)
36 獵者　산장이들이 옷갓 산양을 ᄒᆞ옵ᄂᆡ
37 白丁　ᄇᆡᆨ뎡이란 거슨 쇼 잡ᄂᆞᆫ 놈이오니
38 牙子　홍졍이란 거슨 즈름을 ᄉᆞ이예 녀허야 ᄃᆞᆺᄉᆞ외
39 曰者　왈쟈란 거슨 심히 패례ᄒᆞ외
40 樵夫　져(チヨウ) 쵸부ᄀᆞᄃᆞ려 길을 무러 보옵소　(三十九オ)
41 翁　나 만은 하라비니 치지 마소
42 媼　할미 블너라
43 性　이 사ᄅᆞᆷ은 셩식이 만히 슌량ᄒᆞ외
44 品　져 사ᄅᆞᆷ은 제 인픔이 ᄑᆞᆨᄒᆞ고 미련ᄒᆞᆫ 사ᄅᆞᆷ이옵도쇠
45 聖　棋獜(긔린)이 나면 셩인이 나시옵ᄂᆡ　(三十九ウ)
46 賢　요ᄉᆞ이 보온즉 어진 사ᄅᆞᆷ이 뎍습데
47 仙　神仙(신션)이 蓬莱山(보#봉ᄂᆡ산)의 모화(ワ) 바독 둔다 ᄒᆞ옵ᄂᆡ
48 仁道　사ᄅᆞᆷ이 부ᄃᆡ 仁道(인도)를 行(힝)ᄒᆞ여야 올ᄉᆞ외
49 能　부ᄃᆡ 능ᄒᆞᆫ 톄 말고 챡실(着實)이 ᄒᆞ옵소
50 察　부ᄃᆡ 일을 ᄉᆞᄅᆡ#숣펴 ᄒᆞ옵소　(四十オ)
51 謀　져 사ᄅᆞᆷ은 꾀 쓰ᄂᆞᆫ 사ᄅᆞᆷ이니 밋지 못ᄒᆞ오리
52 圖謀　미리 도모를 잘 ᄒᆞ옵소
53 勇　이 사ᄅᆞᆷ은 만히(イ) ᄂᆞᆯ낸가 시브외
54 健者　세찬 놈의 샹 주옵소
55 智　자ᄂᆡᄂᆞᆫ 지혜 만흔 사ᄅᆞᆷ이니 얼연히 ᄒᆞ시올가　(四十ウ)
56 鈍　져 사ᄅᆞᆷ은 둔ᄒᆞ오니
57 聰　그대도록 총명키야 쉽ᄉᆞ올가
58 慧　公(공)의 아ᄃᆞᆯ은 혜일(慧逸)ᄒᆞ다 ᄒᆞ니 깃브외

59 敏　민쳡ᄒᆞ외
60 才　지조 용ᄒᆞᆫ 사ᄅᆞᆷ이로쇠　(四十一オ)
61 德　ᄂᆞᆷ의게 덕턱(德澤)을 깃쳐야 올흐니라
62 懶惰　우리ᄂᆞᆫ 과연 게오ᄅᆞ니 ᄀᆡ이업ᄉᆞ외
63 貪　탐 업슨 사ᄅᆞᆷ은*이 쉽지 아니ᄒᆞ오니
64 吝　사ᄅᆞᆷ이 져리 추ᄒᆞ고 더러워 무어ᄉᆡ 쓰리
65 慾　욕심만 내여든 일이 되ᄂᆞ냐　(四十一ウ)
66 巧　어 그것 공교롭다
67 妙　과연 묘ᄒᆞ거든
68 術　술 내여 부리ᄂᆞᆫ 체 마소
69 愎　어 그것 퍅ᄒᆞᆫ 인믈이로다
70 詳細　부ᄃᆡ 일을 仔細(ᄌᆞ셔)히 ᄒᆞ소　(四十二オ)
71 汎濫 져 사ᄅᆞᆷ은 눈ᄒᆞ고 범남(汎濫)ᄒᆞᆫ 사ᄅᆞᆷ인가 시브외
72 姦悪　져 놈은 심히 간악ᄒᆞᆫ 놈이니 무셥ᄉᆞ외
73 奢侈　강ᄒᆞ#호 다히ᄂᆞᆫ ᄀᆞ장 샤치ᄒᆞᆫ가 시브외
74 儉朴　이 사ᄅᆞᆷ은 검박ᄒᆞ니 긔특ᄒᆞ외
75 詐　그 쟈ᄂᆞᆫ 간사ᄒᆞ여 못 부릴 놈이오니　(四十二ウ)
76 福　사ᄅᆞᆷ의게ᄂᆞᆫ 복이 웃듬이오니
77 剛毅　자닉ᄂᆞᆫ 굿센 사ᄅᆞᆷ이오매 브ᄃᆡ 강의다#지심을 먹숩소
78 悪　모진 사ᄅᆞᆷ과ᄂᆞᆫ 말도 ᄒᆞ기 슬ᄉᆞ외
79 悖悪　져 놈은 거ᄅᆞᆷ 것ᄂᆞᆫ 양을 보니 심히 패악ᄒᆞᆫ가 시브외
80 柔　보도러워 유화ᄒᆞᆫ 사ᄅᆞᆷ이야 됴ᄉᆞ오니　(四十三オ)
81 愚　어 요것 졸망이로다
82 拙　하 어리게 구지 마라
83 烈　이제라도 녈녀가 이시니 아니 귀(貴)ᄒᆞ온가
84 迷惑　어 이것 미혹#혹(迷惑)ᄒᆞᆫ 거시로다
85 劣　그것 용녈ᄒᆞ여 아모ᄃᆡ도 슬ᄃᆡ 업ᄂᆞᆫ*슨 거시로다　(四十三ウ)
86 優　속이 ᄆᆡ오 넉々ᄒᆞ다
87 勤　자닉ᄂᆞᆫ 每事(ᄆᆡᄉᆞ)가 과연 브즈런ᄒᆞ니 긔특ᄒᆞ외
88 倦　게올러 낫즘 자기의 학질(瘧疾)을 어덧ᄂᆞᆫ가 시브외
89 倨慢　요ᄉᆞ이 관듕 하인들이 만히(イ) 거만(倨慢)ᄒᆞ여 뵈옵닉
90 踈略　어 그 사ᄅᆞᆷ 소략ᄒᆞᆫ 사ᄅᆞᆷ이로다　(四十四オ)
91 狃　자닉 버르시 과연 쏙별이로다

⑩官爵

1 皇帝　황뎨ᄂᆞᆫ 텬하셩쥬ㅣ시라 졔국을 다ᄉᆞ려 계시옵닉　(四十四ウ)

2 王　님금은 一國之王(왕)이라 各々(각々) 나라흘 직희여 계시옵닉
3 君　군은 님금 아돌을 군이라 ᄒᆞ옵ᄂᆞ니
4 東宮　동궁은 셰ᄌᆞ 계신 ᄃᆡ롤 동궁이라 ᄒᆞ옵닉
5 太子　태ᄌᆞ는 황뎨 될 사ᄅᆞᆷ이오니
6 世子　셰ᄌᆞ는 님금 될 사ᄅᆞᆷ이니　(四十五オ)
7 皇后　황후는 황뎨 아닉시브*니라
8 王后　왕후는 님금 실닉(室内)오니
9 大君　대군은 나라 아돌을 니ᄅᆞ ᄂᆞ니
10 諸侯　졔후는 어진 臣下를 부려야 올ᄉᆞ외
11 宰相　지샹은 一國政事(일국뎡ᄉᆞ)를 부즈런히 ᄒᆞ옵닉　(四十五ウ)
12 御使　어ᄉᆞ가 ᄃᆞ니면 各 邑 守令(각 읍 슈령)도 조심ᄒᆞ옵닉
13 勅使　딕ᄉᆞ는 위의가 거륵ᄒᆞ외
14 使臣　ᄉᆞ신은 사ᄅᆞᆷ을 ᄀᆞᆯ희*히야 보내옵닉
15 監司　감ᄉᆞ는 一道 王(일도 왕)이라 니ᄅᆞ옵닉
16 兵使　병ᄉᆞ는 兵馬節度使(평마졀도ᄉᆞ)ㅣ오니　(四十六オ)
17 僉使　쳠ᄉᆞ를 僉節制使(쳠졀졔ᄉᆞ)ㅣ라 ᄒᆞᄂᆞ니
18 守令　슈령은 郡守懸監(군슈현감) ᄀᆞᆺ튼 니롤 니ᄅᆞ옵닉
19 臣　신하가 만ᄉᆞ오되 착ᄒᆞᆫ 사ᄅᆞᆷ이 드므오니
20 士　션비가 不知其数(부지기수ㅣ) 모홧ᄉᆞᆸ닉
21 職　무ᄉᆞᆷ 벼ᄉᆞᆯ ᄒᆞ엿ᄉᆞᆸᄂᆞᆫ가　(四十六ウ)
22 位　公(공)은 무ᄉᆞᆷ 가ᄌᆞ를 탓ᄉᆞᆸᄂᆞᆫ고
23 任　소임은 무ᄉᆞᆷ 소임을 지내엿ᄉᆞᆸᄂᆞᆫ가
24 掌　구一代官(일ᄃᆡ관)은 무ᄉᆞᆷ 소업(所業)을 主掌(쥬쟝)ᄒᆞ옵신고
25 業　자닉 아돌은 수*무ᄉᆞᆷ 소업을 시기려 ᄒᆞᄂᆞᆫ가
26 差定　무ᄉᆞᆷ 소임을 치졍ᄒᆞ엿관ᄃᆡ 밧비 가랸ᄂᆞᆫ고　(四十七オ)
27 役　하인들이 요ᄉᆞ이ᄂᆞᆫ 역ᄉᆞ가 되니 못 견되여 ᄒᆞ옵닉
28 長者　쟝쟈를 보면 사ᄅᆞᆷ들이 ᄃᆡ졉ᄒᆞ옵ᄂᆞ니
29 通事　통ᄉᆞ의 언제 드럿ᄂᆞᆫ가
30 醫　의원의게 믹 뵈고 약이나 먹ᄉᆞᆸ소
31 畫員　화원의 쳥(請)ᄒᆞ셔 그림 어더 주쇼　(四十七ウ)
32 内醫　닉의ᄂᆞᆫ 京都(경도) 사ᄅᆞᆷ인가 보ᄋᆞ외
33 書吏　셔니#리ᄂᆞᆫ 國書(국셔)를 뫼셧ᄉᆞᆸ닉
34 君子　군ᄌᆞᄂᆞᆫ 不見小過(블견쇼괘)ㅣ라 ᄒᆞ옵ᄂᆞ니
35 近習　근습은 近侍(근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니ᄅᆞ옵ᄂᆞ니
36 公役　공역을 시작ᄒᆞ엿ᄂᆞᆫ가　(四十八オ)

⑪天倫

1 祖父　조부ᄭᅡ 계시온가
2 祖母　조모가 업서 계시온가
3 父母　부모를 셤기고 효도를 힘써 ᄒᆞ는 거시 읏듬이오니　(四十八ウ)
4 親父　놈의게 양ᄌᆞ 간 사ᄅᆞᆷ은 제 친부(親父)의게 猶同叔姪(유동슉질)ᄲᅮᆫ ᄀᆞᆺᄉᆞ외
5 長兄　맛아ᄅᆞᆯ은 몃 술이 되옵ᄂᆞᆫ가
6 兄　형님의 말을 드ᄅᆞ니 긔특ᄒᆞ외
7 弟　아ᄋᆞ가 몃치나 잇ᄂᆞ냐
8 親　어버의게 효도ᄒᆞ는 兄弟(형졔)옵도쇠　(四十九オ)
9 族　결ᄅᆡ들이 만흐시온가
10 叔父　슉부가 여러 분이온가
11 叔母　슉모가 다ᄉᆞᆺ 분이옵도쇠
12 姪　족하는 여러히 잇습니
13 女姪　ᄉᆞᆯ족하가 거번의 와 보고 가옵데　(四十九ウ)
14 夫　지아비ᄅᆞᆯ 셤기ᄂᆞᆫ 일은 三綱 中(삼강 듕)의 잇ᄂᆞ니라
15 妻　안희ᄂᆞᆫ 빅년을 히로ᄒᆞ니 오샹의 잇ᄂᆞᆫ 일이라
16 女　계집은 문 밧글 나ᄂᆞᆫ 일이 업슨지라
17 男　ᄉᆞ나히ᄂᆞᆫ 닙신양명 이현부뫼라 ᄒᆞ옵니
18 女息　ᄉᆞᆯᄌᆞ식은 제 ᄉᆡ가로 가기의 어엿브기ᄂᆞᆫ 아ᄃᆞᆯ에셔 더ᄒᆞ외　(五十オ)
19 子　ᄌᆞ식은 어려셔부터 튱효의 行實(힝실)을 ᄀᆞᄅᆞ치옵소
20 曽孫　증손은 하 여러히니 얼글을 아지 못ᄒᆞ옵니
21 婦　며ᄂᆞ리ᄂᆞᆫ 내 나흔 ᄌᆞ식도곤 귀(貴)ᄒᆞ오니
22 姉　맛누에ᄂᆞᆫ 셰ᄉᆞᄅᆞᆯ 나셔 잘 지내고 거륵ᄒᆞ니라
23 婿　사회ᄂᆞᆫ 놈의 ᄌᆞ식이라 빅년 손이오니　(五十ウ)
24 舅　ᄉᆡ어버이ᄅᆞᆯ 효힝으로 셤기옵니
25 妹　아ᄋᆞ 누에ᄂᆞᆫ 시방ᄭᅴ(時方) 부모(父母)의 슬하(膝下)의 잇습니
26 姑　ᄉᆡ어마님이 늙어 계시외
27 兄嫂　아ᄌᆞ미 덕이 ᄌᆞ손 만당ᄒᆞ외
28 弟嫂　아ᄋᆞ 안희ᄂᆞᆫ 아직 졈ᄉᆞ외　(五十一オ)
29 妻娚　쳐남이 미부ᄅᆞᆯ 미오 딕졉ᄒᆞ옵니
30 同婦　동부ᄭᅡ 서로 됴화ᄒᆞ니 집안이 화목ᄒᆞ외
31 査頓　사돈ᄭᅴ이 어진 사ᄅᆞᆷ이옵도쇠
32 婚姻　혼인은 문호(門戸)를 ᄀᆞᆯ히여 ᄒᆞ옵니
33 奠鴈　댱가 갈 제 뎐(奠)ᄒᆞ는 기러기옵도쇠　(五十一ウ)
34 嫁　嫁年(가년)ᄒᆞ면 셔방(書房) 맛습니　常二云花智 새셔방

35 改嫁　기가는 강남 법이라
36 配匹　텬졍 비필이라 ᄒᆞ옵닉　又夫婦　부부
37 上典　상뎐ᄋᆞ은 하늘 ᄀᆞᆺᄐᆞ니라
38 朋友　벗을(ボツツル) 사괴면 有信(유신)케 ᄒᆞ여야 올ᄉᆞ오니
　　朋友 풍우　(五十二オ)
39 僕　從(죵)이 무상(無状)ᄒᆞ기의 밋치 못ᄒᆞ올쇠
40 奴　ᄉᆞ나희*히 죵은 힘이 세여야 부리기 ᄉᆡ원#훤ᄒᆞ오니
41 婢　겨집 죵은 기자ᄋᆞ코 녕니ᄒᆞ여야 좃ᄉᆞ오니
42 雇工　고공사리는 근본을 알고 부려야 올흐니라
43 嫡室　뎍실은 노복을 ᄌᆞ셔 모로옵닉　(五十二ウ)
44 庶　孽子(월ᄌᆞ)는 妾(쳡)의게 나흔 ᄌᆞ식이라
45 義父　의부 아비란 거슨 역시 강남 풍쇽이옵도쇠
46 養子　양ᄌᆞ는 부ᄃᆡ 어려셔 길러 졍을 붓쳐야 됴ᄉᆞ외
47 子息　ᄌᆞ식을 일 어더시니 깃브외
48 娚　오라비ᄋᆞ는 다 어질ᄋᆞ고 착ᄒᆞᆫ 사ᄅᆞᆷ이옵도쇠　(五十三オ)
49 處女　셩혼(成婚) 못ᄒᆞᆫ 쏠을 쳐녀라 ᄒᆞ옵닉　又娘子 낭ᄌᆞ
50 汝　너는 몬져 니거라
51 君　자닉는 집을 직희여 잇소
52 我　내게는 아ᄃᆞᆯ이 다ᄉᆞᆺ시오、손ᄌᆞ가 여러히 잇숩닉
53 吾等　우리들은 나라 일르#로 ᄆᆡ일 분주ᄒᆞ옵닉　(五十三ウ)
54 他　다ᄅᆞ니는 셔울 가 녹 먹고 놉픈 벼슬 ᄒᆞ엿숩닉
55 某　아모가이는 올히 급체를 ᄒᆞᆫ다 ᄒᆞ옵닉
56 此　여긔는 풍토ㅣ 사오나와 오래 잇지 못ᄒᆞᆯ 곳이로쇠
57 伊　제 어이 날ᄃᆞ려 ᄆᆡ몰히 구올고
58 其　그 쇼년이 잘 싱겻숩닉　(五十四オ)
59 姓　셩은 여러 셩이로되 됴션은 원 뉵셩이올쇠
60 自　절로 되는 일이 좃다
61 姓本　셩본은 시조 계신 ᄃᆡ를 니른 말이옵도쇠
62 字　ᄌᆞ는 일홈ᄌᆞ ᄯᅳᆺ을 보와 가며 짓숩닉
63 名　일홈은 두 ᄌᆞ로도 짓고 ᄒᆞᆫ ᄌᆞ로도 짓ᄂᆞ니라　(五十四ウ)
64 別號　별호는 일홈과 ᄌᆞ 지는*언 외예 별로 지어 브ᄅᆞ옵닉
65 彼漢　져 놈은 젼부터 슬겁ᄉᆞ외
66 此漢　이 놈은 샹놈이로되 진셔과 언문을 다 아옵닉
67 厥　궐이 改過ᄒᆞᆫ다 ᄒᆞ기의 노를 긋치소
　增補
68 父　네 아비과 ᄒᆞᆫ 동갑(同甲)이로고　(五十五オ)

69 母　어마니를 쫄아간다
70 同生　동싱이 방블ᄒᆞ고든
71 彼輩　져 싸름ᄂᆡ가 허무ᄒᆞ외
72 小生　쇼싱
73 小弟　쇼졔
74 小人　쇼인
75 私　내
76 俺　암ᄀᆞ
77 鄙　비ᄀᆞ
78 僕　복ᄀᆞ
79 生　싱ᄀᆞ
80 丈人　쟝인
81 大完　대완
82 三寸　삼촌
83 四寸　ᄉᆞ촌
84 玉潤　옥윤
85 半子　반ᄀᆞᄌᆞ　다 사회란 말이라
86 新郎　신낭
87 新婦　신부
88 宮合　궁합
89 茶母　다모
90 食母　식모
91 水汲婢　슈급데
92 妓生　기싱
93 童妓　동기
94 官婢　관비　(五十五ウ)

⑫頭部

1 頭　마리를 ᄎᆞ게 ᄒᆞ면 두통이 업숩데
2 頂　뎡바기예 샹토 ᄲᅡᆺ숩ᄂᆡ　(五十六オ)
3 額　니마의 허믈이 잇숩ᄂᆡ
4 腦　ᄃᆡ골의 니가 혜 슬어시니 비서다가 업게 ᄒᆞ라
5 目　눈이 붉ᄉᆞ외
6 瞳　동ᄌᆞ가 뎌ᄂᆞᆫ 둘이옵도쇠
7 眼包　눈두에가 온ᄋᆡᆼ 겁질 ᄀᆞᆺᄉᆞ외　(五十六ウ)
8 眸　눈망올이 둥구러ᄒᆞ외

9 白睛　흰ᄌᆞ외 블근 뇌육이 잇숩닉
10 黒睛　거믄ᄌᆞ가 누로다
11 腦肉　뇌육이 젹고 눈이 묽ᄉᆞ외
12 眼毛　눈섭이 기다　(五十七オ)
13 眉　눈섭이 나븨 눈섭이옵도쇠
14 面　ᄂᆞᆺ치 얽고 검고 쩡긔외
15 顔　안식이 곱ᄉᆞ외
16 鼻　코의 다히고 내롤 맛타 보옵소
17 鼻頭　코 긋틱、여ᄋᆞ、긔여、가옵닉　(五十七ウ)
18 鼻孔　코구멍의 털을 바히옵소
19 鼻脊　코ᄌᆞᆫ등이 놉프니 샹이 좃ᄉᆞ외
20 摔鼻　코플기를 ᄒᆞᆫ부러 ᄒᆞ면 ᄂᆞᆷ이 보면 더러이 너기옵닉
21 鼾　코롤 ᄆᆡ이 코오니 듯기 슬희여 겻틱셔 자지 못ᄒᆞ올쇠
22 耳垢　긔여지 내옵소　(五十八オ)
23 耳　귀먹어 민망ᄒᆞ외
24 耳郭　귀밧괴 둣거워 ᄀᆞ쟝 댱슈(長壽)ᄒᆞ여 뵈옵닉
25 鬢　귀밋털이 셰엿숩닉
26 鬚　웃나롯슬 ᄉᆞ매로 닥숩소
27 髯　아릭나롯시 길고 샤치 잇숩닉　(五十八ウ)
28 勒鬚　구레나롯시 녀름이면 덥ᄉᆞ외
29 禿髪　민댜야ᄂᆞᆫ 보기 슬숩데
30 白髪　흰 털이 ᄀᆞ독 나매 ᄀᆞ렵ᄉᆞ외
31 咽喉　목이 몌여 말이 나지 아니ᄒᆞ옵닉　(五十九オ)

⑬身部

1 身　몸이 비둔ᄒᆞ외
2 骨髄　골슈의 ᄇᆡ야숩닉
3 骨　쎠가 긁기의 힘으로 일ᄒᆞ기ᄂᆞᆫ ᄂᆞᆷ의셔 낫숩닉
4 肌　술이 보ᄃᆞ랍고 둇ᄉᆞ외　(五十九ウ)
5 皮　피육이란 문ᄌᆞᄂᆞᆫ 쓰되 사ᄅᆞᆷ의 가족이란 말은 아니ᄒᆞ옵닉
6 力　힘이 세다
7 肩　엇게예 메옵소
8 筋　힘줄이 뎍으니 힘이 약ᄒᆞᆫ가 시브외
9 手　손외*의 쥐옵소　(六十オ)
10 臂　풀의 힘이 만흐니 활쏘기롤 니기옵소
11 脘　손목 쥐고 흠긔 가옵새

12 指　손가락의 뎡죵(疔腫)이 낫숩닉
13 一指　엄지 손가락의 밥 무덧숩닉
14 二指　둘재 가락의 디고 입의 녓숩소　(六十ウ)
15 三指　글시 쓸 제 ᄂᆞ리 긋ᄂᆞᆫ 획은 댱가락의　힘이옵도쇠
16 四指　네재 가락으로 연지 ᄇᆞᄅᆞᄂᆞᆫ 양이 어엿브외
17 五指　삭기 손가락이 져ᄅᆞ오니
18 腋　녑희 씨고 가라
19 掌　손바당을 폐옵소　(六十一オ)
20 手背　손등의 무샤마괴 잇다
21 爪　손톱의、가시ᄂᆞᆫ、알고도、념통의、디긔를、모로ᄂᆞᆫ、사ᄅᆞᆷ이、옵도쇠
22 手紋　손금을 ᄀᆞᄅᆞ 건네여 쥐여시니 좃ᄉᆞ외
23 胸　가슴의 체ᄒᆞ여 ᄂᆞ리지 아니ᄒᆞ외
24 乳　졋싀 ᄆᆞᆼ올이 이시면 프러야 됴ᄉᆞ오니　(六十一ウ)
25 指節　손 ᄆᆞᄃᆡ가 크외
26 背　등이 구브니 펴옵소
27 腰　허리 알프니 쉬옵소
28 腹　비 브ᄅᆞ외
29 臍　비쏀록 크고 깁ᄉᆞ외　(六十二オ)
30 臂肘　풀 궁동이예 닷치니 아프외
31 膝　슬갑 도적이옵도외
32 膕　거ᄅᆞᆷ을 멀리 거ᄅᆞ니 오곰이 앗프외
33 脊　몸이 술지기예 등ᄇᆞᄅᆞ뼈가 뵈지 아니ᄒᆞ외
34 跟　샹뎐의 샐내 ᄒᆞ면 발뒤측이 흰다 ᄒᆞ옵닉　(六十二ウ)
35 足　발이 저리다
36 挑骨　복셩화뼈(桃ノ花骨) 브러도듯숩닉
37 足掌　발바당이 술지면 거ᄅᆞᆷ 못 거고 여외면 잘 것숩닉
38 足疔　발의、틔눈이 나、촌보도、움즈기지、못ᄒᆞ옵닉
39 脚　다리 앗프면 멀니ᄂᆞᆫ 못 가시게 ᄒᆞ엿숩닉　(六十三オ)
40 心　ᄆᆞᄋᆞᆷ이 바로면 ᄒᆞᄂᆞᆫ 일도 올케 ᄒᆞ옵ᄂᆞ니
41 肺　폐열ᄒᆞ여 그러ᄒᆞ외
42 肝　간화가 낫숩기예 눈이 어듭ᄉᆞ외
43 膽　셩이 하 나니 담이 ᄲᅥᆯ리옵닉
44 脾　비위가 샹(傷)ᄒᆞ오리　(六十三ウ)
45 胃　위열ᄒᆞ여 음식이 맛업ᄉᆞ외
46 腸　간쟝인들 견ᄃᆡ올고
47 膀胱　오좀통의 습열이 드렷숩닉

48 腎　신경이 허ᄒᆞ니 약을 자시면 낫ᄉᆞ오리
49 氣　긔운이 방장이ᄋᆞᆸ도쇠　(六十四オ)
50 血　혈긔 만ᄉᆞ외
51 呼　숨을 내쉬ᄋᆞᆸ소
52 吸　숨을 드리긋습소
53 脉　진믹(胗脉)ᄒᆞ여 주ᄋᆞᆸ소
54 息　쉬면 좃ᄉᆞ오되 도로혀 병이 나ᄋᆞᆸ닉　(六十四ウ)
55 太息　한숨을 지시니 그 어인 일인고
56 命　슈인ᄉᆞ 후외 ᄃᆡ쳔명이라 ᄒᆞᄋᆞᆸ닉
57 夢　꿈은 거즛 일이오나 한단몽은 든々ᄒᆞᆫ가 시브외
58 汗　ᄯᅳᆷ이 만히 나면 일신의 진익이라 좃치 아니ᄒᆞ외
59 涎　춤을 부ᄃᆡ 춤통의 밧고 ᄇᆞ람벽의 밧지 아*마소　(六十五オ)
60 淚　눈믈은 진졍으로 셜워야 나ᄂᆞᆫ 서기올레
61 瞬　일슌 쳔 니라 ᄒᆞ니 니별도 잠간 ᄒᆞ면 좃ᄉᆞ오니
62 涕　외감으로 콧믈이 절로 나니 ᄎᆞᆷ아 ᄀᆞᆺᄀᆞᆸᄒᆞ외
63 拭　셜으면 코눈믈이 아모리 쓰서도 무한이 나ᄋᆞᆸ닉
64 音　소릭ᄂᆞᆫ 쳔하 뇌통ᄒᆞ되 소릭로 ᄒᆞᄂᆞᆫ 말이 다 다로니 괴이ᄒᆞ옵데　(六十五ウ)
65 響　뫼아리 응ᄒᆞᄂᆞᆫ 소릭 심히 ᄲᆞᄅᆞᄋᆞᆸ닉
66 唾　춤을 ᄂᆞᆷ 아니 보게 바ᄐᆞ면 사ᄅᆞᆷ이 졍케 너기옵닉
67 喧　짓쒜니 요란ᄒᆞ여 듯지 못ᄒᆞ올쇠
68 屎　쟉도 ᄌᆞ로만ᄒᆞᆫ ᄯᅩᆼ을 실오리 되게 시서도 내ᄂᆞᆫ 나옵닉
69 瀉　ᄯᅩᆼ ᄌᆞ지옵닉　(六十六オ)
70 放尿　오좀 누옵새
71 腹鳴　시쟝ᄒᆞ면 ᄇᆡ예 소릭 나셔 허ᄒᆞ니 ᄇᆞᄅᆞᆷ이 드옵닉
72 夢泄　졍신이 업슨 ᄯᅢᄂᆞᆫ 몽셜ᄒᆞ니 괴이ᄒᆞ옵데

⑭形貌　(六十六ウ)
1 形　형상을 보니 녜ᄉᆞ 사ᄅᆞᆷ 아니니 긔 뉘온고
2 樣　모양이 바로고 기우지 아니ᄒᆞ외
3 儀　거동이 냥반인지 좀사ᄅᆞᆷ 아닌 듯ᄒᆞ여 뵈옵닉
4 像　샹이 죠흐니 시위 션젼관 ᄒᆞᆯ 사ᄅᆞᆷ인가 시보외
5 雛　ᄂᆞᆺ치 살이 만히 지니 늙것ᄂᆞᆫ가 보외　(六十七オ)
6 健壯　건장ᄒᆞ니 졈어셔부터 슉셩ᄒᆞ엿ᄂᆞᆫ가 시브외
7 強　ᄒᆞᄂᆞᆫ 양이 강항녕이옵도쇠
8 剛　굿센 사ᄅᆞᆷ이옵도쇠

9 弱　질약ᄒᆞ니 본ᄃᆡ 병이 잇ᄂᆞᆫ가 시브외
10 秀　ᄂᆞᆷ의게 ᄲᅡ혀나니 깃브외　(六十七ウ)
11 嚬　찡긔니 슬희여 ᄒᆞ신가 시브외
12 壯　장뎡을 치와시니 든々ᄒᆞ외
13 肥　ᄉᆞ리 지니 아마 됴리를 잘ᄒᆞ시ᄂᆞᆫ가 시브외
14 瘦　너모 여외여 계시니 몸 간슈를 아니 ᄒᆞ신가 시브외
15 憔悴　ᄂᆞᆺ치 쵸췌ᄒᆞ시니 몰나보왓ᄉᆞᆸ닉　(六十八オ)
16 焦　ᄆᆞᅀᆞᆷ을 ᄆᆞᄅᆞ게 ᄒᆞ여 ᄉᆡᆼ각ᄒᆞ옵소
17 老　ᄂᆞᆰ으니를 ᄃᆡ졉ᄒᆞ여야 올흐니라
18 少　졈으니ᄂᆞᆫ ᄇᆞᄃᆡ ᄉᆞ랑ᄒᆞ옵소
19 稚子　어린 거슨 아모 혬도 업ᄉᆞ외
20 小童　이 쇼동은 侍従을 잘ᄒᆞ니 긔특ᄒᆞ외　(六十八ウ)
21 嬰兒　아ᄒᆡ들이 쇼가ᄎᆞ 걸래기를 심히 ᄒᆞ옵닉
22 童　이 아ᄒᆡ가 이만치 잘 ᄉᆡᆼ겨시니 쟝닉 됴흔 일을 볼가 시브외
23 孩　이 아ᄒᆡ가 ᄇᆞᆯ셔 냐가 웃ᄉᆞᆸ닉
24 影　그림재ᄂᆞᆫ 사ᄅᆞᆷ을 ᄯᆞᄅᆞ옵닉
25 浄　ᄆᆞᆰ으니 조흘ᄒᆞ외　(六十九オ)
26 美　아ᄅᆞᆷ답기 금업스니 말이 나지 아니ᄒᆞ옵닉
27 好　너모 죠흐니 그만 ᄒᆞ여 드어라
28 陋　더러오니 쉬이 아사라
29 醜　추ᄒᆞ니 보기 괴롭ᄉᆞ외
30 垢　ᄠᅴ를 믈 기러 시서라　(六十九ウ)
31 厭黒　그 샤마괴ᄂᆞᆫ ᄀᆞ장 크니 귀ᄒᆞ외

⑮羽族

1 鳳　금봉자를 마리예 ᄭᅩ자라
2 凰　봉황은 신쟉이니 보고 지고　(七十オ)
3 鸞　난죠ᄂᆞᆫ 엇더ᄒᆞ온고
4 翡翠　빗취ᄂᆞᆫ 빗치 곱ᄉᆞ외
5 鶴　학 ᄐᆞᆫ 신션도 잇ᄉᆞᆸ닉
6 鵬　대봉은 ᄒᆞᄅᆞ 일 만 니를 간단 말이 잇ᄉᆞᆸ닉
7 孔雀　공쟉의 ᄭᅩ리ᄂᆞᆫ ᄭᅩ리 긋ᄐᆡ 돈이 곱ᄉᆞᆸ기로 갓의 ᄭᅩᆺᄉᆞᆸ닉　(七十ウ)
8 鴛鴦　원앙 ᄒᆞᆫ 쌍이 녹슈의 노ᄂᆞᆫ 양 보옵소
9 鶯　괴ᄭᅩ리가 버들 우히 노니 조각々々 금이올쇠
10 鸚鵡　잉무ᄂᆞᆫ 사ᄅᆞᆷ 입내를 ᄒᆞᆫ다 ᄒᆞ옵닉
11 鴈　댱가 갈 제 기ᄅᆞ기ᄂᆞᆫ 업지 못ᄒᆞᆯ 법이올쇠

12 鷹　이 매는 길 잘 드렷습닉　(七十一オ)
13 鵂鶹　부헝 소릭는 제 일홈을 우옵닉
14 鶻　숑골매는 놀라기 웃듬이오니
15 鷻　새매는 블과 춤새나 잡지 길드려 쓸 ᄃᆡ 업ᄉᆞ외
16 鵰鶚　수리는 아모거시나 ᄎᆞ기롤 잘ᄒᆞ옵닉
17 鸛　한새는 킈도 크고 모질기로 ᄇᆡ얌을 먹고 똥 누면 깃드린 남기 다 즉습닉　(七十一ウ)
18 鵂　비올히는 빗치 거륵키 곱ᄉᆞ외
19 白鷺　빅노야 셩낸 가마괴 힌 빗을 새올세라
20 鷁　두르미는 엇지 보면 학 ᄀᆞᆺ고 둘밤의 우는 소릭 쳥아ᄒᆞ외
21 鵝　게우는 집의 노하 두면 도적을 술피옵닉
22 鴨　뫼올히는 멀리 놀고 집의셔 치면 둔ᄒᆞ여 뵈옵닉　(七十二オ)
23 鳶　쇼록이는 헌 누더기 닙엇다
24 鷗　ᄀᆞᆯ며기는 고기롤 잘 잡어 먹습닉
25 鳩　비둘기는 암수 ᄒᆡ롱을 ᄌᆞ로 ᄒᆞ옵ᄂᆞ니
26 鷄　돍은 ᄇᆡ 아는 새니 村 다히는 다 기로 두옵닉
27 鴙　아모 일의나 ᄭᅬ 쓰는 사ᄅᆞᆷ을 京幾 가토리라 ᄒᆞ옵닉　(七十二ウ)
28 鵜鶘　사ᄃᆞ새 기ᄅᆞᆷ은 됴흔 약이라 ᄒᆞ옵닉
29 鸕　ᄀᆞᆯ가마괴는 고기 잡는 지조가 용ᄒᆞ외
30 鳥　새 업슨 셤의 ᄇᆞᆰ쥐로쇠
31 雀　춤새가 지져괴니 날이 느젓는가 시브외
32 烏　가마괴는 열두 가지 소릭 ᄒᆞ옵닉　(七十三オ)
33 燕　져비는 삼월 삼일의 나와 구월 구일의 도라가옵닉
34 鷦鷯　별*볍새가 한새 거ᄅᆞᆷ 쏠오기 ᄀᆞᆺ다
35 鸊胡　샤호란 새는 南京(남경) 다*짜히〈가〉 만다 ᄒᆞ옵닉
36 胡燕　명마가 집 지은 것 보니 사ᄅᆞᆷ도 담을 그리 ᄊᆞ면 고올 듯ᄒᆞ외
37 鷁　ᄇᆞᄅᆞᆷ가비 공중의 ᄯᅥ셔 놀게 친다　(七十三ウ)
38 杜鵑　졉동새가 슬피 우니 사ᄅᆞᆷ ᄆᆞᄋᆞᆷ을 놀랜다
39 鶉　뫼ᄎᆞ라기 츄쥬*슈 ᄯᅢ는 들의 ᄂᆞ려 오옵닉
40 鴝　뎌고리란 새는 석은 나모가지를 두々리옵ᄂᆞ니
41 鶺鴒　할미새는 시내ᄀᆞ의 나셔 ᄭᅩ리 치고 덤벙겨*여 ᄃᆞ니옵닉
42 鵠　고새는 잇단 말만 드릇습닉　(七十四オ)
43 卵　알 ᄭᅵ오다
44 雛　병아리 ᄆᆞ틱게 ᄎᆞ랏다
45 觜　부리로 좃기를 잘ᄒᆞ옵닉
46 啄　촐하로 돍의 입의 될지연졍 쇠 밋지 되지 말라

47 羽　매는 뉴월쓰음 짓 ᄀᆞᆫ다 ᄒᆞ옵닉　(七十四ウ)
48 翼　놀개 짓츠로 슷쳐 노하라
49 距　돍기 싸홀 제 통을 내여다가 반비롤 잘ᄒᆞ고니
50 巢　깃드린 져 새가 아마도 삿기 치려 ᄒᆞᄂᆞᆫ가 시브외
51 栖　져 솔가지의 깃드렷다
52 剽掠　매가 ᄭᅵᆼ을 ᄎᆞ니 ᄂᆞ려졋숩닉　(七十五オ)
53 鳴　새가 울어 제 벗을 모히고니
54 鳥死　새가 죽엇숩닉
55 鳥餌　새 밥 먹겨라
56 雀噪　춤새가 대수플의셔 지져괴니 히거 졋ᄂᆞᆫ가 시브외
57 土浴　돍이 보곰자리 치니 믄치가 니러난다　(七十五ウ)
58 飛去　ᄂᆞ라가ᄂᆞᆫ 져 새가 산의 막기여 간ᄃᆡ업ᄉᆞ외
59 鵲　앗춤의 갓치 우니 길ᄒᆞᆫ 일이 이실 듯ᄒᆞ외
　增
60 真鶴　춤두리
61 玄鶴　감셩이
62 白鶴　빅두리
63 鴈　겨올　(七十六オ)

交隣須知　巻三

①墓寺

1 社　샤ᄂᆞᆫ 하ᄂᆞᆯ케 졔ᄒᆞᄂᆞᆫ 곳이라
2 塔　탑은 졀의야 잇ᄂᆞ니
3 壇　단은 귀신을 졔ᄒᆞᄂᆞᆫ ᄃᆡ오니
4 陵　능은 홍술문이 이셔 먼ᄃᆡ셔 뵈옵닉　(一オ)
5 夜叉　야채ᄂᆞᆫ 돗갑이라 ᄒᆞ고 이졔라도 변이 잇ᄂᆞ니
6 齋　지계ᄒᆞᆫ 후에 졔ᄉᆞ 참예ᄒᆞ게 ᄒᆞ엿숩닉
7 菴子　암ᄌᆞᄂᆞᆫ 젹어도 죵용ᄒᆞ오니
8 寺　졀 구경 하옵새
9 鬼　귀신은 녕험ᄒᆞ여 졍셩곳 ᄒᆞ면 흠향ᄒᆞᄂᆞ니　(一ウ)
10 臺　ᄃᆡ예 올라 먼ᄃᆡ 경을 보옵새
11 碑　비롤 셰워시니 그 월*원의 덕턱이 갸록ᄒᆞ외
12 沐浴　모욕 감고 새 옷 닙고 하ᄂᆞ님을 빌고져 ᄒᆞ옵닉
13 亭　뎡ᄌᆞ의 올나 피셔 ᄒᆞ옵새

14 厠　뒷간의 츨목ᄒᆞ여 노하라　(二オ)
15 祈　빌기를 지셩으로 ᄒᆞ면 음덕을 닙숩ᄂᆞ니
16 籬　울이 허슬ᄒᆞ니 남글 어더다가 ᄃᆞᆫ々히 막어라
17 簾　발틈으로 보옵소
18 魂魄　혼빅이 이실ᄉᆡ 쑴의 와 뵈지
19 瓦　기와가 깨여져시니 집 우희 올나 곳쳐라　(二ウ)
20 架　시령을 ᄌᆞ자 녁셔를 가져오ᄂᆞ라
21 墓　분묘를 ᄃᆞᆫ々히 무어야 오래되 써디々 아니ᄒᆞᄂᆞ니
22 堎　구들 겻ᄐᆡ 픈나모 아사라 힝혀 블 나리라
23 埋　무든 후에 경히 움ᄌᆞ기지 못ᄒᆞ옵ᄂᆞ니
24 墻　담이 문허졋숩닉　(三オ)
25 椸　회대에 옷슬 거러라
26 懸　현판의 쓴 글시 뉘 글시온고
27 挂鍵　걸쇠 ᄃᆞᆫ々히 걸고 줌가라
28 鍵樞　지도리 실ᄒᆞ여 문이 쩌러지々 아니ᄒᆞ외
29 陪木　ᄇᆡ목을 박어 줌기지 아니ᄒᆞ외　(三ウ)
30 西瑟　셔슬을 쉬이 얽어라
31 壁骨　외 얽어라 흙질 ᄒᆞ쟈
32 横木　빗댱을 ᄃᆞᆫ々히 질러라 힝혀 도적 들리라
33 中衿　듕깃슬 드린 후에 외를 얽어라
34 栈　쟝나모 어더다가 앏픠 챠면 ᄀᆞ리와라　又ᄌᆡ목　(四オ)
35 修葺　녜기를 잘못 녜여시니 비가 ᄉᆡ옵닉
36 祭　졔 지내려 ᄒᆞ고 집안이 분주ᄒᆞ외
37 棺　관이 됴흐면 일 석지 아니ᄒᆞᄂᆞ니라
38 喪　상ᄉᆞ 난 집의셔 우름소릐 들니옵닉
39 槨　곽의 관을 녀허 무드매 외관이라 ᄒᆞ옵ᄒᆞ니　(四ウ)
40 吊　됴상은 아ᄂᆞᆫ 사ᄅᆞᆷ을 위로ᄒᆞ여 뭇ᄂᆞᆫ 녜로쇠
41 神主　신쥬가 듕ᄒᆞ니 신쥬 업스면 ᄌᆞ손이 졔ᄉᆞ를 어ᄃᆡ다가 ᄒᆞ올고
42 忌日　긔일은 조샹과 부모 도라가신 날이기의 부ᄃᆡ 소ᄒᆞ게 ᄒᆞ엿숩닉
43 服　복을 만나면 식옷슬 못 닙숩ᄂᆞ니
44 永葬　영장은 풍슈를 보고 ᄒᆞ옵닉　(五オ)
45 尸躰　시체를 잘 ᄆᆡ장ᄒᆞ게 ᄒᆞ소
　増補
46 珠簾　쥬렴을 들고 보옵소
47 女瓦　녀와가 열ᄉᆞ외
48 夫瓦　부와를 고로게 노하라　(五ウ)

49 吊喪　됴상ᄒᆞ라 가옵닉
50 小祥　쇼샹은 쥬년을 니른 말이라
51 大祥　대샹은 삼년 졔ᄉᆞ ㅣ라
52 脱喪　탈상 ᄒᆞ연지 ᄒᆞᆫ 둘이나 되엿숩닉　(六オ)

②金寶

1 金　금이 졔일 무겁ᄉᆞ외
2 銀　은이 이시면 귀신이라도 부리옵닉
3 珠　구슬이 여러가지올쇠
4 玉　옥은 관ᄌᆞ(環子)의 만히 쓰ᄂᆞ니　(六ウ)
5 真珠　진쥬는 크고 둥그러온 거시 됴ᄉᆞ오니
6 寶　보ᄇᆡ도 만흐면 놈이 뮈여ᄒᆞ옵ᄂᆞ니
7 琥珀　호박 ᄇᆡ 잇숩는가
8 玳瑁　ᄃᆡ모 ᄒᆞᆫ 근만 어더 주옵소
9 水晶　슈뎡 갓긴이 잇숩는가　(七オ)
10 珊瑚　산호 채 들고 물 ᄐᆞ고 오는 사ᄅᆞᆷ은 뉘온고
11 瑪瑙　마노 갓근도 보기 됴ᄉᆞ외
12 泥金　니금을 구ᄒᆞ여 무엇 ᄒᆞ는고
13 琉璃　뉴리병은 속의 든 분수를 아옵닉
14 瑞琥　만호 서너 냥 잇더니 다 가져 가옵소　(七ウ)
15 螺鈿　나뎐 담아대가 근릭는 블용(不用)이 되엿는가 시브외
16 鐵　시오쇠는 슈영의 구ᄒᆞ여야 엇ᄌᆞ오리
17 銅　구리는 어닉 ᄲᅡᆼ의셔 그리 만히 나는가
18 鍮　놋쇠가 요ᄉᆞ이 ᄭᅳᆫ허졋숩닉
19 錫　쥬셕으로 셜합(舌盒)을 ᄒᆞᄂᆞ니　(八オ)
20 鑞　납으로 항아리 ᄆᆞᆫ드러 쓰옵ᄂᆞ니
21 含錫　함셕은 저만 못 쓰옵닉
22 硼砂　붕사가 이셔야 쇠를 니엇숩거든
23 水銀　슈은은 거울 닥는 사ᄅᆞᆷ의 달나 ᄒᆞ옵소
24 玄石　현셕으로 ᄀᆞᆯ을 ᄒᆞ고 간지를 다드면 반々ᄒᆞ여 됴ᄉᆞ오니　(八ウ)
25 象牙　샹아 칼ᄌᆞ로는 아모거시나 퇴여 닷치면 부러지기 쉽ᄉᆞ오니
26 鍊　년ᄒᆞ미*기롤 여러번 ᄒᆞ면 쇠픔이 극진ᄒᆞ외
27 鑄　지워 ᄆᆞᆫ든 그르시 아마 쉬이 아니 ᄯᅳ려지옵닉
28 財産　지산은 철*천량을 니른 말이라
29 風爐　풀무가 샹ᄒᆞ엿기의 ᄒᆞᆫ 잇들 뎡역ᄒᆞ게 ᄒᆞ엿숩닉　風炉 풍노　(九オ)
増補

30 寶貝　보픿는 이뿐이올쇠
31 白銅　빅동은 은빗 ᄀᆞᆺ외
32 烏銅　오동은 검도록 죠회
33 無孔珠　무공쥬는 더옥 ᄀᆞᆺ튼 거시 세 낫 이셔야 쓰ᄂᆞ니　(九ウ)

③鋪陳

1 衾　니블 덥고 자옵새
2 枕　벼개 벼고 자옵소
3 褥　요흘 듯거이 ᄒᆞ여 ᄉᆞᆯ고 자면 닝치 아니ᄒᆞ외
4 繩床　승상 놋코 안ᄌᆞ면 평안ᄒᆞ오니　(十オ)
5 椅　교의를 노하라 안쟈
6 席　돗글 ᄉᆞᆯ고 자면 녀름은 ᄉᆡ훤ᄒᆞ오니
7 方席　방셕 내여 손님 ᄃᆡ졉 ᄒᆞ오니
8 氈　담을 ᄉᆞᆯ면 벼록이 잘 ᄊᆡ지 못ᄒᆞᆫ다 ᄒᆞ옵ᄂᆞ니
9 單　삿자리를 마루의 ᄀᆞ라 안즈면 볼기가 알프니라　(十ウ)
10 屛　병풍을 치면 ᄇᆞ롬이 드지 아니ᄒᆞ옵ᄂᆡ
11 簇子　족ᄌᆞ를 걸고 구림을 구경ᄒᆞ새
12 帳　댱을 치면 ᄀᆞ리워 안이 뵈지 아니ᄒᆞ외
13 地衣　디의를 폐고 모다 안자 잔치 ᄒᆞ옵새
14 日傘　일산은 외방 벼슬 ᄒᆞᄂᆞᆫ 냥반이 셰오고 ᄃᆞ니옵ᄂᆡ　(十一オ)
15 鋪　보딘은 자리 ᄇᆡ셜ᄒᆞ단 말이라
16 遮日　챠일 치면 볏치 드지 아니ᄒᆞ니라
17 凉傘　냥산은 나라 앏픠 셰워ᄂᆞ리나
18 帳幕　댱막은 한ᄃᆡ 티고 자ᄂᆞᆫ 거시라
19 雨傘　우산은 비 올 제 밧고 ᄃᆞ니ᄂᆞ니　(十一ウ)

增補

20 登毎　등ᄆᆡ　덕셕

④布帛

1 綾　능은 화문을 못 쓰고 벽도문을 쓰옵ᄂᆞ니　(十二オ)
2 紗　사가 설픠니 무어ᄉᆡ 쓰리
3 帛　비단픔이 녜만지 못ᄒᆞ옵ᄂᆞ니
4 羅　깁창을 보니 츈홍을 이긔지 못ᄒᆞ올쇠
5 布　뵈승새가 굴그니 못 사게 ᄒᆞ엿습ᄂᆡ
6 繡　슈 노흔 슈픔이 이 긔졀ᄒᆞ외　(十二ウ)
7 木綿　무명 ᄒᆞᆫ 필 몃 자히온고

8 綜綿　섯나히롤 어더 쓰려 ᄒᆞ니 구ᄒᆞ여 주옵소
9 綿紬　명쥬가 귀ᄒᆞ니 올희*히 양즘을 잘 못ᄒᆞ엿ᄂᆞᆫ가 시브외
10 繅　플소옴으로 옷슬 지어 닙으면 다른 옷이에셔 ᄆᆡ오 덥ᄉᆞ외
11 苧布　모시ᄂᆞᆫ 플이 쉬이 죽오니 긱니의 와 플ᄒᆞ여 줄 사ᄅᆞᆷ도 업고 민망ᄒᆞ외　(十三オ)
12 繭　실ᄭᅮ리를 만히 지ᄋᆞᆫ 후에 ᄊᆞᆫ기를 시작ᄒᆞ여라
13 綿　소옴이 요ᄉᆞ이ᄂᆞᆫ 졀죵ᄒᆞ여 귀 막을 소옴도 업ᄉᆞ외
14 絲　실이 업스니 옷 지어 닙기 어렵다
15 方　방쥬ᄂᆞᆫ 문 업슨 비단이라
16 綾只紬　능기쥬롤 근릭ᄂᆞᆫ 보지 못ᄒᆞ올쇠　(十三ウ)
17 花紬　화쥬ᄂᆞᆫ 문 잇ᄂᆞᆫ 거시라
18 閃緞　션단은 슈 노흔 듯ᄒᆞᆫ 비단이라
19 廣織　광직은 밧탕은 모단 ᄀᆞᆺᄐᆞ되 빗츤 온갓 빗치 잇ᄉᆞᆸᄂᆡ
20 走紗　주사ᄂᆞᆫ 졸막々々ᄒᆞᆫ 비단이라
21 襦子　허ᄌᆞ라도 하고 무ᄌᆞ라도 ᄒᆞ고 양능보라도 ᄒᆞ옵ᄂᆡ　(十四オ)
22 走紬　주쥬도 잇고 큰 주사도 잇거니
23 杭羅　항나가 즉금의 업거든 급피 셔울 긔별ᄒᆞ여 어더 주옵소
24 大緞　대단은 갑시 언마나 ᄒᆞ옵ᄂᆞᆫ지 듕당은 못 쓰게 ᄒᆞ엿ᄉᆞᆸᄂᆡ
25 通絹　통견은 젼의ᄂᆞᆫ 만히 나더니 요ᄉᆞ이ᄂᆞᆫ 나지 아니ᄒᆞ외
26 甫氈　보젼은 내게ᄂᆞᆫ 업ᄉᆞ오나 흑 샹고들외게 잇ᄂᆞᆫ가 무러 보옵새　(十四ウ)
27 輕光紬　경광쥬롤 회례의 다 썻ᄉᆞᆸᄂᆡ
28 改只紬　긔기쥬가 블과 서너 필 남엇ᄉᆞᆸᄂᆡ
29 禾花紬　수화쥬ᄂᆞᆫ 다여 자식 쟈로외
30 多紅緞　다홍대단이 몃 자나 잇ᄉᆞᆸᄂᆞᆫ가
31 冒緞　모단은 거믄 광직 ᄀᆞᆺᄉᆞ외　(十五オ)
32 錦　비단이라도 촉으로셔 나오ᄂᆞᆫ 비단이야 뎡비단이오니
33 桃紅緞　도홍대단은 엇기 쉽지 아니ᄒᆞ외
34 鴉青　아쳥은 수올히 목빗치오니
35 草緑　초록 관ᄃᆡᄂᆞᆫ 당하관이 닙ᄉᆞᆸᄂᆡ
36 軟草緑　연초록 쟝옷 닙은 년이 ᄐᆡ를 ᄒᆞ옵ᄂᆡ　(十五ウ)
37 沈香色　침향식 ᄭᅴ ᄭᅴᄂᆞᆫ 거슨 세계빗(書契色)지오니
38 松花色　숑화식 뎌고리 니부 니ᄂᆞᆫ 뉘온고
39 茶色　다식 믈 드리고 옷 ᄒᆞ여 닙쟈
40 灰色　회식은 ᄌᆡ빗치오니
41 柳緑　뉴록 믈 드려 주옵소 다른 믈은 ᄃᆞᆺ치 아니ᄒᆞ외　(十六オ)

42 甫羅色　보라식은 사름마다 죠히 너기옵닉
43 豆緑　두록 믈 드리기 폐롭ᄉᆞ외
44 蓮頭色　년두식도 ᄀᆞ장 죠흔 식이오니
45 青天　쳥쳔 믈을 잘 드린 거슨 고온 거시옵도쇠
46 藍色　남식 사쳘닙 ᄉᆞ어 안즈시 니가 부산쳠ᄉᆞ(釜山僉使)ㅣ오니 (十六ウ)
47 真紅　진홍 대단 치마 ᄆᆡ고 초록 뎌고리 닙고 ᄇᆡᆨ능 바지 ᄆᆡ고 가는 겨집 아히 어엿브외
48 荷葉色　한엽식은 초록 ᄀᆞᆺᄉᆞ외
49 石水色　돌믈빗은 대ᄉᆞ롭지 아니ᄒᆞ외
50 玄色　현식이라 ᄒᆞ는 거슨 가마ᄒᆞᆫ 빗치오니
51 機　틀외 안즈는 양이 ᄀᆞ장 지어미답ᄉᆞ외 (十七オ)
52 梭　북 더지는 양을 보니 ᄀᆞ장 잘 ᄊᆞ는 슈픔이옵도쇠
53 織　ᄊᆞ는 거시 비단이온가 무명이온가
54 經　놀을 ᄇᆡᆨᄉᆞ로 ᄒᆞ고 씨를 무명으로 ᄒᆞ면 선나히라 ᄒᆞ옵닉
55 緯　씨를 부ᄃᆡ ᄇᆡᆨᄉᆞ히 ᄊᆞ야 비단이나 무면이나 질긔오니
増補 (十七ウ)
56 三升　삼승은 죵회로 ᄊᆞ는 거신가 시브외
57 紬縷　셔누는 군복외*의 닙숩닉
58 木花　목화가 냥의 몃 근 ᄒᆞ는가
59 去核　거희를 쓰랑는가
60 壯緞　장단은 진홍이 졔일이라 (十八オ)
61 賞賜緞　샹ᄉᆞ단은 븍경의 가던 ᄉᆞ신의 주신 거시라

⑤綵色

1 青　프른 하ᄂᆞᆯ을 보니 ᄀᆞ올이 깁픈 줄을 아올쇠
2 黄　누른 깁은 아모가이게는 업다 ᄒᆞ옵데 (十八ウ)
3 赤　블근 노올이 ᄶᅥ시니 비 올가 시브외
4 白　흰 거슬 브ᄃᆡ 믈 드리니 앗갑ᄉᆞ외
5 黒　거믄 구름이 븍다히로 모혀시니 우장을 가져 가옵소
6 緑　프른 뎌고리 닙은 거슨 아히 녀기로쇠
7 染　믈 드리는 슈공은 언마나 ᄒᆞ온고 (十九オ)
8 彩色　치식을 잘 몌워숩닉
9 塗漆　칠ᄒᆞ여 듯다가 주옵소
10 漆　칠이 ᄐᆞᆺ치 아니ᄒᆞ니 부ᄃᆡ 뎡칠로 ᄒᆞ여 주옵소
11 朱紅　쥬홍이 ᄌᆞᆺ치 아니ᄒᆞ니 칠이 짓쳑々々ᄒᆞ외
12 銅緑　동녹 ᄶᅥ시니 ᄆᆡ이 닥거라 (十九ウ)

13 粉　분 셩덕ᄒᆞ고 고온 톄ᄒᆞ다
14 三緑　삼녹은 흔ᄒᆞᆫ 치식이오니
15 三青　삼쳥을 너모 덕게 드렷기의 빗치 업ᄉᆞ외
16 二青　이쳥 든 그림이야 빗치 나옵ᄂᆞ니
17 回々青　회々쳥은 화긔 그림 그리ᄂᆞᆫ ᄃᆡ 쓴다 ᄒᆞ옵니　(二十オ)
18 洒金　쇄금으로 칠을 극진히 ᄒᆞ여 주옵소
19 黄丹　황단은 화당 그림의 쓰ᄂᆞ니라
20 石雄黄　셕우황은 ᄇᆡ얌 믈린 ᄃᆡ ᄇᆞᄅᆞ면 좃ᄉᆞ오니
21 桃黄　도황칠은 져기 담ᄒᆞ외
22　　곰탕 서시니 닥거셔 쓰라　(二十ウ)
23 銼垢　봄의 ᄭᅵ여시니 ᄀᆞ라 다고
24 膠　부릐 노겨 ᄯᅳ려진 궤들 붓쳐라
25 阿膠　아교 노겨셔 치식을 잘 석습소
26 石雌黄　셕ᄌᆞ황은 빗치 담ᄒᆞ다
27 蒔繪　시회ᄂᆞᆫ 금으로 그림 그린 듯ᄒᆞ외　(二十一オ)
28 黄　누른 칠이 고오니라
　増補
29 白　희엿 거시로쇠
30 玄　가마ᄒᆞ다
31 黄　노룬 빗 죠회　(二十一ウ)
32 赤　불것습니

⑥衣冠

1 紗帽　사모ᄂᆞᆫ 벼슬 ᄒᆞᆫ 냥반이 쓰ᄂᆞ니라
2 帽子　감토ᄅᆞᆯ 버스니 머리 슬히외　(二十二オ)
3 笠　갓 쓴 후에 ᄯᅴ 아니 ᄯᅴ니 보기 슬ᄉᆞ외
4 袍　도포 내여라 셔관의 ᄃᆞᆫ녀 오쟈
5 女袴　즁의ᄅᆞᆯ 벗길 제 잠간 거스ᄂᆞᆫ 체나 ᄒᆞ여야 엇엿브지
6 襖　바히 홧옷시 업ᄉᆞ오니 어이 올라 갈지 넘녀롭ᄉᆞ외
7 衫　뎍삼 쓸래 ᄒᆞ게 내여 주어라　(二十二ウ)
8 襞　주름을 잘 잡어습니
9 領　옷깃슬 잘 념의여라
10 袖　ᄉᆞ매길로 툭 치면 붓그러워 ᄒᆞᄂᆞᆫ 양이 엇엿브외
11 衣襟　골홈을 ᄃᆞᆫ々히 ᄆᆡ여라
12 被　닙은 거시 열워 뵈니 칩지 아니ᄒᆞ온가　(二十三オ)
13 胄　갑투구 쓰고 셧ᄂᆞᆫ 양이 진짓 쟝슈답ᄉᆞ외

14 祖　매고 업ᄃᆡ여 우니 쳔상을 만난ᄂᆞᆫ가 시브외
15 紐　단츄 ᄆᆡ자 등지게예 ᄃᆞ라 닙ᄉᆞᆸ소
16 纓　갓긴을 아니 ᄆᆡ고 가다가 ᄇᆞ람의 버서지오리
17 縫　혼 거시 터져시니 다시 호고 ᄡᆞᆯ을 녀흐라　(二十三ウ)
18 脱　버서 거러 두되 믄ᄌᆡ ᄭᅵ이매 샹ᄒᆞ옵ᄂᆡ
19 襁褓　깃슬 ᄲᅴ라 ᄆᆞᆯᄅᆡ여라
20 着　챠 ᄌᆞᄂᆞᆫ 닙다도 ᄒᆞ고 쓰다도 ᄒᆞ고 붓다도 ᄒᆞ옵ᄂᆞ니
21 蓑衣　누역 닙고 논들헝이나 처라
22 襪　보션이 열오니 발이 슬히외　(二十四オ)
23 油衫　유삼 하여져시니 비 ᄉᆡ여 못 닙게엿다
24 袈裟　가사 메고 숑낙 쓰고 념블 ᄒᆞᄂᆞᆫ 양이 진짓 셔가ᄅᆡ올쇠
25 雨装　우장 ᄎᆞ려 가져 가쟈 오ᄂᆞᆯ은 비 올 ᄃᆞᆺᄒᆞ다
26 靴　목훠ᄂᆞᆫ 일본의ᄂᆞᆫ 업ᄉᆞᆸᄂᆞᆫ가
27 幅　너ᄇᆡ 좁ᄉᆞ와도 뎡비단이오니　(二十四ウ)
28 鞋　신챵이 석어시니 갑 주고 턍을 ᄀᆞᆯ려 오ᄂᆞ라
29 草鞋　매토리ᄅᆞᆯ 신ᄂᆞ니 발이 가븨여 죳ᄉᆞ외
30 木履　나모신이 업스니 ᄒᆞᆫ 켤레 사 오ᄂᆞ라
31 屐　격지를 신고 어룬 앏픠 셰지 마라
32 裁　ᄆᆞᆯ나 주어도 잘못 지어 닙으니 닐러 부졀업다　(二十五オ)
33 表衣　우옷 닙고 밋처 가오리
34 求衣　갓옷슨 날이 더오니 보외*의 싸 두어라
35 衣　옷슬 덥게 닙어 왓더니 ᄯᅩᆷ이 나옵ᄂᆡ
36 單衣　호옷 닙으니 ᄉᆡ훤ᄒᆞ외
37 帖裏　쳘닙을 닙고 관가의 드러 갓ᄉᆞᆸᄂᆡ　(二十五ウ)
38 袴　바지 크게 지아*어시니 길 가기 거복ᄒᆞ다
39 衲　납의ᄂᆞᆫ 듕의 옷시오니
40 蓑笠　삿갓 쓰고 호ᄆᆡ 메고 가ᄂᆞᆫ 양이 한거ᄒᆞ외
41 冠　관을 어이 져리 빗고로 쓰옵ᄂᆞᆫ고 바로게옵소
増補　(二十六オ)
42 赤古里　젹고리　도슈
43 介里麻　개리마ᄂᆞᆫ 기ᄉᆡᆼ들이 스ᄂᆞ니
44 戰笠　쳘닙은 역ᄀᆞ놈이 거의 다 닙ᄂᆞ니
45 笠冐　갓모ᄂᆞᆫ 비 개면 블용이로쇠
46 葛骨笠　갓골과 숑낙은 듕들이 쓰ᄂᆞᆫ 거시라　(二十六ウ)

⑦女飾

1 珥　귀엿골이라 ᄒᆞ는 거슨 겨집 사ᄅᆞᆷ의 귀예 ᄃᆞᄂᆞ니라
2 指環　가락지는 손가락의 ᄭᅵ는 거시라
3 粧　단장을 ᄒᆞ고 눈섭을 버들닙쳐로 ᄒᆞ엿ᄉᆞᆸᄂᆡ
4 飾　ᄭᅮ며 아모리 니른들 내 네 앒픠 속으랴　(二十七オ)
5　　촌 주머니의 무어시 드런ᄂᆞᆫ고
6 鬢　머리 조진 아히ᄅᆞᆯ 보면 더옥 어엿펴 뵈고니
7 髻　ᄃᆞᆯᄂᆡ 열 단 어더 주오
8 髻　샹토ᄅᆞᆯ 잣송이 ᄀᆞᆺ치 잘 짜 주옵소
9 了髻　사양머리 ᄲᅳᆫ 동ᄌᆞᄃᆞ려 무ᄅᆞ니 시방 주므신다 ᄒᆞ옵ᄂᆡ　(二十七ウ)
10 真梳　춤빗이 설픠니 ᄯᅥ 아니 나ᄂᆡ
11 梳角　빗츠게로 졍이 처ᄃᆞ고
12 梳頭　머리 빗쟈 호되 빗들이 됴치 아니ᄒᆞ니 어이 ᄒᆞ올고
13 梳貼　빗뎝을 졍이 싸셔 고비의 ᄭᅩ자라
14 盥　ᄂᆞᆺ 시슨 후의 진지 올려라　(二十八オ)
15 蠟油　밀기ᄅᆞᆷ 뭇쳐 호소ᄒᆞ거든
16 漱　양지를 대ᄐᆡ마루 그석의 ᄭᅩ자시니 빠혀 오ᄂᆞ라
17 塗　ᄇᆞᆯ은 거슬 잘못 ᄇᆞᆯ나시니 칠이 곱지 아니ᄒᆞ외
18 糝　비노 업시 셰슈ᄅᆞᆯ ᄒᆞ니 ᄂᆞᆺ치 ᄭᅳᆫᄭᅳᆫᄒᆞ외
19 漱之　양지딜 ᄒᆞ게 믈 ᄯᅥ 오ᄂᆞ라　(二十八ウ)
20 剃頭　머리 ᄲᅡ고 듕의 되려 ᄒᆞ옵ᄂᆡ
21 簪　빈혀라 ᄒᆞᄂᆞᆫ 거슨 겨집 사ᄅᆞᆷ이 머리예 ᄭᅩᆺ는 거시라
22 葫蘆　됴롱은 세 식 ᄆᆡ여 ᄎᆞ거니
23 鏡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만히 수텩ᄒᆞ엿거든
24 釧　플*풀쇠는 당인들이 호되 당인 듕의도 가야면 놈이 ᄒᆞ옵ᄂᆞ니
(二十九オ)
25 巾　슈건을 ᄲᅡᆼ희 구을지 말고 ᄆᆞᆯ독외 걸어라
26 臙指　연(エン)지ᄀᆞᆞ ᄇᆞᄅᆞᆫ 양을 보니 가년ᄒᆞᆫ가 시브외
　増補
27 鏡臺　경ᄃᆡᄀᆞᆞᄂᆞᆫ 녀ᄌᆞ의 ᄂᆞᆯ개오니
28 小花器　쇼화긔는 겨집 사ᄅᆞᆷ 쓰ᄂᆞᆫ 거시라　(二十九ウ)

⑧盛器

1 器　그릇슨 만도록 쓰기 죠흐니라
2 楪　졉시는 식은 음식을 담아 상의 노흐니
3 陶　질그릇슬 쓰면 여러 ᄯᅥ려지기 쉬오니 조심ᄒᆞ여 쓰옵소

4 鼎　솟치란 거슨 됴셕의 쓰옵기로 ᄒᆞᆫ째도 업시 못ᄒᆞᆯ 거시오니　(三十オ)
5 香爐　향노의 향 픠여 노하라
6 鐥　대야의 믈 ᄯᅥ 오ᄂᆞ라 ᄂᆞᆺ 싯쟈
7 神仙爐　신션노ᄂᆞᆫ 뫼히 가셔 술 데여 먹기 죠흐니라
8 甑　실릐ᄯᅥᆨ을 잘 ᄲᅧ 내면 먹기 무던ᄒᆞ니라
9 甕　독이 됴흐면 쟝이나 술이나 잘 닉ᄂᆞ니라　(三十ウ)
10 盆　동희예 술 담아 두어라
11 盒　함의 담은 음식이 마시 엇더ᄒᆞ더냐
12 瓶　병의 든 술은 나믄 다쇼ᄅᆞᆯ 아지ᄆᆞ 못ᄒᆞ니
13 花瓶　화병ᄆᆞ의 믈 붓고 ᄭᅩᆺ가지를 것거 ᄭᅩᆺ즈면 픠옵ᄂᆞ니
14 鍾　죵은 깁퍼 술 마시기 거복ᄒᆞ외　(三十一オ)
15 鈸　바라ᄂᆞᆫ 크면 소릐가 ᄆᆡ오 나옵닉
16 鍾子　죵즈ᄂᆞᆫ 아모ᄃᆡ라도 상 가온ᄃᆡ 노히면 됴ᄉᆞ오니
17 丸盤　두리반의 발을 세흘 ᄃᆞᆯ면 ᄒᆞᆫ평*편으로 기우러지기 쉽ᄉᆞ외
18 匙　술로 밥 먹기ᄂᆞᆫ 죠션만 잇ᄂᆞᆫ가 시브외
19 箸　졔ᄂᆞᆫ 믈 ᄆᆞᆫ 밥 건져 먹기 거복ᄒᆞ외　(三十一ウ)
20 盛　담은 그릇시 금주ᄒᆞ여야 조흐니라
21 苦　기은 그릇슬 무어싀(ス一) 쓰리
22 床　상 ᄎᆞ렷ᄂᆞ냐
23 屈　구브러진 거슨 아조 쓸ᄃᆡ업ᄂᆞ니라
24 罐　탕관ᄆᆞ을 조히 싯고 약을 졍이 달혀라　(三十二オ)
25 爐　화노에 숫블 픠오고 고기 구어 낸 후에 술 데여라
26 沙鉢　사발의 싱슈 ᄯᅥ다가 먹으면 싀훤ᄒᆞ외
27 樽　준의 술이 ᄀᆞᄃᆞᆨᄒᆞ여시니 새도록 먹숩새
28 缸　항에 쇼쥬를 녀허 더온 ᄃᆡ 무더ᄆᆞ 두면 마시 변치 아니ᄒᆞ오니
29 酒煎子　쥬젼즈의 술을 젹々 데여 ᄀᆞᆺ고#곰 ᄎᆞᆫ 술을 쳐 가며 부어라
(三十二ウ)
30 杯　잔은 코야 술 먹기의 싀훤ᄒᆞ오니
31 勺　쟈로 ᄆᆞᆰ국을 ᄯᅥ다가 맛슬 보고 ᄉᆞᆯ혀라
32 四角盤　네모반은 모히 거티텨 일 저즐기 쉬오니
33 錚盤　놋징반ᄆᆞ은 ᄯᅳ려텨도 밋쇠ᄂᆞᆫ 쓰ᄂᆞ니라
増補　(三十三オ)
34 甕器　옹긔 쟝ᄉᆞ질ᄆᆞ ᄒᆞᄂᆞ냐
35 有口沙鉢　입사긔ᄂᆞᆫ 쓰기 죳ᄉᆞ오니
36 有足盤　발 잇ᄂᆞᆫ 반이 낫ᄉᆞ외
37 網踈煮　망소쟈ᄆᆞ로 오셔 건져 내여라

38 貼匙　접시 대듕쇼 각 ᄒᆞᆫ 축 어더 주옵소　(三十三ウ)

⑨織器

1 籠　농은 의복ᄀᆞ 녓ᄂᆞᆫ 거시라
2 皮籠　가족ᄀᆞ으로 싼 농은 질긔오니
3 箱子　샹ᄌᆞ의ᄂᆞᆫ 겨집 사ᄅᆞᆷ이 쓸 거슬 녓ᄂᆞ니라
4 筐　광조리 들고 가셔 과실(菓實) ᄯᅩ 오ᄂᆞ라　(三十四オ)
5 楢　함의 칠을 ᄀᆞᆺ ᄒᆞ여시니 손 다히지 말라
6 櫃　궤 속의 녓고 좀은 거ᄀᆞ슬 뉘 가져 가리
7 馬省　ᄆᆞᆯ솔로 ᄆᆞᆯ을 빗기면 ᄆᆞᆯ이 ᄉᆡ훤ᄒᆞ여 ᄒᆞᄂᆞ니라
8 箒　닛뷔ᄂᆞᆫ 잇거니와 ᄯᅡᆼ ᄉᆞᄂᆞᆫ ᄡᅳ리뷔나 대뷔나 쟝만(掌満)ᄒᆞ여라
9 篩　체예 ᄀᆞᆯ을 여러번ᄀᆞ 츠면 졈々 더 ᄀᆞᄂᆞ니라　(三十四ウ)
10 笊　죠ᄅᆡ로 ᄡᅳᆯ을 건디면 몰ᄅᆡ가 업거니
11 掃　대텽 쓰러라 ᄡᅳ러질ᄀᆞ로 사ᄅᆞᆷ의 ᄆᆞ옴을 안다ᄀᆞ ᄒᆞ더라
12 帒　쟈로의 곡셕 녓고 메고 가면 경편ᄒᆞᆫ지라
13 盖　두에를 덥퍼 두고 김이 나지 아니케 ᄒᆞ소
14 欌　장의셔 칙을 녀허 두면 샹치 아니코 믄ᄌᆡ 아니 오ᄅᆞ옵ᄂᆞ니
(三十五オ)
15 俎　도마에 오ᄅᆞᆫ 고기 칼을 저허ᄒᆞ랴
16 桶　통의 믈 기러라
17 女筐　녀광은 녀편ᄂᆡ가 셰간을 녓ᄂᆞᆫ 궤라
18 囊　주머니의 약을 녀허 ᄎᆞ고 ᄃᆞᆫ니면 급ᄒᆞᆫ 병의 ᄡᅳ기 죳ᄉᆞ오니
19 笥　섥을 가족으로 싸면 속의 든 거시 길을 가도 샹치 아니ᄒᆞᄂᆞ니
(三十五ウ)
20 掛　벼로 녀흔 쾌샹 가져 오라
21 皮掛硯　가족으로 싼 쾌샹 벼로ᄂᆞᆫ 질긔여 오래 쓰옵ᄂᆡ
増補
22 臥看書案　와간셔안의 칙 놋코 보왓더니 ᄒᆞᆫ좀 드럿ᄉᆞᆸ데
23 桶帯　통ᄯᅴ가 샹ᄒᆞ엿기의 ᄯᅴ ᄅᆞᆯ 곳쳐라　(三十六オ)

⑩鐵器

1 斧鉞　부월은 님금 앍픠 셰오ᄂᆞᆫ 거시라
2 斧　도치로야 굴근 남글 버혀 ᄯᅩ리ᄂᆞ니라
3 銲　한으로 나모나 ᄲᅳᆯ이나 슬흐면 쉬이 달하 가ᄂᆞ니
4 鑿　ᄯᅳᆯ은 나모 ᄯᅮᆷ기예 종요로은 거시니라　(三十六ウ)

5 鑽　비븨는 나모 쓯는 거시로다
6 鑽之　비븨질 놀래 ᄒᆞ여 뚤어라
7 銑　광이로 짱을 픠고 나모 심거라
8 串　고지예 고기를 궤여 볏틱 몰릭여라
9 攢　손으로 비빈ᄃᆞ라　(三十七オ)
10 串鉄　ᄀᆞᆺ챵을 먹겨 그 돌을 거러 보와라
11 鋸　톱니를 줄로 셔오라
12 犂　보심 내여 가셔 밧티 가라々
13 斫刀　쟉도를 들기 ᄀᆞ라 여믈 싸흐러 몰 먹겨라
14 錐　송곳ᄉᆞ로 쓯고 노흐로 뭬여 ᄆᆡ여라　(三十七ウ)
15 耒　짜부는 밧 가는 거시매 농부ᄭᅴ 요졀로온 거시니라
16 鈴　방을 소릭가 징々ᄒᆞ여 멀리 들니옵닉
17 鍼　침은 병 든 ᄃᆡ 주ᄂᆞ니
18 鉤　갈구리는 아모거시나 거러 ᄃᆞᆼ긔는 거시니라
19 鑽　ᄌᆞ믈쇠로 줌겻다 ᄒᆞ고 ᄆᆞ옴 놋치 마옵소　(三十八オ)
20 鑰匙　열쇠 가져 가 줌은 궤를 열고 내여라
21 鐃　요령은 손으로 흔들면 알롱々々 ᄒᆞᄂᆞ니라
22 火鐵　부쇠는 블 업는 ᄯᅢ예 치면 ᄀᆞ장 요졀로온 거시올쇠
23 剪子　가ᄋᆡ가 드지 아니ᄒᆞ니 플 죽은 홋거싀 쓰지 못ᄒᆞ옵닉
24 蛭釘　거믈못 박으면 든々ᄒᆞ외　(三十八ウ)
25 鎌　낫 가져 가 나모 뷔여 오ᄂᆞ라
26 鉅　톱이 들면 아모리 큰 남기라도 쉬이 켜이ᄂᆞ니라
27 鍤　삷흐로 짜흘 쌋가 반ᄃᆞᆺᄃᆞ(ド)게 ᄒᆞ여라
28 鐵把　쇼시랑은 더러온 거슬 거러 ᄃᆞ릭는 거시라
29 挾刀　협도의 약 싸흐러 힝효 손 버히리라　(三十九オ)
30 鎚　쇠몽동이로 치면 아모리 질긘 거시라도 ᄇᆞ사지리
31　　쇠가래 가져 가 ᄀᆞᆺ쳔을 크게 처라
32 鎚　쇠맛치 업스니 못 밧기 어렵다
33 鋤　호ᄆᆡ 메고 기음 ᄆᆡ라 가쟈
34 定南針　뎡남침 업스면 슈로의셔 ᄉᆞ방ᄭᅴ을 엇지 아올고　(三十九ウ)
35 鉗　마함은 물게 ᄭᅵ어 졔어(製御)ᄒᆞ고니
36 馬鐵　물다갈이 업스면 물 바리 앓프ᄂᆞ니
37 鑷子　쪽집개는 썰 쌤는 거시라
38 頭釘　두뎡(ゼー)은 머리 잇는 못시라
39 両耳釘　냥이뎡을 아니 박으니 든々치 아니ᄒᆞ외　(四十オ)
増補

40 引刀　인도로 흙 밧ᄂᆞᆫ 슈가 묘ᄒᆞ외
41 烙印　나#낙인을 치라
42 薬刀　약도로 싸흐라
43 食刀　식칼은 부억의 잇ᄂᆞ니라　(四十ウ)

⑪雜器

1 械　긔계를 ᄀᆞᄎᆞᆫ 후의 일을 시작(始作)ᄒᆞ여라
2 砧　방튜질 ᄒᆞ면 반ᄃᆞᆺᄒᆞᄂᆞ니라
3 臼　뎔구의 쏠을 붓고 찌흐라
4 研　연의 ᄀᆞ라 ᄀᆞᆯ을 ᄆᆡᆫᄃᆞᄅᆞ々　(四十一オ)
5 舂　슬기를 ᄆᆡ오 ᄒᆞ니 쏠의 프른 빗치 나옵ᄂᆡ
6 網太　망태를 ᄒᆞᆫ나 크게 ᄆᆡᆫᄃᆞ라 다고
7 炬　홰블을 켜야 어두온 ᄃᆡ 길을 가지
8 瓮　독이라 ᄒᆞ여도 져근 거슬 옹이라 ᄒᆞᄂᆞ니
9 甕　큰 독을 강이라 ᄒᆞ거든　(四十一ウ)
10 碭　방하ᄂᆞᆫ 사ᄅᆞᆷ이 여러히 찌흐매 보리가 쉬이 되ᄂᆞ니　又드들방
11 杖　막대를 딥고 왓더니 허리가 덜 앏프외
12 槽　구요에 여믈 담아 물을 죠히 먹겨라
13 燭　쵸를 붉키고 글을 보니 졍신이 낫ᄉᆞ외
14 滅燈　등블 쓰고 자옵소　(四十二オ)
15 燈　등불이 어둡기예 블 도々라
16 磨石　매돌이 무겁도록 쉬이 ᄀᆞ라 가ᄂᆞ니
17 毛扇　모션은 냥반이 겨올의 길 갈 제 ᄂᆞᆺ츨 ᄀᆞ리워 가옵ᄂᆡ
18 燈花　등홰 죠흐니 일졍 깃븐 일이 잇ᄉᆞ오리
19 明燈　붉은 등잔 아릭 미인을 ᄃᆡᄒᆞ여 안자시면 ᄆᆞᄋᆞᆷ이 엇더ᄒᆞ올고
(四十二ウ)
20 桃燈　등잔 도々고 긴 밤을 새옵새
21 烟竹　담마대예 블 붓텨 다고
22 甌　보ᄋᆡ가 녜믈 즁의 잇ᄂᆞ냐
23 礪　숫돌이 보ᄃᆞᆺ라워야 칼 ᄀᆞᆫ 거시 빗치 나ᄂᆞ니
24 紡車　믈릭예 실을 ᄌᆞ아라 옷 ᄒᆞ여 닙쟈　(四十三オ)
25 壓車　시양으로 목화를 거히ᄒᆞ여 내옵ᄂᆡ
26 搗錬　다ᄃᆞᆺ미질 잘 ᄒᆞ여시니 비단픔이 극진ᄒᆞ외
27 柄　줄놀 ᄃᆞᆫ々히 박엇기의 빠질 념녀 업거니
28 磨　ᄀᆞᆯ기를 놀온이 하여라
29 棍杖　곤쟝 맛고 죽게 되엿다 ᄒᆞ옵데　(四十三ウ)

30 杵　졀구공이 무거워 풀이 견듸지 못ᄒᆞ올쇠
31 酒榨　고조에 녀허 ᄠᅳᆫ 술을 쳥쥬라 ᄒᆞ옵ᄂᆞ니
32 三太　삼태에 여믈을 담아 가지고 물 ᄌᆞ로 주와라
33 扇　붓체질 ᄒᆞ니 ᄉᆡ훤ᄒᆞ외
34 網　그믈 자져 가다가 고기 잡어라　(四十四オ)
35 尾扇　미션은 기름 불라야 ᄇᆞ람이 잘 나고니
36 烟器　담마대가 몌여시니 틀버 ᄃᆞ고
37 笏　홀은 님금 앏픠 드러 가 엿ᄌᆞ올 말ᄉᆞᆷ은 쓴다 ᄒᆞ옵ᄂᆡ
38 竿　대 ᄭᅳᆺ티도 삼 년을 견딘다 ᄒᆞ니 ᄎᆞᆷ습소
　増補　(四十四ウ)
39 槌　메로 ᄯᅡᆼ을 드ᄉᆞ라　방맛치
40 柳罐　드레를 어듸 두엇ᄂᆞ냐
41 通節　통졀로 비ᄇᆡ라
42 搔痒子　쇼양ᄌᆞ로 글거라

⑫風物　(四十五オ)
1 琴　거믄고 ᄐᆞ라 놀래 브ᄅᆞ쟈
2 琵　비파 소ᄅᆡ 쳬량(凄凉)ᄒᆞ다
3 洞簫　퉁쇼 소ᄅᆡᄂᆞᆫ 본듸 슬프기예 초나라 팔 쳔 뎨ᄌᆞ 그 소ᄅᆡ를 듯고 흣터진다 ᄒᆞ옵ᄂᆡ
4 笛　뎌 소ᄅᆡ 쳥ᄉᆞᄒᆞ여 멀니 가옵ᄂᆡ
5 笳　호가 소ᄅᆡᄂᆞᆫ 사ᄅᆞᆷ의 원간 입내를 내옵ᄂᆞ니　(四十五ウ)
6 口笛　구뎍을 잘 블면 뎌 소ᄅᆡ ᄀᆞᆺᄉᆞ오니
7 嵇琴　히금 소ᄅᆡᄂᆞᆫ 가지ᄉᆞᄉᆞ 응ᄒᆞ옵ᄂᆡ
8 長皷　쟝고를 치면 춤이 잘 추이ᄂᆞ니
9 嘯　쇼ᄑᆞ람 블고 ᄌᆡ조 ᄒᆞᄂᆞᆫ 거슬 경ᄌᆡ인이라 ᄒᆞ외
10 太平簫　태평쇼ᄂᆞᆫ 군즁의 죠흔 풍뉘라　(四十六オ)
11 笙　싱황은 ᄒᆞᆫ 궁그로셔 블면 열두 궁으로셔 소ᄅᆡ 각ᄉᆞ 나셔 십이률의 응ᄒᆞ옵ᄂᆞ니
12 喇叭　나발 소ᄅᆡᄂᆞᆫ 텬아셩이니 ᄀᆞ장 멀니 들리옵ᄂᆡ
13 吹嘓　쥬라를 바로 블면 입이 기우다 관겨ᄒᆞᆯ가
14 銅皷　통고ᄂᆞᆫ 구리로도 ᄒᆞ고 쇠로 ᄒᆞ고 븍 ᄀᆞᆺᄐᆞᆫ 거시라
15 鐘　쇠복 소ᄅᆡᄂᆞᆫ 오래 거지ᄉᆞ 아니ᄒᆞ외　(四十六ウ)
16 石磬　셕경은 나라 졔향(祭享)의 ᄒᆞᄂᆞᆫ 풍뉘오니
17 錚手　징슈ᄂᆞᆫ 증 치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니ᄅᆞ옵ᄂᆞ니
18 阿争　아징은 거믄고 ᄀᆞᆺᄐᆞ되 줄이 만ᄉᆞ오니

19 拍　박은 풍뉴 ᄉᆞ이에 치는 거시라
20 曲調　곡됴를 모로고는 놀래춤을 못ᄒᆞ오니　(四十七オ)
21 皷　븍이 크니 소릭가 ᄆᆡ오 나거든
22 舞　춤은 풍뉴 됴화야 추기 됫ᄉᆞ오니
23 歌　노래를 잘 브ᄅᆞ옵시니 등뎌과 맛치 맛습닉
24 唱　브ᄅᆞ기를 잘 브ᄅᆞ면 숨이 니어 가는 듯ᄒᆞ외
25 彈　ᄐᆞ기가 일슈오매 가약고도 듯기 ᄌᆞ미잇습닉　(四十七ウ)
26 吹　블기를 심히 ᄒᆞ니 나각 소릭가 멀니 가ᄂᆞ
27 樂　풍뉴ᄒᆞ고 노옵새
28 遊　노다가 밤 들거든 파ᄒᆞ옵소
29 絃　줄이 ᄭᅳᆫ허시니 니언 후 ᄐᆞ기를 ᄒᆞ오리
30 木鐸　목탁은 군듕의셔 치는 거시니라　(四十八オ)
31 皷人　고인들의게 져ᄌᆞ를 ᄒᆞ옵쇼셔
　増補
32 七聲　칠셩이라 호되 여ᄉᆞᆺ슬 ᄃᆞ라 ᄆᆡ여 치고니
33 錚　징은 소릭가 징々ᄒᆞ거니
34 鉦　증은 치면 요란ᄒᆞ외　(四十八ウ)
35 名唱　명챵이로쇠
36 風鈴　풍령은 ᄇᆞ람대로 소리 나고니

⑬視聽

1 顧　도라보고 뒤흘 숣피옵소
2 眄　도라보와도 아모도 오ᄂᆞ 니 업습닉　(四十九オ)
3 窺　여어보고 ᄂᆞᆷ의*이 ᄒᆞ는 일을 ᄌᆞ만히 아는 거슨 블샹ᄒᆞᆫ 힝실이오니
4 見　본 일을 본 톄 마옵소
5 瞑　눈을 ᄀᆞᆷ고 좀 든 후는 셰샹의 잇는 쟉이 아니올쇠
6 眼鏡　안경을 ᄭᅵ고 히를 빗겨 보면 눈이 ᄇᆞ싀지 아니ᄒᆞ외
7 千里鏡　쳔니경을 다혀 보니 먼 ᄃᆡ가 분명ᄒᆞ외　(四十九ウ)
8 聞　드른 말 결릭 닛고 본 일을 모론 체 ᄒᆞ옵소
9 知　알고도 ᄒᆞ지 아니면 모로나 다ᄅᆞ올가
10 翫　구경은 산슈가 아마도 웃ᄯᅳᆷ이오니
　増補
11 自鳴鐘　ᄌᆞ명죵은 공교로이 ᄆᆡᆫᄃᆞ랏다　(五十オ)
12 諷聞　풍문이 잇습닉
13 頒　판보를 내엿는가　又知委 지위

⑭車輪

1 車　수릐는 편ᄒᆞᆫ 길희야 잘 몰이여 가옵닉
2 轎子　교ᄌᆞ를 ᄐᆞ고 계신 ᄌᆡ상이 위의가 갸륵ᄒᆞ시외　(五十ウ)
3 軺軒　쵸헌은 이픔 판셔 ᄐᆞ시는 거시로쇠
4 輦　년은 님금밧긔는 못 ᄐᆞ는 거시라
5 駕　물 메온 수릐는 젹어도 잘 가옵ᄂᆞ니
6 轉　구을러 ᄂᆞᆷ과 ᄀᆞᆺ치 든니면 허믈이 이시리오
7 輪　수릐 밧긔 구오ᄃᆞᆺ 셰샹의 든니고 모난 체 말 거시오니　(五十一オ)
8 載　시른 거시 만하 짐이 무거워 가지 못ᄒᆞᆯ가 시브외
9 曳　ᄯᅳ어 내여 보와라
10 駕馬　가마 ᄐᆞ고 가신 냥반이 긔 뉘시니잇가
11 乘　ᄐᆞ고 갈 거시 업서 오ᄂᆞᆯ도 머믈 밧긔 업ᄉᆞ외
12 牽　잇글고 가면 물도 심히 ᄀᆞᆺ바ᄒᆞ옵닉　(五十一ウ)
13 拿　잡어다가 ᄌᆞ도니 블샹ᄒᆞ외
14 平轎子　평교ᄌᆞ는 사ᄅᆞᆷ이 ᄯᅳ으러 가ᄂᆞ니
　増補
15 雙駕馬　쌍가마는 물 두 필의 시른ᄂᆞ니
16 獨轎　독교는 위틱ᄒᆞ여 뵈옵닉　(五十二オ)
17 草轎　초교는 병 든 사ᄅᆞᆷ이 길 갈 ᄆᆞᄃᆡ ᄐᆞ고니
18 駕　노리마(路里馬)는 ᄐᆞ니 죵용ᄒᆞ외
19 牽馬　고들마가 호ᄉᆞᄒᆞ엿고나

⑮鞍具

1 雙騎馬　쌍긔마가 ᄂᆞ는 ᄃᆞ시 가옵닉　(五十二ウ)
2 雙馬　상마가 더욱 ᄀᆞᆺ치 ᄃᆞᄅᆞ거든
3 馬上倒立　마샹도닙을 샹말로 믈구나모라 니ᄅᆞᄂᆞ니
4 鐙裏藏身　등니장신은 젼쟝의 ᄐᆞ는 ᄌᆡ조올쇠
5 馬上立　마샹닙은 브ᄃᆡ 붓체질 ᄒᆞ옵닉
6 馬上仰臥　마샹앙와를 송장써리라 ᄒᆞᄂᆞ니라　(五十三オ)
7 左右七步　좌우칠보는 ᄐᆞ는 사ᄅᆞᆷ이 ᄆᆡ오 분주ᄒᆞ더고
8 倒拖　도타는 길희 잇는 거슬 어더 오옵ᄂᆞ니
9 鞍甲　안갑의 믄ᄌᆡ 뼈러 기ᄅᆞ마의 써라
10 鞍　기ᄅᆞ마 내여 물게 지어라
11 勒　굴릐 ᄭᅵ어라　(五十三ウ)
12 犯馬　범마 ᄒᆞ고 가니 인ᄉᆞ 모로는 사ᄅᆞᆷ이로쇠
13 靼　ᄃᆞ래는 안장의 돌린 거시라

14 鐙子 등ᄌᆞ가 기니 틀라 쟈로게 ᄒᆞ여라
15 卜鞍 짐기ᄅᆞ마 놋코 짐 시러 오ᄂᆞ라
16 韁 물곳비를 질긘 가족으로 ᄒᆞ여라 (五十四才)
17 轡 혁을 ᄃᆞᆫ々히 ᄃᆞ라々 혁을 잡어시면 물이 ᄀᆞᆯ래여도 넘녀가 덜ᄒᆞᄂᆞ니라
18 鞦 밀치가 업스면 언덕 ᄂᆞ릴 제 기ᄅᆞ마가 앏프로 수거디ᄂᆞ니라
19 肚 ᄇᆡ띄를 ᄆᆡ오 ᄃᆞᆫ々히 졸라야 ᄂᆞ릴 제 기우러지々 아니ᄒᆞᄂᆞ니
20 胸帶 가슴거리를 ᄭᅵ면 험ᄒᆞᆫ 고개를 오를 제 기ᄅᆞ마가 뒤흐로 문허질 니가 업ᄂᆞ니
21 卜繩 짐바흘 가져 가 그 짐 질모 오ᄂᆞ라 (五十四ウ)
22 卸 짐 프러 물 쉬여라
23 馬賞 물삭슬 언마나 주면 시러 올고
24 卜解 짐을 플고 든 거슬 내여 샹고ᄒᆞ여 보와라
25 結卜 짐 ᄆᆡ여라 길 가쟈
26 鞁 도돔을 노흐면 먼 길히 물을 ᄐᆞ고 가도 볼기가 아니 앏프니라 (五十五才)
27 卜 짐이 가ᄇᆡ여도 마삭은 잘 ᄒᆞ여 주와라
28 鋤 쟈갈 먹이고 쇠마함 ᄲᅧ라
29 一馱 ᄒᆞᆫ 바리외 언마나 싯고 갈가 시브냐
30 一負 ᄒᆞᆫ 짐이 몃 말 무긔나 드럿ᄂᆞ니
31 一塊 ᄒᆞᆫ 덩이가 몃 근 무긔나 ᄒᆞᆫ고 무러 보와라 (五十五ウ)
32 一結 ᄒᆞᆫ ᄆᆡᄭᅵ를 내여다가 ᄃᆞ라 보지
33 鞴 엇지를 소하야 물등이 샹치 아니ᄒᆞ고 ᄐᆞ며 짐 싯기 됴흐니라
34 鞭 채를 들고 가면 견마 업서도 가ᄂᆞ니라
35 一隻 ᄒᆞᆫ 빡이 이셔 반지ᄲᅧ라 물게는 못 싯게 ᄒᆞ오리
增補 (五十六才)
36 鞍粧 안장 노와리
37 下馬炮 하마포
38 上馬炮 샹마포

⑯戲物

1 碁 바독이 잡기 듕의 웃ᄯᅳᆷ이오니
2 局 판이 됴흐니 노ᄅᆞᆺ슬 ᄒᆞ고 시브외
3 奕 쟝긔ᄂᆞᆫ 여러 슈를 보와야 잘 두옵ᄂᆞ니 (五十六ウ)
4 訓手 훈슈를 드ᄅᆞ면 노롬이 조흘지 아니ᄒᆞ외
5 雙陸 쌍뉵은 긔운이 죠흔 날 티면 ᄂᆡ도히 낫ᄉᆞ오니

6 馬　말이 죠화야 바독이나 쟝긔나 쌍뉵이나 ᄌᆞ미잇습닉
7 賭　나기로 ᄒᆞ다가 지니 대패 ᄒᆞ엿습닉
8 蹴踘　뎌기를 잘 ᄎᆞ니 유명ᄒᆞ외　(五十七オ)
9 骨牌　골패는 짓는 법이 공부 드ᄂᆞ니
10 毬　쥬방을 티는 양이 어엿부외
11 牾　시름은 힘이 세여야 이긔다 호되 꾀가 이시면 더욱 용다 ᄒᆞ옵ᄂᆞ니
12 鬮　져비란 거슨 유복거복이니 잘 빠히려 ᄒᆞ므로도 아니 가옵거니
13 鬪錢　투쳔이라 ᄒᆞᆫ 거슨 욕심으로 ᄒᆞ다가 저마다 본쳔을 일허 패가 ᄒᆞ옵ᄂᆞ니　(五十七ウ)
14 雜技　잡기는 쇼일ᄒᆞᆯ 만지 ᄒᆞ여시면 해롭지 아니ᄒᆞ외
15 戱子　희ᄌᆞ 노릇시 보왐즉ᄒᆞ외
16 著碁　바독 두고 승부를 결ᄒᆞ옵새
17 假碁　고노란 거시 ᄯᅩᄒᆞᆫ 슈가 업지 아니ᄒᆞ오니
18 碁子　바독ᄆᆞᆯ이 ᄌᆞ라야 두기 죠흐니라　(五十八オ)
19 鞦韆　그늬는 놋픈 남긔 줄을 ᄃᆞ라 ᄆᆡ고 남녀 다 ᄯᅴᄂᆞ니
20 霸　패싸홈을 잘ᄒᆞ면 집수를 더 엇습닉
21 超　ᄯᅴ옴은 몸을 놉피 소々와 멀리 ᄯᅴ옵ᄂᆞ니
増補
22 失望　실망
23 誤望　오망　(五十八ウ)
24 還手　환슈
25 有家無家　유가무가
26 碁譜手　긔부슈

⑰政刑

1 政　졍ᄉᆞ를 잘ᄒᆞ시매 만민이 숑덕을 ᄒᆞ옵닉
2 刑　형벌이 너모 듕ᄒᆞ기의 빅셩들이 못 견ᄃᆡ여 ᄒᆞ옵닉　(五十九オ)
3 嚴　업ᄒᆞ여 아ᄅᆡ 사ᄅᆞᆷ이 두려ᄒᆞ옵닉
4 號令　호령이 엄슉ᄒᆞ매 군듕이 외즙ᄒᆞᄂᆞ니라
5 分付　분부를 드릇ᄉᆞ오니 얼현히 ᄒᆞ오리잇가
6 罰　벌은 벌대로 ᄒᆞᆯ 거시로되 경히 ᄒᆞ여야 올흔지라
7 賞賜　샹ᄉᆞ가 후ᄒᆞᆫ 타ᄉᆞ로 군병이 열복ᄒᆞ엿습닉　(五十九ウ)
8 威　위엄이 진동ᄒᆞ여시니 뎍국이 겁내여 감히 움즈기지 못ᄒᆞᄂᆞ니
9 褒貶　포폄은 사ᄅᆞᆷ의 시비를 ᄒᆞ니 듕ᄒᆞᆫ 일이올쇠
10 治　다ᄉᆞ리기를 잘ᄒᆞ면 빅셩의 원망이 업습ᄂᆞ니
11 謫　귀향 보내엿다가 기과 ᄒᆞ거든 샤ᄒᆞ게 ᄒᆞ옵소

12 黜　내치며 드리기를 임의로 ᄒᆞ니 권이 ᄀᆞ장 듕ᄒᆞ외　(六十オ)
13 恕　이녁 ᄆᆞ음을 놈의 ᄆᆞ음의 져버 보옵소
14 訊　져주어 다시 무러 보면 아지
15 推刷　츄쇄ᄒᆞ니 숨엇던 거시 다 들쳐 나더라
16 俸招　봉쵸를 바든 후에 결단ᄒᆞ게 ᄒᆞ오리
17 查覈　사흭ᄒᆞ옵셔 죄상을 다ᄉᆞ라옵쇼셔　(六十ウ)
18 結縛　결박ᄒᆞ고 ᄆᆡ오 치니 니러나지 못ᄒᆞ옵ᄂᆡ
19 自活　발괄을 잘ᄒᆞᆫ 즉 소지 쳥ᄒᆞᄂᆞ니에셔 나으리라
20 屬公　쇽공ᄒᆞ고 귀향 보내니 ᄎᆞᆷ아 블샹ᄒᆞ외
21 承服　승복을 ᄒᆞ니 옥의 가도와 두어라
22 發明　발명ᄒᆞ여 의ᄆᆡᄒᆞᆫ 죄를 ᄌᆞ々스로 면ᄒᆞ엿ᄉᆞᆸᄂᆡ　(六十一オ)
23 現發　현발ᄒᆞ여 역적들이 틀쳐 나니 다힝ᄒᆞ외
24 法　법을 직희여 졀의 죽으니 츙신이올쇠
25 令　우흐로셔 ᄂᆞ리ᄂᆞᆫ 말을 녕이라 ᄒᆞᄂᆞ니
26 賞　샹은 주시고 형벌은 명빅이 ᄒᆞ게 ᄒᆞ옵쇼
27 標　표를 ᄒᆞ고셔 병을 브ᄅᆞ옵소　(六十一ウ)
28 赦　샤를 만나 죄를 면ᄒᆞ니 쳔은이로소이다
29 罪　죄가 듕ᄒᆞᆯ지연정 명의 걸린 일은 업ᄉᆞ오니
30 恩　은혜 닙엇다가 갑지 아닌즉 즘싱답ᄉᆞ외
31 謝　샤례 ᄒᆞ노라 ᄒᆞ고 왓ᄉᆞᆸᄂᆡ
32 公事　공ᄉᆞ를 부즈런히 ᄒᆞᄂᆞᆫ 관원이올쇠　(六十二オ)
33 黯　ᄌᆞ지ᄒᆞᆫ 후ᄂᆞᆫ 아모ᄃᆡ 가도 죄인々줄 아ᄂᆞ니라
　增補
34 拿入　나입 ᄒᆞ더니 무폐이 나왓ᄉᆞᆸᄂᆡ
35 推考　츄고 ᄒᆞ시나 하 어렵지 아닌가 시브외
36 容貌疤記　용모파긔를 보왓ᄉᆞᆸᄂᆞᆫ가　(六十二ウ)

⑱文式

1 註　쥬를 분명이 내시니 모를 일이 업ᄉᆞ외
2 題　글제를 내여 주시면 글 지어 보오리
3 學　ᄇᆡ호기를 힘써 ᄒᆞ여 긔구소업을 ᄒᆞ게 ᄒᆞ엿ᄉᆞᆸᄂᆡ
4 習　니기々를 극진이 ᄒᆞ옵소　(六十三オ)
5 讀　닑기를 긋치지 아니ᄒᆞ니 혹 병 날가 념녀롭ᄉᆞ외
6 吟　읊퍼도 글긔가 나지 아닌가 시브외
7 次韻　ᄎᆞ운이란 거슨 운의 붓들고 잘 짓기 어렵ᄉᆞ오니
8 諺文　언문은 ᄒᆞ고 시픈 말을 다 쓰옵ᄂᆡ

9 冊 칙 수를 여러 권 보와야 박남이 되ᄂᆞ니 (六十三ウ)
10 卷 권 수 만흔 칙은 보기 지리ᄒᆞ외
11 紙 죵회는 듕들이 쓰옵닉
12 筆 붓이 됴흐면 글시가 닉도이 잘 쓰이ᄂᆞ니
13 記 긔록ᄒᆞ여 두옵소
14 綾花 능화로 쳔판ᄌᆞ를 ᄇᆞᄅᆞ면 보기 됴고니 (六十四オ)
15 효쥬ᄒᆞ여 흐리워 ᄇᆞ리옵소
16 書簡 셔간이 쓴허시니 ᄆᆞᄋᆞᆷ이 서운ᄒᆞ외
17 置簿 치부를 ᄒᆞ여 두어야 닛지 아니ᄒᆞ오니
18 法帖 법텹을 보고야 글시가 쉬이 느ᄅᆞ 가ᄂᆞ니라
19 記草 긔초를 ᄒᆞ엿다가 죵용히 졍셔로 벗게 드리게 ᄒᆞ옵소 (六十四ウ)
20 八分躰 팔분톄를 닉이려 ᄒᆞ옵닉
21 九分躰 구분톄는 졔일 어렵ᄉᆞ외
22 篆字 젼ᄌᆞ는 고법이기예 알기 극난ᄒᆞ더고
23 水墨 슈목 그림이 소담ᄒᆞ외
24 單子 단ᄌᆞ대로 쥰ᄒᆞ여 믈건을 맛다 두옵소 (六十五オ)
25 文 글은 용ᄒᆞ옵거니와 아직 급톄는 못 ᄒᆞᄂᆞᆫ가 시브외
26 能筆 잘 쓰는 글시는 붓을 ᄀᆞᆯ희지 아니타 ᄒᆞ옵닉
27 教 ᄀᆞᄅᆞ치기를 브즈런ᄒᆞ니 어진 스승이올쇠
28 講 강을 잘 ᄒᆞ면 사술을 놉피 엇숩닉
29 墨 목이 됴숩기의 글시의 윤이 낫숩닉 (六十五ウ)
30 寫 벗겨시니 글시 ᄲᅡ졋ᄂᆞᆫ가 보와 주셔
31 硯 벼로는 목이 쉬이 ᄀᆞᆯ리되 ᄀᆞᄂᆞᆯ려야 졍벼로오니
32 書案 셔안의 칙을 싸하 두니 션빈 듯ᄒᆞ외
33 冊曆 칙녁을 보고 턱일ᄒᆞ여 납치를 보내려 ᄒᆞ옵닉
34 圖書 도셔의 인쥬가 채 ᄆᆞᄅᆞ지 아니ᄒᆞ매 뭇지々 아니케 ᄒᆞ소 (六十六ウ)
35 正書 뎡셔는 줄게 쓰기 업렵ᄉᆞ오리
36 草書 초셔는 획이 다ᄅᆞ도 ᄌᆞ로 보는 글시는 절로 아옵ᄂᆞ니
37 印 인젹이 々진*신 후에 관문셔 되옵닉
38 畫 그림은 싱긔가 이셔야 명화ㅣ라 ᄒᆞ옵지
39 刻 사긴 거시 분명ᄒᆞ니 오래여도 완ᄒᆞ지 아니ᄒᆞ외 (六十七ウ)

增補

40 正間 뎡간
41 冊衣 칙의
42 書鎭 셔진
43 水滴 슈뎍

44 冊床 칙상
45 套書 투셔

⑲武備

1 武 호반 노릇슨 긔운이 세츤 사름이 홀 거시올레 (六十七才)
2 鏃 살밋치 업스매 마즌들 무어시 샹ᄒᆞ올고
3 小刀 쇼도는 아모리 드온들 큰 거슨 못 버히거든
4 莫伊 막이쇠는 ᄃᆞᆫᄃᆞᆫᄒᆞ여야 환도놀을 막ᄂᆞ니라
5 鳥銃 죠총을 마자 엇지 살 사름이 잇ᄉᆞ올고
6 胄 투구는 살을 맛쳐도 ᄲᅮ러지ᄃᆞ 아니ᄒᆞ외 (六十七ウ)
7 甲 갑옷슬 닙어시니 젼쟝의 님ᄒᆞ여도 관계치 아닐 ᄃᆞᆺ 시브외
8 焰焇 염쵸는 긔운이 미러 ᄯᅮᆷ기를 잘ᄒᆞᄂᆞ니
9 火藥 화약은 블 다힐션정 급피 니러나고니
10 硫黃 뉴황은 블ᄭᅩᆺ츨 니러혀 내는 거시로고
11 旗 긔는 방식을 표ᄒᆞ여 호령ᄒᆞ게 졍ᄒᆞᆫ 거시러라 (六十八才)
12 鉦 증은 군ᄉᆞ 믈려 파ᄒᆞᆯ 제 티는 거시라
13 毒縣 둑은 대쟝의 앏픠 세워 위의 삼는 거시니라
14 角指 각지를 ᄊᆡ고 활 쏘면 손이 앏프지 아니ᄒᆞ외
15 筒箇 동개는 술을 ᄭᅩᆺ잣다가 ᄒᆞᆫ나식 ᄲᅡ혀 쓰게 ᄒᆞᄂᆞᆫ 거시로쇠
16 掌甲 쟝갑을 ᄊᆡ고 활을 쥐면 활좀이 ᄆᆡ오 쥐이옵ᄂᆞ니 (六十八ウ)
17 火繩 화승블을 화약의 붓친즉 블ᄭᅩᆺ치 펄덕 니러나 무셥ᄉᆞ외
18 牌 패는 군ᄉᆞ의 셩명거쥬를 낫나지 표ᄒᆞᆫ 거시라
19 弓 활을 잘 무어야 살이 멀니 가옵닉
20 矢 살은 대가 발라야 바로 가옵ᄂᆞ니
21 箇 살각괴 업스니 엇지ᄒᆞ여 쏘올고 (六十九才)
22 刃 놀이 ᄆᆡ오매 부러져 못 ᄡᅳ올레
23 髐 고도리솔은 쇠밋 아니 박은 거시라
24 長劒 쟝검은 ᄲᅡ혀 보니 빗치 서리 ᄀᆞᆺᄉᆞ외
25 寶劒 보검은 빗치 하놀의 쏘이다 ᄒᆞ옵ᄂᆞ니
26 利劒 니검은 손을 다힐만 ᄒᆞ여도 버히옵닉 (六十九ウ)
27 刀木 칼ᄉᆞ매가 길즉ᄒᆞ니 줄릭 ᄃᆞᆫᄃᆞᆫ히 박히ᄂᆞ니
28 千 방패는 몸을 장ᄒᆞᄂᆞᆫ 거시여든 ᄊᆞ홀 제 업지 못ᄒᆞ오니
29 戈 창 쓰기를 닉겨 가지고 젹병을 티ᄅᆞ쟈
30 皷 븍 드들고 오셔 일ᄒᆞ게 ᄒᆞ소
31 大鐘 큰 쇠복 소릭는 산을 넘어 들니ᄂᆞ니 (七十才)
32 盖 개도 둑괴 ᄀᆞᆺᄐᆞ여 쟝슈 앏픠 세워는 거시라

33 鞘　칼집은 질긘 가족으로 싸 칠ᄒᆞᄂᆞ니
34 韜　풀지 씨고 활 쏘면 풀이 덜 알프니라
35 彈子　ᄐᆞᆫᄌᆞ를 쏘다가 ᄂᆞᄂᆞᆫ 즘싱을 맛치니 용ᄒᆞ외
36 兵符　병부ᄂᆞᆫ 졀도ᄉᆞ ᄀᆞᆺᄐᆞ 니가 맛닷ᄉᆞᆸ니　(七十ウ)
　増補
37 片箭　편젼은 유지로 싸고 촌ᄂᆞᆫ 거시라
38 火箭　블 노홧더니 멀니의 ᄂᆞ려더라
39 紙撚箭　신긔젼은 블ᄭᅩᆺ이 금즉ᄒᆞ외
40 鉄丸　쳘환은 간 ᄃᆡ 모로올레　(七十一オ)
41 令箭　녕젼을 가져 오면 문뎍 업서도 드려 보내옵니

⑳征戰
1 起兵　병을 니러혀 뎍국을 치쟈
2 徵兵　병을 블러 와 도으게 ᄒᆞ새
3 侵　침노ᄒᆞ니 마지못ᄒᆞ여 막조론다　(七十一ウ)
4 和　화동ᄒᆞᆫ 후 무엇 ᄒᆞ려 싸흐리오
5 和親　화친을 구ᄒᆞ니 허ᄒᆞ고 군ᄉᆞ를 파ᄒᆞ쟈
6 勝　이긔거든 봉쟉을 주옵쇼셔
7 負　지면 죄를 주ᄂᆞ니라
8 惙　겁을 낼쟉시면 뎍인이 업슈이 너기ᄂᆞ니라　(七十二オ)
9 屈　굴복지 말고 ᄒᆞᆫ번 싸호쟈
10 救援　구완병이 오기ᄭᅡ지 견ᄃᆡ여 방젼ᄒᆞ새
11 助力　힘을 도아 뎍진을 패ᄒᆞ쟈
12 謀反　반을 도모ᄒᆞ다가 누셜ᄒᆞ면 엇지ᄒᆞ랸ᄂᆞᆫ고
13 圍　에워ᄊᆞ고 급피 치면 셩을 파ㅣᄒᆞ나니　(七十二ウ)
14 刺　질러 죽이고 도라 오라
15 射　샤부ᄂᆞᆫ 진마다 이셔 활 쏘ᄂᆞᆫ 사ᄅᆞᆷ이니
16 殺　죽이지 말고 항복을 바다라
17 斬　버혀 그 머리를 군듕의 호령ᄒᆞ라
18 剪　ᄀᆞᆯ겨 그 여당을 업시 ᄒᆞ쟈　(七十三オ)
19 彎　활을 ᄃᆞ리여 쏘니 과연 맛거니
20 亡　도망ᄒᆞ던 놈을 잡엇거든 사ᄒᆡᆨᄒᆞ여라
21 降　항복 바든 후에ᄂᆞᆫ 도라 가 공을 엿줍쟈
22 剖　부를 ᄲᅢ텨 공신을 봉ᄒᆞ신다 ᄒᆞ옵니
23 功　공을 일워시니 믈러가ᄂᆞᆫ 거시 올흐니라　(七十三ウ)
24 抜　ᄲᅡ혀 내여 츙신 ᄌᆞ리의 안치게 ᄒᆞ옵소

25 披　펴 보니 ᄌᆞ연이 앗랏다
26 發　발ᄒᆞ여 난 휘니 덥펄 길이 업ᄉᆞ외
27 偸　도적질 ᄒᆞ고 술과 겨집의 밋치니 바로 죽일 놈이라
28 叛　반ᄒᆞᄂᆞᆫ 놈을 잡어다가 버혀 모든 사ᄅᆞᆷ의 경계ᄒᆞ쟈　(七十四オ)
29 對敵　ᄃᆡ뎍ᄒᆞ기 어렵거든 화친을 쳥ᄒᆞ옵소
30 防　막키 어렵건마ᄂᆞᆫ 졀의 죽고져 모다 졍ᄒᆞ여 잇숩ᄂᆡ
31 絞　목 졸라 죽이ᄂᆞᆫ 죄가 버히ᄂᆞᆫ 죄지치오니
32 讐　원슈ᄂᆞᆫ 외나모ᄃᆞ리의셔 만낫다 ᄒᆞ옵ᄂᆞ니
33 報讐　원슈 갑픈 후ᄂᆞᆫ 죽다 무ᄉᆞᆷ ᄒᆞᆫ이 잇ᄉᆞ올고　(七十四ウ)
34 匝　겹々히 에워 ᄊᆞ니 사ᄅᆞᆯ 잡어 내여라
35 伏兵　븍병 ᄒᆞ엿다가 블시에 내ᄃᆞ라 티쟈
36 層　층々히 군ᄉᆡ 둘러시니 나갈 길이 업ᄉᆞ외
37 戰場　뎐쟝은 이긔ᄂᆞᆫ 편이 병긔를 만히 엇숩ᄂᆞ니
38 戰　싸홈은 쟝슈의 지혜가 읏쯈이오니　(七十五オ)
39 亂　어즈러온 ᄢᅢᄂᆞᆫ 어진 사ᄅᆞᆷ은 다 숨어 잇숩ᄂᆡ
40 挑戰　싸홈을 날마다 도々되 나지 아니ᄒᆞᆫ다
41 帿候　솔은 졍심공뷔오매 ᄆᆞᄋᆞᆷ을 졍이 ᄒᆞ면 잘 맛ᄂᆞ니라
42 伐　텨 파ᄒᆞ엿다가 공을 셰오쟈
43 中　맛쳐 ᄆᆞᆯ 아ᄅᆡ ᄂᆞ리티니 죽을시 올ᄉᆞ외　(七十五ウ)
44 死　죽은 후ᄂᆞᆫ 도라 오지 못ᄒᆞ니 그ᄅᆡ 싱각ᄒᆞ여 보소
45 獵　산양ᄒᆞ라 가다가 곤ᄒᆞ엿숩ᄂᆡ
46 擒　사ᄅᆞᆯ 잡은 호인(胡人)들을 다 노하라
47 敗　패ᄒᆞ여 위틱ᄒᆞᆫ 지경의 가셔 사라 왓숩ᄂᆡ
48 守　직희기가 ᄃᆞᆫ々ᄒᆞ니 셩이 부실ᄒᆞ여도 견ᄃᆡᄂᆞ니　(七十六オ)
49 欺　속겨 뎍군을 켜 드렷다가 치면 일졍 이긔리
50 掠　노략질을 심히 ᄒᆞ니 군민이 반ᄒᆞᆯ ᄯᅳᆺ이 잇ᄂᆞᆫ가 시브외

增補

51 軍號　군호ᄂᆞᆫ 밤의 싸홀 적의 쓰ᄂᆞ니라
52 水操　슈조ᄂᆞᆫ ᄇᆡ싸홈을 닉이ᄂᆞ니　(七十六ウ)
53 習陳　습진을 시작ᄒᆞᄂᆞᆫ가 보외

㉑飮食

1 酌酒　술 부어라 손님게 권ᄒᆞ쟈
2 設酒　술을 베플고 잔치 ᄒᆞ옵새
3 罄酒　술이 진ᄒᆞ거든 밧비 어더 오ᄂᆞ라　(七十七オ)
4 屑　ᄇᆞᄌᆞ라기라도 공연히 ᄇᆞ리지 말라

5 刀麵　칼국슈ᄂᆞᆫ ᄀᆞᄂᆞᆯ로야 죠흐니라
6 羹　국은 더온 김의 먹어야 마시 더ᄒᆞ외
7 醬　쟝을 잘 담아 니겨라
8 清醬　ᄀᆞᆫ쟝을 쳐라 국이 승겁다　(七十七ウ)
9 葅　팀치ᄂᆞᆫ 마시 ᄉᆡ금々々ᄒᆞᄂᆞ니
10 飯　밥이 퇴니 무르게 다시 지어라
11 餠　쩍은 아모리 만히 먹어도 밥 ᄉᆡᆼ각이 나ᄂᆞ니
12 饅　만두ᄂᆞᆫ 여러가지 맛난 거스로 속 너허셔 ᄆᆡᆫ든 쩍이오니
13 蜜果　ᄉᆞᆯ 든 과ᄌᆞᄂᆞᆫ 너모 돌고니　(七十八オ)
14 正果　뎡과ᄂᆞᆫ 아모 과ᄌᆞ라도 ᄉᆞᆯ을 녀허 ᄆᆡᆫᄃᆞᄂᆞᆫ 거시니라
15 粥　죽은 거라야 먹기 죠흐니
16 肉　고기ᄂᆞᆫ 연ᄒᆞ고 기름이 약간 이셔야 좃ᄉᆞ오니
17 膾　회ᄂᆞᆫ ᄀᆞᄂᆞᆯ게 텨야 마시 잇ᄂᆞ니라
18 嗜　즐기신 거슬 아라 보와 쟝만ᄒᆞ여라　(七十八ウ)
19 酒　쥬식은 삼가야 올ᄉᆞ외
20 濁酒　탁쥬를 먹엇ᄉᆞ오니 여긔ᄂᆞᆫ 홀 만ᄒᆞ외
21 清酒　쳥쥬ᄂᆞᆫ 취ᄒᆞ여도 속이 샹치 아니ᄒᆞᄂᆞ니
22 焼酒　쇼쥬ᄂᆞᆫ 독ᄒᆞᆫ 거시기에 과히 먹지 마옵소
23 蜜　ᄉᆞᆯ은 졍신을 보ᄒᆞ옵ᄂᆞ니　(七十九オ)
24 飴　엿슬 고아 먹쟈
25 油　기름을 쳐 맛나게 ᄆᆞᆰ국을 ᄒᆞ여라
26 麹　누륵이 됫기의 술이 잘 닉엇고니
27 醋　초ᄂᆞᆫ 잘 담아야 마시 변치 아니ᄒᆞᄂᆞ니라
28 麵　국슈를 주린 김의 먹엇습기에 아모것도 슬ᄉᆞ외　(七十九ウ)
29 肴　안쥬를 권ᄒᆞ게 ᄒᆞ옵쇼셔
30 茶　차를 먹으면 음식이 잘 ᄂᆞ리다 ᄒᆞ옵ᄂᆡ
31 糖　미시의 셜당 타 내여라
32 豉汁　ᄆᆞᆰ국을 ᄎᆞ조 먹으니 술의 덜 취ᄒᆞ엿ᄂᆞᆫ가 시브외
33 甘醬　감쟝은 승거온 음식의 딕어 먹ᄂᆞ니라　(八十オ)
34 滓　즛긔란 개나 주어라
35 漉　걸러 국을 ᄀᆞ만히 안쳐라
36 酡酪　타락을 년ᄒᆞ여 먹으면 긔운을 보ᄒᆞᄂᆞ니
37 荳腐　두부로 국 ᄭᅳᆯ혀 먹으면 무던ᄒᆞ외
38 薦新　쳔신을 ᄒᆞ고 나죵의 먹게 ᄒᆞ오리　(八十ウ)
39 五花糖　오화당은 속의 개 ᄒᆞᆫ나식 잇고든
40 砂糖　사당 과ᄌᆞᄂᆞᆫ 쟝마 ᄯᅢ에ᄂᆞᆫ 빗치 업ᄉᆞ지ᄂᆞ니

41 雪糖　셜당은 청열ᄒᆞ옵닉
42 橙糖　등당은 둘고 먹기 무던ᄒᆞ외
43 氷糖　핑당은 입의 너허 두면 절로 녹ᄂᆞ니라　(八十一オ)
　増補
44 花煎　화젼은 곳츨 쩍의 뭇쳐 기름의 지져 ᄉᆞᆯ 다 먹ᄂᆞ니
45 松餠　숑병은 ᄉᆞᆯ골로 쩍을 지고 속 녓ᄂᆞ 거시라
46 包餠　ᄊᆞᆫ병은 여러가지 거슬 쩍으로 ᄊᆞᆫᄂᆞ니
47 江正　강뎡은 상의 노옵닉　(八十一ウ)
48 飯饌　반찬을란 잘 ᄒᆞ여 자시옵쇼셔
49 梨花酒　니화쥬
50 芳紋酒　방문쥬　(八十二オ)

交隣須知　巻四
①静止
1 眠　조으롬이 계오니 그만ᄒᆞ여 쟈옵새
2 立　셔々 말ᄉᆞᆷᄒᆞ옵새
3 臥　누어시니 ᄀᆞ장 평안ᄒᆞ외
4 宿　자고 닉일 새벽의 가옵소　(一オ)
5 留　머므러 말ᄉᆞᆷ이나 ᄒᆞ다가 가옵소
6 欠伸　기지게 켜면 게어로다 ᄒᆞᄂᆞ니
7 倚　지혀 안자 계시니 무슴 수심(愁心)이 나ᄂᆞᆫ가 시브외
8 休　쉬여 쳔々히 가면 ᄀᆞᆺ부지 아니ᄒᆞ오리
9 坐　안자셔 노다가 가소　(一ウ)
10 止　긋쳐다가 다시 시작ᄒᆞ소
11 呵欠　하프욤 ᄒᆞ니 자고쟈 ᄒᆞᄂᆞᆫ가 보외
12 龜縮　목을 움츠리켜고 감히 내와다가 보지 못ᄒᆞ옵닉
13 覺　ᄭᅴ여 보니 ᄃᆞᆯ빗치 창에 빗최엿ᄉᆞᆸ데
14 至　니ᄅᆞ러 보니 소문과 막 ᄀᆞᆺᄉᆞ외　(二オ)
15 静　괴요ᄒᆞ여 믈소릐만 들리옵닉
16 仰　우러々 춤을 밧ᄐᆞ면 내 ᄂᆞᆺ치 ᄂᆞ려지ᄂᆞ니
17 伏　업ᄃᆡ여 볼기를 마ᄌᆞ라 ᄒᆞ셔도 맛ᄉᆞ오리잇가
18 顚　업더져 코를 ᄶᅡ이져 피가 난다
19 沛　졋바지면 대골 ᄭᅢ리라　(二ウ)
20 倒　것구로 ᄆᆡ여 ᄃᆞᆯ고 코의 징믈 부으리라
　増補

21 寢　줌어 계시거든 그만의 잇거라
22 起枕　긔침ᄒᆞ여 알외라
23 困憊　곤비ᄒᆞ여 졍신이 어즐ᄒᆞ외
24 委頓　의도　(三オ)

②手運

1 掬　우홈으로 ᄒᆞᆫ 우홈만 주옵소
2 搆　얼고 열십 ᄌᆞ로 ᄆᆡ니 들고 가도 넘녀업다
3 伸　펴 보니 ᄇᆞᆫ 손바당이로쇠
4 搔　글그면 ᄀᆞ장 ᄉᆡ훤ᄒᆞ외　(三ウ)
5 抽　빠혀 내여 ᄇᆞ리옵소
6 拾　주어셔 혜여 보면 알리
7 搜　뒤여 내면 ᄀᆞᆷ촌 거슬 어더 내리라
8 探　더듬어 보와 손의 걸리거든 잡어 내소
9 摘　ᄯᅳ다가 날 주소　(四オ)
10 採　킈여 와셔 무루게 술마라
11 折　것글 제 손의 가ᄉᆡ 칠리라
12 掛　걸고 두엇다가 먼ᄃᆡ셔 보새
13 擲　더지다가 사ᄅᆞᆷ 마ᄌᆞ리
14 扣　두ᄃᆞ리니 븍 소릐 ᄂᆞ니　(四ウ)
15 擇　ᄀᆞᆯ히여 내니 나믄 거슨 블용이 되엿ᄉᆞᆸ니
16 揮　휘저어 두ᄃᆞ소
17 斫　짝가 내면 속의 거시 뵈리
18 抱　안고 둘이 자새
19 扶　붓들고 가면 아니 것그러지리　(五オ)
20 携　잇ᄭᅳᆯ고 ᄒᆞᆫ가지로 가새
21 挾　녑희 ᄭᅵ고 가면 뉘 알고
22 拂　ᄠᅳᆯ치고 ᄃᆞ라나소
23 擔　메고 가다가 ᄀᆞᆺ브거든 쉬소
24 擡　ᄶᅥ들고 괴오면 아니 됴흐랴　(五ウ)
25 捕　잡어다가 관가의 고ᄒᆞ게 ᄒᆞ오
26 捫　어ᄅᆞ만지니 됴하ᄒᆞ데
27 排　밀치고 드러 가면 뉘 금ᄒᆞ오리잇가
28 推　밀치면 졋빠지라
29 拒　막ᄌᆞ로고 듯지 아니ᄒᆞ니 민망ᄒᆞ외　(六オ)
30 搖　요동ᄒᆞ니 몸이 붓치ᄂᆞᆫ ᄃᆞᆺᄒᆞ외

31 控　손을 잇그러다가 ᄒᆞᆫ듸 다히소
32 捲　것고 보니 ᄇᆞ람이 드러 와 ᄉᆡ훤ᄒᆞ외
33 抖擻　가다ᄃᆞ마 졍신을 닥어 ᄉᆞᆯ피옵소
34 攀　붓들고 가지 말라 ᄒᆞ니 ᄯᅥ나기 어렵ᄉᆞ외　(六ウ)
35 指　ᄀᆞᄅᆞ쳐 보고 웃지 마오
36 掘　픠여 깁피 심그고 흙을 도々와 두옵소
37 拱　풀장 ᄭᅩᆺ고 단졍이 안잣ᄂᆡ
38 拱手　손을 ᄭᅩᆺ고 공슌히 드러 왓ᄉᆞᆸ데
39 壓　눌오고 이시니 ᄀᆞᆨᄀᆞᆸᄒᆞ여ᄒᆞᄂᆡ　(七オ)
40 抄　쵸ᄒᆞ여 내라
　增補
41 握　쥐여시니 놋지 아니ᄒᆞ외
42 搜撿　수험ᄒᆞ여 보와라

③足使　(七ウ)
1 步　거ᄅᆞ 가기를 챤々히 ᄒᆞ면 수릐 ᄀᆞᆺ다 ᄒᆞ옵ᄂᆡ
2 走　ᄃᆞᄅᆞᆷ ᄃᆞᆺ기 ᄀᆞᆺ브외
3 躍　ᄯᅴ여 몬져 오ᄅᆞ쟈
4 蹲　즉ᄶᅮ리켜 안자시니 발목이 앏프외
5 踞　거러 안즈니 인ᄉᆞ 모로ᄂᆞᆫ가 시브외　(八オ)
6 跪　ᄶᅮ러 안즈면 무롭픠 앏프외
7 蹇　발 저ᄂᆞᆫ 사ᄅᆞᆷ은 ᄃᆞᄅᆞᆷ ᄃᆞᄅᆞᆯ 제 우습ᄉᆞ외
8 蹈　발 구ᄅᆞ고 ᄯᅴ노소
9 蹶　거치져 업드러지면 앏프니라
10 蹴　ᄌᆞᆺᄇᆞ라 내여 ᄇᆞ리소　(八ウ)
11 企　뎌기드ᄃᆡ여 놉픈 ᄃᆡ 거슬 ᄂᆞ리오소
12 跡　발자곡을 ᄉᆞᆯ와 가면 간 곳을 알리라
13　　벗드ᄃᆡ여 너모 보소
14 足刺　발의 가ᄉᆡ 박히니 ᄭᅮ시여 견ᄃᆡ지 못ᄒᆞ올쇠
　增補　(九オ)
15 奉足　봉족
16 縮脚　츅각

④心動
1 喜　깃거ᄒᆞ시니 내 역시 다힝ᄒᆞ외
2 悲　너모 슬피 우지 마옵소

3 怒　노홈을 춤아야 소견이 잇다 ᄒᆞ오리　(九ウ)
4 愛　ᄉᆞ랑ᄒᆞ시니 감격ᄒᆞ외
5 愁　수심을 프러 주소
6 惑　혹ᄒᆞᆫ 후면 사오나온 줄을 모로ᄂᆞ니
7 憂　근심을 만낫숩ᄂᆡ
8 哀　슬픈 졍을 어이 ᄎᆞ믈고　(十オ)
9 恨歎　ᄒᆞᆫ탄 ᄒᆞᆫ들 쇽졀이 잇ᄉᆞ올고
10 恨　ᄒᆞᆫ을 플면 ᄉᆡ훤ᄒᆞᆯ가 시브외
11 憎　무여 견ᄃᆡ지 못ᄒᆞ올쇠
12 怨　원망저온 ᄂᆞᄅᆞᆺ 마옵소
13 忿　분을 춤다가 못ᄒᆞ여 ᄒᆞᆫ이로쇠　(十ウ)
14 恚　애ᄃᆞᆯ은 ᄆᆞᄋᆞᆷ을 억졔지 못ᄒᆞ올쇠
15 悶　민망ᄒᆞᆯ지라도 당ᄒᆞᆯ 밧근 업ᄉᆞ외
16 畏　무셔오니 나는 못ᄒᆞ게 ᄒᆞ옵ᄂᆡ
17 冤　원통ᄒᆞᆫ 일이야 어이 니ᄌᆞᆯ고
18 嚇　저히면 뉘 무셔워ᄒᆞ외　(十一オ)
19 快　쾌히 결단ᄒᆞ시니 피ᄎᆞ ᄉᆡ훤ᄒᆞ외
20 感　감격ᄒᆞᆫ 은혜야 명심ᄒᆞ게 ᄒᆞ엿숩ᄂᆡ
21　　상쾌ᄒᆞ니 어이 다 니ᄅᆞᆯ고
22 惶　황공ᄒᆞ와 알욀 말ᄉᆞᆷ을 다 못ᄒᆞ옵ᄂᆡ
23 嘆　탄식ᄒᆞ니 절로 눈믈이 나옵ᄂᆡ　(十一ウ)
24 笑　우슴을 너모 즐기면 ᄂᆞᆷ이 춤실치 아니타 ᄒᆞᄂᆞ니
25 哭　울기를 슬피 ᄒᆞ면 듯ᄂᆞᆫ 사ᄅᆞᆷ이 눈믈을 흘리ᄂᆞ니
26 興　흥이 발ᄒᆞ니 뫼다히나 올나 가새
27 慷慨　강개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먹숩소
28 怊悵　툐댱ᄒᆞ고 안자 고인을 싱각ᄒᆞᄂᆞ니　(十二オ)
29 悦　깃거ᄒᆞᆫ ᄉᆞ식이 나타낫숩ᄂᆡ
　増補
30 憤怒　분소
31 憂患　우환
32 雑意　잡위를 안다
33 熟情　슉졍
34 趦趄(ᄎᆞ져) 모멋써려 결단을 아니 ᄒᆞᆫ다

⑤言語　(十二ウ)
1 言　말을 만히 ᄒᆞ면 망발이 나ᄂᆞ니라

2 曰　니ᄅᆞ니 그리 ᄒᆞ마 허락ᄒᆞ옵데
3 辯　말을 잘ᄒᆞ면 못 되ᄂᆞᆫ 일도 혹 되옵ᄂᆡ
4 辭　말ᄉᆞᆷ을 공슌이 ᄒᆞ여라
5　　농담이 진담이 되옵ᄂᆞ니　(十三オ)
6 空言　뷘말만 ᄒᆞ고 가시니 섭々ᄒᆞ외
7 黙　잠々ᄒᆞ여셔도 안흐로 짐쟉 ᄒᆞ옵ᄂᆞ니
8 誘　ᄃᆞᆯ래여 ᄃᆞ려 오옵소
9 説　니ᄅᆞ기를 잘ᄒᆞ면 어이 듯지 아니ᄒᆞ올고
10 訥　말덧두어리ᄂᆞᆫ 사ᄅᆞᆷ의 말은 아라듯기 분명치 아니ᄒᆞ오니　(十三ウ)
11 語澁　말이 삽ᄒᆞ여 니ᄅᆞᄂᆞᆫ 말이 ᄭᅳᆫ허지옵ᄂᆡ
12 譽　기리옵시니 그쟈가 더욱 부즈런이 ᄒᆞ옵ᄂᆡ
13　　허러 니ᄅᆞᄂᆞᆫ 말을 고지듯지 마옵소
14 訴　할아셔 그ᄂᆞᆷ이 죄를 닙어고나
15 訟　숑ᄉᆞᄂᆞᆫ 두 편의 말을 ᄉᆞᆯ펴야 올ᄉᆞ오니　(十四オ)
16 分揀　션악을 분간ᄒᆞ여 노옵소
17 决　결단을 공편이 ᄒᆞ여야 원망을 아니 듯ᄉᆞᆸᄂᆞ니
18 叱　ᄭᅮ지저 믈리티옵소
19 偏僻　편벽저이 구지 말라
20 操弄　조롱을 하 너모 말고 긋치게 ᄒᆞ옵소　(十四ウ)
21 論駁　논박을 참혹히 마옵소
22 小看　쇼간ᄒᆞ다가 도로혀 못 이긔오리
23 盟　밍셧코 다시 보지 아니ᄒᆞ오리
24 約　언약을 ᄒᆞᆫ 연후에 실긔ᄅᆞᆯ 홀고
25 問　무러 보와 곡졀을 ᄌᆞ셔히 드ᄅᆞ 오소　(十五オ)
26 詰　힐난ᄒᆞ여 낫々치 아라 오ᄂᆞ라
27 譏　긔롱이 쇠면 싸홈이 되ᄂᆞ니라
28 誡　경계ᄒᆞᄂᆞᆫ 말을 브ᄃᆡ 닛치 말라
29 誘　달내ᄂᆞᆫ 말을 고지듯지 마소
30 答　ᄃᆡ답을 영마히 ᄒᆞ면 착ᄒᆞ다 ᄒᆞᄂᆞ니　(十五ウ)
31 諛　아탕ᄒᆞ면 ᄂᆞᆷ이 ᄂᆞᆺ게 너기ᄂᆞ니라
32 誤　그릇ᄒᆞ다가 뉘웃지 마옵소
33 曲　구분 거슬 폐고져 ᄒᆞᆫ들 바로기 쉬오랴
34 是　올흔 일은 올타 ᄒᆞ지
35 直　고든 사ᄅᆞᆷ은 ᄂᆞᆷ이 소기지 못ᄒᆞ옵ᄂᆞ니　(十六オ)
36 呉　기으러디면 다믄 거시 업텨디ᄂᆞ니라
37 横　빗긴 거슨 바로게 ᄒᆞ기 어렵ᄉᆞ오니

38 請　쳥ᄒᆞ여 ᄃᆞ려다가 죵용히 니ᄅᆞ쟈
39 論　의논이 쇠 눈의셔 크다 ᄒᆞ옵닉
40 争　ᄃᆞᆺ토와 이긔도록 ᄒᆞ여라　(十六ウ)
41 嗾　부촉켜 ᄂᆞᆷ을 그르게 마라
42 開諭　기우ᄅᆞᆯ 잘ᄒᆞ면 현마 아니 드ᄅᆞ랴
43 贋　거*가거신 줄 즉제 알기 어려오리*니라
44 漏泄　누셜ᄒᆞ면 일이 못될 ᄲᅮᆫ 아녀 큰일이 나리라
45 忘　망녕저이 구지 마라　(十七オ)
46 付耳語□ △귀예 다히고 말ᄒᆞ면 ᄂᆞᆷ이 슈샹히 너기ᄂᆞ니라
47 低語△ ○ᄂᆞᄌᆞ기 말ᄒᆞ면 져편도 그리 ᄒᆞᄂᆞ니
48 献辭○ ㅣ문안 드리니 은근히 회답 ᄒᆞ시옵되데
49 相較｜□샹교ᄒᆞ여 본ᄉᆞᄂᆞᆫ 일으지 못ᄒᆞ오리
　増補　(十七ウ)
50 得談　득담
51 食言　식언
52 長辭説　댱ᄉᆞ셜
53 酬酢　슈작

⑥語辭

1 須　모로미 부ᄃᆡ 범ᄉᆞ를 조심ᄒᆞᆯ 거시니라
2 雖　비록 아니 닐러도 ᄒᆞ염즉ᄒᆞᆫ 일이 아니냐　(十八オ)
3 頗　ᄌᆞ못 용심ᄒᆞ여 디내여라
4 尤　더욱 조심ᄒᆞ면 무ᄉᆞᆷ 근심 이시리오
5 必　반ᄃᆞ시 됴흔 일이 이실 거시니 가 ᄃᆞᆫ녀 오ᄂᆞ라
6 是　이 ᄀᆞ장 아ᄅᆞᆷ다온 일이로다
7 又　ᄯᅩ 됴흔 긔별이 올 ᄃᆞᆺᄒᆞ외　(十八ウ)
8 更　곳쳐 싱각ᄒᆞ여 경히 구지 마소
9 將　쟝ᄎᆞ 그릇ᄒᆞᆯ 번ᄒᆞ엿ᄉᆞᆸ데
10 得　어던 후에ᄂᆞᆫ 다시 욕심 내지 마오
11 但　다만 글을 ᄇᆡ흘 ᄯᅳᄅᆞᆷ이니라
12 惟　오직 츅슈ᄒᆞᆯ ᄲᅮᆫ이로쇠　(十九オ)
13 復　다시 보고 글을 니겨야 누ᄅᆞ 가옵닉
14 應　응당 벅々히 어들 거시니 힘써 ᄒᆞ여라
15 正　졍 그러ᄒᆞᆯ셰면 틈을 어더 보오리
16 精　졍신을 드려 공부ᄒᆞ면 일으지 못ᄒᆞᆯ가
17 公正　공졍ᄒᆞᆫ 말만 ᄒᆞ고 잡되이 구지 말라　(十九ウ)

18 端正　단졍히 안자 글을 닐러라
19 正齊　졍졔ᄒᆞ고 잡ᄉᆞ셜 말라
20 匡正　광졍ᄒᆞᆫ 후면 죵용ᄒᆞ니라
21 定　졍ᄒᆞᆫ 후에 ᄯᅳᆺ을 어긔지 말라
22 一定　일졍 되여 올 듯ᄒᆞ매 그리 보채치 마소　(二十オ)
23 必定　반ᄃᆞ시 출댱(出場)이 될 듯ᄒᆞ외
24 奄　문득 간 곳이 업스니 아니 괴이ᄒᆞᆫ고
25 是以　일로써 내 말ᄉᆞᆷ을 닛지 마옵쇼셔
26 便　곳 그대로 시힝ᄒᆞ쇼셔
27 就中　나아 가ᄂᆞᆫ 가온ᄃᆡ 긔자ᄒᆞ여 뵈옵니　(二十ウ)
28 暴　ᄀᆞᆸ족저이 셩을 내지 마옵소
29 合當　합당ᄒᆞ오니 그리 ᄒᆞ게 ᄒᆞ옵소
30 副　내 쳥을 마쳐 시힝ᄒᆞ시니 ᄉᆡᆼ광이 뎍지 아니ᄒᆞ외
31 共　ᄒᆞᆫ가지로 니발ᄒᆞ옵새
32 僥倖　요힝으로 환을 버서나니 실로 다힝ᄒᆞ외　(二十一オ)
33 幾　거의 일이 날 번ᄒᆞ옵데이다
34 遂　츅죠ᄒᆞ여 챡실이 긔별ᄒᆞ엿ᄉᆞᆸ데
35 故　그런 고로 그만ᄒᆞ여 긋치오니
36 姑　아직 ᄎᆞᆷ고 잇다가 나죵을 보옵새
37 最　ᄀᆞ장 ᄉᆞ랑ᄒᆞ시니 평ᄉᆡᆼ 닛지 아닐가 시브외　(二十一ウ)
38 方　ᄇᆡ야흐로 막 방쟝이옵도쇠
39 猶　오히려 입의 졋내 나옵니
40 既　이믜 허락 바다 와시매 다시 곳치기 어렵ᄉᆞ외
41　　출하리 ᄃᆞᆱ의 입의 될지연졍 쇠밋치 되지 말라 ᄒᆞ옵니
42 徒　ᄒᆞᆫ갓 ᄂᆞᆷ의 참소를 듯고 셩내지 마옵소　(二十二オ)
43 況　ᄒᆞ믈며 날 ᄀᆞᆺ튼 사ᄅᆞᆷ이야 엇게 혜올가
44 空　쇽졀업시 애만 석이옵니
45 真　진짓 사ᄅᆞᆷ은 ᄂᆞᆷ이 줄로 소기지 못ᄒᆞ옵ᄂᆞ니
46 偽　거즛 거스로 아모 일이라도 ᄭᅮ미지 마소
47 永　기리 ᄒᆞᆫ숨만 치고 그대지 곡졍 마ᄅᆞ셔　(二十二ウ)
48 偶　우연이 만나 서로 친ᄒᆞ다가 ᄯᅥ나시니 섭々ᄒᆞ외
49 幸　힝혀 실슈를 ᄒᆞ오리
50 或　혹 그런 소문이 이셔도 남ᄋᆡ가 두려ᄒᆞ랴
51 即　즉시 쳐치ᄒᆞ옵새
52 敢　굿히여 쳔연ᄒᆞ다 ᄒᆞ올고　(二十三オ)
53 願　원권대 힝ᄌᆞ를 머믈게 ᄒᆞ옵쇼셔

54 可　올흔 일은 말로나 기리옵소
55 宜　맛당ᄒᆞ오니 니ᄅᆞ신 대로 시힝ᄒᆞ옵새
56 嘗　일즉 허락ᄒᆞ여 계시옵데
57 若　만일 그런 ᄉᆞ졍도 업지 아니ᄒᆞ오리　(二十三ウ)
58 然　그러면 ᄒᆞᆫ숨 쉬여 밋처 가오리
59 使　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ᄎᆞᆺ게 ᄒᆞ옵소
60 甚　심히 어렵건마ᄂᆞᆫ 힘대로 쥬션ᄒᆞ오리
61 果然　과연 ᄒᆞᆫ갑(甲)이 되엿습닉
62 與　더브러 ᄒᆞᆷ끠 가셔 보고 오々　(二十四オ)
63 聊然　아ᄋᆞ라이 도라 가시니 ᄒᆞᆯ々ᄒᆞ외
64 自然　ᄌᆞ연이 그리 될 일이니 뉘 타술 삼ᄉᆞ올고
65 依然　의연히 됴션 사ᄅᆞᆷ의 말 ᄀᆞᆺᄉᆞ외
66 公然　공체로 ᄒᆞ면 덥플 길이 업ᄉᆞ외
67 竟　ᄆᆞ참내 도라가려 ᄒᆞ시니 니별이 층냥 업ᄉᆞ외　(二十四ウ)
68 因　인ᄒᆞ여 게 두고 일 시기옵소
69 趦趄　ᄌᆞ져ᄒᆞ다가 미결ᄒᆞ옵소
70 躕躇　쥬져ᄒᆞ다가ᄂᆞᆫ 놈의게 아이오리
71 於　말 느려 가ᄂᆞᆫ 어 ᄌᆡ옵도쇠
72 而　말 니얼 이 ᄌᆞ오니　(二十五オ)
73 大概　대개 몸희가 그 항아리만치나 ᄒᆞ외
74 騷雅　소아ᄒᆞ고 단뎡ᄒᆞᆫ 타ᄉᆞ로 독당ᄒᆞ옵닉
　增補
75 未　아직 날희여 두옵소
76 不當　당치 아닌 말 ᄒᆞ닉　(二十五ウ)
77 非久　비구에 다 되오리　又不久 블구
78 不已　마지 아니ᄒᆞ외
79 不可不　블가블 ᄒᆞᆯ 밧근 업습ᄂᆞ니
80 爲先　위션 긔나 바디 두옵소
81 幸甚　힝심ᄒᆞ옵ᄂᆞ이다　又幸望 힝망　(二十六オ)

⑦心使

1 思　싱각ᄒᆞ여 보옵소
2 悟　ᄭᅴ돌은 후면 뉘웃ᄌᆞ오리
3 究　궁구ᄒᆞ여 니를 프러 내옵소
4 矜　쟈랑 내다가 도로혀 욕보리　(二十六ウ)
5 稱　일ᄏᆞᄅᆞ시믈 닙으니 과연 황공ᄒᆞ외

6 羨　부러 말고 그 사름 긔걸을 본바다 ᄒᆞ여라
7 過　허믈 드ᄅᆞ도 기과ᄒᆞ면 시비업ᄂᆞ니
8 嫌　혐의로온 일이야 ᄌᆞ싱ᄒᆞ랴
9 猜　싀긔 말고 화동ᄒᆞ여라　(二十七オ)
10 忌　써려 갓가히 사괴지 아니ᄒᆞ옵닉
11 憐　여엿비 너겨 형졔 ᄀᆞᆺ치 ᄒᆞ옵ᄂᆞ니
12 疑　의심을 내면 피ᄎᆞ 위합치 아니ᄒᆞ외
13 恣　방ᄌᆞ히 네 ᄆᆞ음대로 마라
14 耐　견ᄃᆡ여 지내기 어렵거든　(二十七ウ)
15 忍　춤ᄂᆞᆫ 거시 웃ᄯᅳᆷ이오니
16 悔　뉘웃처도 지난 일이야 무가내하(無可奈何)ㅣ니
17 忘　니저ᄇᆞ리지 말고 명심ᄒᆞ여 계셔
18 忙　밧비 ᄃᆞ녀 갈 틈이 업ᄉᆞ외
19 秘　비밀히 ᄒᆞ고 ᄂᆞᆷ 모로게 ᄒᆞ소　(二十八オ)
20 護　둣덥퍼 허믈을 들어나지 아니케 ᄒᆞ옵소
21 勸　권ᄒᆞ여 힝신ᄒᆞ기를 ᄀᆞᄅᆞ치옵소
22 妬　새옴을 심히 ᄒᆞ면 도로ᄃᆞ라 무이ᄂᆞ니라
23 離異　니이ᄒᆞ여 서로 보지 못ᄒᆞ니 블샹ᄒᆞ외
24 弄幻　도섭을 놀려 ᄂᆞᆷ을 희짓지 말라　(二十八ウ)
25 戀　그리워 춤아 니ᄌᆞᆯ 젹이 업ᄉᆞ외
26 欣然　흔연이 위로 ᄒᆞ옵소
27 慇懃　은근이 ᄃᆡ졉을 ᄒᆞ옵소
28 不關　블관ᄒᆞ니 ᄇᆞ리고져 ᄒᆞ옵닉
29 惜　앗겨 주지 아닌 거슬 ᄲᅢ이사 왓ᄉᆞᆸ데　(二十九オ)
30 念　념녀ᄒᆞ더니 완인이 되엿ᄉᆞᆸ닉
31 懷　품은 말을 다 니ᄅᆞ니 ᄆᆞ음의 걸린 일이 업ᄉᆞ외
32 輔　나라 돕기를 힘써 ᄒᆞ옵소
33 志　ᄯᅳᆺ을 잘 먹고 ᄂᆞᆷ을 하ㅣᄒᆞ지 마옵소
34 濶　활슈 ᄂᆞᄅᆞᆺ슬 ᄒᆞ여 보옵소　(二十九ウ)
35 犯　범졉ᄒᆞ여 잇다감 욕보옵닉
36 操心　조심ᄒᆞ여 범ᄉᆞ를 술펴 ᄒᆞ소
　增補
37 仰託　앙탁
38 惶懍　황률
39 窘速　군속
40 横倒　황도　(三十オ)

⑧四端

1 行　힝실을 몬져 ᄇᆡ흘 거시오니
2 忠　튱셩을 내여 됴졍을 셤기옵쇼셔
3 孝　효셩을 ᄒᆞ고 부모를 셤기니 긔특ᄒᆞ외
4 禮　녜로써 ᄃᆡ졉ᄒᆞ면 뉘 좃지 아니리오　(三十ウ)
5 義　의긔가 니러나 졀의 죽ᄂᆞᆫ 사ᄅᆞᆷ이야 튱신이오니
6 廉　쳥념ᄒᆞ면 ᄂᆞᆷ의 거슬 탐치 아니ᄒᆞᄂᆞ니라
7 讓　ᄉᆞ양ᄒᆞᄂᆞᆫ 거시 녜의 올흐니라
8 恥　붓그러워 머리를 수기고 잇숩닉
9 謙　겸손ᄒᆞ고 착ᄒᆞᆫ 체 마소　(三十一オ)
10 信　신이 이시면 사ᄅᆞᆷ이 미더ᄒᆞᄂᆞ니
11 愼　삼가ᄒᆞ면 앙홰가 몸의 밋치 아니ᄒᆞ오니
12 誠　졍셩을 드려 글시라도 쓰면 싱긔가 잇ᄂᆞ니라
13 敬　공경ᄒᆞ여 어룬을 ᄃᆡ졉ᄒᆞ라
14 貞　뎡직ᄒᆞᆫ ᄆᆞᄋᆞᆷ을 곳치지 말라　(三十一ウ)
15 效　본바들 거슨 튱효밧긔 업ᄉᆞ외
16 驗　효험이 이셔 인졍ᄒᆞ던 보람이 잇숩데
17 效他　다ᄅᆞᆫ 사ᄅᆞᆷ을 본바드되 용ᄒᆞᆫ 일을 ᄒᆞ라
18 辱　욕되지 아니케 조출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먹어라
19 噪　조급히 굴면 그릇되기 쉬으니　(三十二オ)
20 寵　툥을 밋고 ᄂᆞᆷ을 업슈이 너기지 말라
21 耽　탐ᄒᆞ면 넘씨ᄂᆞ니라
22 雪恥　셜치ᄒᆞ고 원슈를 갑파숩닉
　増補
23 潜着　참쟉ㅣ
24 倉卒　창졸
25 襯着　츤쟉　(三十二ウ)

⑨太多

1 末　끗치 듕ᄒᆞ면 본이 실치 못ᄒᆞᄂᆞ니
2 本　본이 구ᄃᆞ면 요동치 아니ᄒᆞᄂᆞ니라
3 廣　넙거든 기릭를 느려라
4 狹　좁거든 너븨를 넙펴라　(三十三オ)
5 細　ᄌᆞ놀면 둘히 합ᄒᆞ여라
6 命　명은 하ᄂᆞᆯ씌 ᄃᆞᆯ련ᄂᆞ니
7 壽　목숨 긴 사ᄅᆞᆷ을 슈골이라 ᄒᆞ옵닉

8 夭　일 죽은 사ᄅᆞᆷ을 단명다 ᄒᆞᄂᆞ니
9 高　놉기 하ᄂᆞᆯ ᄀᆞᆺᄐᆞᆫ 거시 이실가 보온고　(三十三ウ)
10 卑　ᄂᆞᄌᆞ 니를 ᄂᆞᄌᆞᆫ 대로 ᄃᆡ졉ᄒᆞ여라
11 圓　두렷시 안자 공논을 ᄒᆞ옵새
12 長　긴 거슬 쟈ᄅᆞ게 ᄒᆞ여라
13 短　쟈ᄅᆞᆫ 거슨 니어 쓰라
14 尊　놉픈 냥반의 후예라　(三十四オ)
15 厚　두텁거든 ᄡᅵ여 내여라
16 薄　엷거든 ᄇᆡ졉ᄒᆞ라　포슈
17 遠　먼ᄃᆡᄅᆞᆯ 밧비 ᄃᆞᆫ녀 오니 오ᄌᆞᆨ 곤ᄒᆞ라
18 近　갓가온 ᄃᆡ야 몃ᄭᅮᆫ ᄃᆞᆫ녀 오리
19 輕　가ᄇᆡᆫ 거슨 손의 들고 가소　(三十四ウ)
20 重　무거온 거슬 지고 니거라
21　아ᄋᆞ라히 멀리 ᄇᆞ라 ᄇᆡᆫ다
22 塊　ᄒᆞᆫ덩이를 ᄯᅳ려 내여 ᄂᆞᆫ화라
23 片　몃 조각의 되엿ᄂᆞᆫ고
24 雙　쌍이 맛거든 둘식 혜여라　(三十五オ)
25 隻　ᄡᅡᆨ이 못 되여 그저 두엇ᄉᆞᆸᄂᆡ
26 踈　성긔니 빗최여 ᄇᆡᆫ다
27 密　ᄇᆡ니 ᄃᆞᆫᄉᆞᄒᆞ게 ᄒᆞ엿다　박ᄉᆞᄒᆞ여 여러 사ᄅᆞᆷ이 셧ᄉᆞᆸᄂᆡ
28 秘　비밀ᄒᆞᆫ 일을 뎍어시니 블의 ᄉᆞᆯ아라
29 全　온젼ᄒᆞᆫ 거슬 허러 내지 말라　(三十五ウ)
30 半　반쯤음은 남겨 두고 가져 니거리
31 餘　남은 거슬란 ᄀᆞᆷ초와 두어라
32 足　죡이 ᄡᅳ고 남게 ᄒᆞ엿다
33 獨　홈자 담당ᄒᆞ기 어렵다
34 縮　튝이 이시면 네 물리라　(三十六オ)
35 盈　차시니 더 부오면 넘으리
36 虛　뷔여시니 담을 거시 잇거든 부어라
37 群　무리 지어 가지고 ᄒᆞᆷ긔 가면 슈샹이 너기리라
38 輩　우리 ᄇᆡᄅᆞᆯ 두려 숨어 ᄃᆞᆫ니옵ᄂᆡ
39 新　새 거슨 ᄯᅳ로 두어라　(三十六ウ)
40 舊　ᄂᆞᆯ근 거시라 ᄒᆞ여도 녯거시 ᄃᆞᆫᄉᆞᄒᆞ니라
41 小　젹은 거슨 ᄀᆞᆯᄒᆡ여 내여라
42 大　큰 거슨 쓰기 됴흐니라
43 尖　ᄭᅳᆺ치 ᄲᅩᆫ죡ᄒᆞ니 아모거시라도 궤키 됴다

44 鱻 글근 거슨 달호기 썰々ᄒᆞ다 (三十七オ)
45 孤 고단히 자ᄂᆞᆫ 사ᄅᆞᆷ을 ᄭᅵ여라
46 摸稜 모릉은 변통 업슨 사ᄅᆞᆷ을 니ᄅᆞᄂᆞᆫ 말이라
47 篠 시ᄂᆞ대로 울을 막어라
増補
48 誠款 셩관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 (三十七ウ)
49 出歛 출념
50 僭 참남
51 受由 몰ᄆᆡ

⑩範圍

1 失 일헌 후에 셜워 말라
2 得 어든 일을 깃거 마라
3 不 아니홀 곡졍을 ᄒᆞ지 마옵소 (三十八オ)
4 勿 말라 ᄒᆞᆫ 일은 말면 지*시비업ᄂᆞ니
5 有 잇ᄂᆞᆫ 거슬 업다 ᄒᆞ고 구이지 말렷다
6 經營 경영ᄒᆞ고 놈과 ᄀᆞᆺ치 겨오 지내옵ᄂᆡ
7 難 어려온 일을 쥬션ᄒᆞ여 낼ᄉᆡ 착ᄒᆞ다 ᄒᆞᄂᆞ니
8 易 쉬온 일은 닉곰 결단ᄒᆞ옵소 (三十八ウ)
9 承 니어 ᄃᆡ々로 ᄌᆞ손만당 ᄒᆞ옵데
10 連 년ᄒᆞ여 니으면 하ᄂᆞᆯ도 ᄭᅦ지로리라
11 斷 ᄭᅳᆫ허지々 말게 브ᄃᆡ 년쇽ᄒᆞ게 ᄒᆞ옵소
12 殘 잔ᄒᆞ여 이제ᄂᆞᆫ 볼 거시 업ᄂᆞ니
13 衰 쇠잔ᄒᆞ여 다시 니러날 길이 업숩ᄂᆡ (三十九オ)
14 盛 셩ᄒᆞ여 거륵이 퍼졋다 ᄒᆞ옵ᄂᆞ니
15 硬 질긘 거슬 아모리 씹은들 무ᄅᆞᆯ가
16 均 고로게 ᄒᆞ면 공평ᄒᆞ다 기리옵ᄂᆡ
17 堪 견ᄃᆡ노라 ᄒᆞ여도 ᄎᆞᆷ아 어려오니라
18 堅 구든 거슨 깨기 더ᄐᆡ옵ᄂᆡ (三十九ウ)
19 班 아록뎌 보기 됴회
20 棄 ᄇᆞ려 벼슬을 아니ᄒᆞ이시다 엇지 ᄒᆞᆯ고
21 害 해롭게 ᄒᆞ면 제게 해 밋기 쉬오니
22 癈 폐ᄒᆞ여 샹사ᄅᆞᆷ을 ᄆᆡᆫᄃᆞ니 블샹ᄒᆞ외
23 取 바다 왓더냐 (四十オ)
24 始 비로소 구경ᄒᆞ엿고나
25 初 처음으로 만나시나 졍이 듕ᄒᆞ외

26 終　ᄆᆞᄎᆞᆷ내 ᄇᆞ리지 아니ᄒᆞ옵시니 은혜 망극ᄒᆞ외
27 平　평싱 원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병 업게 비옵ᄂᆡ
28 安　이안(移安)ᄒᆞ연 지가 오래오니 하마 봉안(奉安)이 되오리　(四十ウ)
29 危　위ᄐᆡᄒᆞᆫ 노ᄅᆞᄉᆞᆫ 아이예 말게 ᄒᆞ옵소
30 厄　익곳 구ᄌᆞ면 집의 안자도 면치 못ᄒᆞᄂᆞ니
31 頻　ᄌᆞ로 와 보시니 졍답ᄉᆞ외
32 稀　드믈게야 오시니 말류괏져 ᄒᆞ옵ᄂᆡ
33 減　감ᄒᆞ면 ᄂᆞᆷ이 슈샹이 너기ᄂᆞ니　(四十一オ)
34 加　더ᄒᆞ여 줄진ᄃᆡ 쳘츄이 구올고
35 除　덜ᄒᆞ고 내여도 허믈이 업ᄂᆞ니라
36 添　보태여 젼갈도 길게 마옵소
37 普　왼 하ᄂᆞᆯ 아ᄅᆡ 어ᄃᆡ 가 못 살고
38 補　보 부족ᄒᆞ여 관가의 밧지옵소　(四十一ウ)
39 寬　너ᄅᆞ게 ᄆᆞᄋᆞᆷ을 먹고 좁으야이 구지 마소
40 夥　무리를 여러히 지어 목쟝(牧場)의셔 노옵ᄂᆡ
41 行　힝ᄒᆞ기를 나날 새로이 ᄒᆞ옵소
　增補
42 恪　홧갑ᄉᆞ외　又吝 앗길　(四十二オ)
43 陪　뫼셔라
44 誦　와오 닑어라
45 務　힘쓰옵소
46 否　못 ᄒᆞ옵ᄂᆡ
47 念　념녀업ᄉᆞᆸᄂᆞ니　(四十二ウ)

⑪雜語

1 凡　믈웃 사ᄅᆞᆷ이 힝실을 브ᄃᆡ 잘 ᄒᆞ여야 됴흐니
2 雜　잡된 일을 ᄇᆡ호지 말 거시오니
3 各　각々 소견이 다ᄅᆞ오니 아지 못ᄒᆞ올쇠
4 事　일마다 ᄆᆞᄋᆞᆷ과 ᄀᆞᆺ치 쉽지 아니ᄒᆞ니　(四十三オ)
5 物　만믈이 유의ᄒᆞ여 삼겻ᄉᆞᆸᄂᆡ
6 慰　위로ᄒᆞ여 무ᄅᆞ 주시니 후의ᄅᆞᆯ 닛ᄌᆞ올고
7 禁　금ᄒᆞ여 듕믈을 샹치 아니케 ᄒᆞ옵소
8 懸　ᄃᆞᆯ리여 ᄆᆞᄋᆞᆷ이 풀릴 적 업ᄉᆞ외
9 拘　걸릿켜 움즉들 못ᄒᆞ여 과연 답々ᄒᆞ다　(四十三ウ)
10 何　엇지 쳐치ᄒᆞ렴나
11 苦　괴로올지라도 지속간의 ᄒᆞᆫ번은 가ᄂᆞᆫ 길이오니

12 勞　슈고로이 먼길을 오시니 ᄀᆞᆺ부시올쇠
13 困憊　곤븨ᄒᆞ여 누엇숩닉
14 困　곤ᄒᆞ여시니 감간 쉬여 가옵새　(四十四オ)
15 漸　졈々 글이 누ᄅᆞ가기의 나죵의 밋츠 리 업ᄉᆞ오리
16 徐　날회여 챤々히 가도 오ᄂᆞᆯ은 죡히 가올쇠
17 閑　한거ᄒᆞ여 산슈만 보고 쇼일ᄒᆞ옵닉
18 暇　겨를이 잇거든 닉일 일 가오리
19 置　두고 가시거는 슈뎡ᄒᆞ여 드리오리　(四十四ウ)
20 遺　깃친 거시 서너 가지 잇숩닉　遺物　유믈
21 交　사괴기를 깁히 ᄒᆞ면 졍이 ᄌᆞ연 듕ᄒᆞ오니
22 切　ᄀᆞᆫ졀이 닐러 되도록 션력ᄒᆞ옵새
23 恠　괴이히 너겨 웃지 마옵소
24 每　ᄆᆡ양 와 계시니 구지 업ᄉᆞ외　(四十五オ)
25 特　특별이 쳥ᄒᆞ여 보옵쇼셔
26 求　구ᄒᆞ연 지 오래오니 하마 ᄂᆞ려 오々리
27 傳　젼ᄒᆞ고 표 바다 왓숩데
28 移　올마 가지매 ᄌᆞ로 보지 못ᄒᆞᆯ가 시브외
29 率　거ᄂᆞ린 사ᄅᆞᆷ이 ᄀᆞ장 만ᄉᆞ외　(四十五ウ)
30 輸　슈운을 ᄒᆞ고 필급을 밧비 ᄒᆞ옵소
31 侍　뫼셔 시죵을 잘 ᄒᆞ여라
32 維　얼거 ᄆᆡ여시니 졸연히 플러 내기 어렵다
33 別　별로 투호ᄒᆞ여 주옵시니 감샤ᄒᆞ외
34 逆　거스지 못ᄒᆞ와 그리 ᄒᆞᆯ 양으로 ᄒᆞ엿숩닉　(四十六オ)
35 險　험ᄒᆞᆫ 길을 홈자 가기 념녀스롭ᄉᆞ외
36 逼　피박ᄒᆞ여 못 견ᄃᆡ올쇠
37 繁　번화ᄒᆞᆫ 곳의 가셔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놋지 마옵소
38 順　슌ᄒᆞ게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속이 너ᄅᆞ온가 시브외
39 吉　길ᄒᆞᆫ 말을 니ᄅᆞ옵소　(四十六ウ)
40 凶　흉ᄒᆞᆫ 말은 긔옵ᄂᆞ니
41 違　어긔여지면 다시 졍ᄒᆞ게 ᄒᆞ소
42 免　면ᄒᆞ려 ᄒᆞ니 폐가 뎍지 아니ᄒᆞ외
43 遄　ᄀᆞ라 가시니 모든 사ᄅᆞᆷ이 앗기옵닉
44 頹　문허진거든 니러혀기 어렵ᄉᆞ오리　(四十七オ)
45 虧　이ᄌᆞ라진 후면 암으로기 쉽지 아니ᄒᆞ오니
46 弊　히여진 거슬 깁숩소
47 傾　기우러져 가ᄂᆞᆫ 사ᄅᆞᆷ을 붓드러야 올흐니라

48 欹　기은 거슬 바로게 곳치소
49 碎　부어진 거슬란 흔듸 모화 두어라　(四十七ウ)
50 垂　두리워 듯다가 다시 거더 올리옵소
51 處　곳이 칙박ᄒᆞ니 졀박ᄒᆞ외
52 結　민여 두면 어드러 ᄃᆞ라나리
53 編　역고 ᄃᆞ라 둔 간고어 흔나 ᄲᅡ혀 오ᄂᆞ라
54 成　일은 후면 아모거시라도 ᄆᆞᆺ돎ᄒᆞ오니　(四十八オ)
55　　ᄲᅡᆫ 거시 ᄃᆞᆫ々ᄒᆞ니 됴ᄉᆞ외
56 皆　다 무단ᄒᆞ여 의졋ᄒᆞᆫ 거시로쇠
57 解　플러 내니 노ᄅᆞᆯ 긋쳐 계시옵닉
58 先　몬져 가노라 ᄒᆞ되 아직 연고 이셔 못 가옵닉
59 多　만흔 거슬 더러 내옵소　(四十八ウ)
60 滿　ᄀᆞᄃᆞᆨ 치시니 더 녀흐면 넘ᄂᆞ니
61 充　찻거든 다른 그릇슬 밧치라
62 齊　ᄀᆞᄌᆞᆨ이 셔니 ᄎᆞᆷ치가 업ᄉᆞ외
63 不如　ᄀᆞᆺ치 아닌 말을 ᄒᆞ고 궐이 드ᄅᆞᆯ가 보온고
64 同　ᄒᆞᆫ가지 사ᄅᆞᆷ을 어이 층계ᄒᆞ여 셸고　(四十九オ)
65 似　ᄀᆞᆺ톨쟉시면 분변키 어렵게 ᄒᆞ엿닉
66 如　ᄀᆞᆺ치 호블호가 업스니 ᄀᆞᆯ려 무엇 ᄒᆞ랴
67 兼　겸ᄒᆞ여 ᄂᆞᆷ의 슈고ᄅᆞᆯ 덜ᄒᆞ새
68 並　ᄀᆞᆷᄒᆞ셔 가니 아모도 큰 줄 모ᄅᆞᆯ쇠
69 比　견주어 보와 뉘 나은가 보소　(四十九ウ)
70 都　모도 합ᄒᆞ여 이ᄲᅮᆫ이로쇠
71 列　버러 안자 이바지 시작(始作)ᄒᆞ옵닉
72 偕　ᄒᆞᆷ긔 가셔 덕간을 ᄒᆞ소
73 景　경이 됴흐니 ᄉᆞᄉᆞ로 시흥이 낫ᄉᆞᆸ데
74 離別　니별ᄒᆞ고 여러 날 되면 졍이 덤々 업서지ᄂᆞ니　(五十オ)
75 并　아오로 다 아사 오소
76 殊　슈샹ᄒᆞ니 곳쳐 ᄎᆞ자 보와라
77 熹微　희미ᄒᆞᆫ 일란 아ᄂᆞᆫ 체 마옵소
78 點考　뎜고ᄒᆞ면 유무ᄅᆞᆯ 아니 아올가
79 恰　흡죡히 어더 왓기의 념치업ᄂᆞ니　(五十ウ)
80 辭　긴 ᄉᆞ셜 말고 ᄂᆞᆯ래 가옵소
81 期　긔약을 일흐면 실신타 ᄒᆞᄂᆞ니
82 當　맛당ᄒᆞ니 면품(面稟)을 ᄒᆞ여 보옵새
83 惹　야로즌 일도 잇ᄉᆞᆸ닉

84 准　쥰ᄒᆞ여 보면 빠진 줄 아오리　(五十一オ)
85 由　말믜롤 주시면 잠간 ᄃᆞᆫ녀 오ᄉᆞ리
86 摘姦　뎍간ᄒᆞ면 제 어이 숨기올고
87 奇別　긔별을 드ᄅᆞ니 과연 반갑ᄉᆞ외
88 載　시러 온 거시 듕노의셔 비를 마자 누긔가 잇숩닉
89 因緣　인연이 듕ᄒᆞ여 간 곳마다 만나올쇠　(五十一ウ)
90 憑　의빙ᄒᆞ여 듯ᄌᆞ왓숩닉
91 元　웃듬을 졔일이라 ᄒᆞ옵지
92 翻　번두쳐 도로 이긔엿숩닉
93 次第　ᄎᆞ례로 블러 내옵소
94 負　지고 가다가 무겁거든 쉬여라　(五十二オ)
95 待　기ᄃᆞ러 보면 수가 다ᄃᆞᆺ숩닉
96 次　버금 사ᄅᆞᆷ을 둘재라 니ᄅᆞᄂᆞ니
97 勢　셰가 이시면 저마다 두려ᄒᆞ옵ᄂᆞ니
98 等　등의 들면 급뎨 ᄒᆞ옵닉
99 眼勢　눈 주어 보니 불셔 짐쟉ᄒᆞᄂᆞᆫ가 시브외　(五十二ウ)
100 相　ᄌᆡ샹은 만민지양이오니
101 裂　ᄲᅥ여진 ᄃᆡ를 아모라 주옵소
102 權　권을 자바 가지고 제 ᄆᆞᄋᆞᆷ대로 ᄒᆞ옵데
103 斜　빗ᄭᅮ러져시니 바로 ᄃᆞᄅᆡ여 졍귀ᄒᆞ옵소
104 綻　터진 ᄃᆡ를 바ᄂᆞᆯ로 호와 주옵소　(五十三オ)
105 靡　ᄲᅳ러뎌 가오니 붓ᄃᆞ옵소
106 接　부쳐시니 셩ᄒᆞᆫ 것 ᄀᆞᆺᄉᆞ외
107 作　지어 내니 마치 맛고나
108 貫　ᄭᅦ여 ᄆᆡ여 ᄃᆞ라 주와라
109 合　합ᄒᆞ여 모화 보니 수가 장ᄒᆞ외　(五十三ウ)
110 煩　번거ᄒᆞ니 비밀이 ᄒᆞ여라
111 修　닥어 내면 새것 ᄀᆞᆺᄐᆞ니라
112 類　누가 각々 다ᄅᆞ오나 근본은 다ᄅᆞ지 아니ᄒᆞ외
113 會　모다 좁으나마 ᄒᆞᆫ자리의 안자 ᄒᆞ옵새
114 諸　모든 사ᄅᆞᆷ이 다 즐겨ᄒᆞ여 노옵닉　(五十四オ)
115 要　종요로온 거슬란 업시지 말라
116 煩劇　번극ᄒᆞᆫ 소임을 맛다시니 민망ᄒᆞ외
117 散　흣터진 거슨 모히기 어렵게 ᄒᆞ엿숩닉
118 通　통ᄒᆞ니 희식이 뵈옵데
119 變通　변통ᄒᆞ고 치칙을 면ᄒᆞ엿숩닉　(五十四ウ)

120 稟　품ᄒᆞ여시니 쳬분은 당신게 잇ᄉᆞ오리
121 奏　엿ᄌᆞ왓ᄉᆞᆸ더니 분부가 즉제 낫ᄉᆞᆸ데
122 執　잡은 거슨 놋치 마옵소
123 報　보ᄒᆞ여시니 회답이 아니 올가
124 告　고ᄒᆞᆫ 후에 허입을 ᄒᆞ옵새　(五十五才)
125 呈　뎡ᄒᆞ여 쳐치ᄒᆞ게 ᄒᆞ여라
126 諫　간ᄒᆞ여도 듯지 아니ᄒᆞ시니 졀박ᄒᆞ외
127 用　쓰는 ᄃᆡ가 만하 부비가 젹지 아니ᄒᆞ외
128 預　미리 출혀 두면 님시ᄒᆞ여 군속지 아니ᄒᆞᄂᆞ니
129 費　허비를 이리 만히 ᄒᆞ고 어이 지팅ᄒᆞᆯ고　(五十五ウ)
130 引　켜내기를 너모 엷게 ᄒᆞ니 못쓰게 되였다
131 催　지촉을 아조 블 나게 ᄒᆞ니 못 견ᄃᆡ올쇠
132 良久　ᄌᆞ장 오래개여 만나 보왓ᄉᆞᆸ닉
133 容　용납지 아니ᄒᆞ시니 믈러 조심ᄒᆞ고 잇ᄉᆞᆸ닉
134 處置　쳐치를 놀래 ᄒᆞ면 오죽ᄒᆞ올가　(五十六才)
135 曖昧　ᄋᆡ민ᄒᆞᆫ 일로 뎌리 굿기니 블샹ᄒᆞ외
136 幽　유한ᄒᆞᆫ ᄃᆡ 이셔 셰샹 시비를 듯지 아니ᄒᆞ옵ᄂᆞ니
137 殘忍　잔잉ᄒᆞ여 춤아 보들 못ᄒᆞ올쇠
138 玲瓏　녕농ᄒᆞ여 다 니ᄅᆞ지 못ᄒᆞ옵닉
139 謀害　모해ᄒᆞ려 ᄒᆞ다가 도로혀 제게 우환이 낫ᄉᆞᆸ닉　(五十六ウ)
140 寂寞　젹막ᄒᆞᆫ 고ᄃᆡ 이시니 일월이 긴 줄을 아올쇠
141 苟且　구챠ᄒᆞᆯ지연졍 더러온 즛슬 ᄒᆞᆯ가 보온고
142 尋常　심샹이 너기지 마옵소
143 支當　지당ᄒᆞ매 분부대로 드려 오게 ᄒᆞ오리
144 虛誕　허탄ᄒᆞᆫ 말 ᄒᆞ면 놈이 실업시 너기오리　(五十七才)
145 生涯　싱애가 어려오니 엇지 ᄒᆞ여 좃ᄉᆞ올고
146 曲折　곡졀을 모로거든 좀々ᄒᆞ고 잇ᄉᆞᆸ소
147 窮屈　군굴ᄒᆞ여 지내기 어렵ᄉᆞ외
148 愚濫　우람ᄒᆞ여 어룬 사ᄅᆞᆷ을 침노ᄒᆞᆫ다
149 野俗　야쇽ᄒᆞᆫ 줄을 저는 모로는가 시브외　(五十七ウ)
150 汎濫　범남ᄒᆞ여 놈을 업슈이 너기옵닉　범남
151 落後　낙후ᄒᆞ여 쳔々히 왓ᄉᆞᆸ데
152 高卑　고비를 분변치 못ᄒᆞ고 되ᄂᆞ냐
153 未安　민안ᄒᆞ니 그만의 긋치소
154 參差　춤치가 이셔 고로지 아니ᄒᆞ외　(五十八才)
155 平生　평싱 술만 벗 삼아 쇼일 ᄒᆞ옵닉

156 拒絶　거졀ᄒᆞ고 다시 본 쳐 아니ᄒᆞ려 ᄒᆞ닉
157 迂濶　오활ᄒᆞ여 놈의 ᄌᆞ븨를 모로옵데
158 固執　고집을 너모 ᄒᆞ니 대ᄉᆡ옵도쇠
159 着實　챡실이 닐러 어근나지 아니케 ᄒᆞ옵소　(五十八ウ)
160 遷正　쳔연ᄒᆞ여시나 셩ᄉᆞᄒᆞ매 다힝ᄒᆞ외
161 繞　둘러 담을 노파 ᄲᅡ면 뉘 너모 오리오
162 符作　부작을 써 부치면 잡거시 오지 아니ᄒᆞᄂᆞ니라
163 咀呪　져주를 ᄒᆞ면 혹 맛ᄂᆞᆫ다 ᄒᆞ니 무셥ᄉᆞ외
164 悉　다 ᄌᆞ셔히 아라시니 긋치게 ᄒᆞ소　(五十九オ)
165 串　져ᄭᅩᆺ스로 ᄲᅩ저 죽겨도 방ᄌᆞᄒᆞᆫ 연놈은 블샹치 아니ᄒᆞ옵데
166 陋　누추ᄒᆞᆫ ᄃᆡ 오래 안자 계시니 안심치 아니ᄒᆞ외
167 虚事　허신 줄 모로고 늙으니ᄂᆞᆫ 다 신텽ᄒᆞ옵데
168 欝壘　울루를 복셩화 남그로 사겨 섯ᄃᆞᆯ 그믐날 대문의 붓치면 귀신이 ᄃᆞ라나ᄂᆞ니
169 蔚　울연이 남기 셩ᄒᆞ니 보기 금즉ᄒᆞ외　(五十九ウ)
170 生手　손씨가 설면 아모거슬 ᄆᆡᆫᄃᆞ라도 열업ᄂᆞ니라
171 熟手　손씨가 닉으면 ᄒᆞᄂᆞᆫ 일이 놈의셔 쉬이 ᄆᆞᆺ처 가ᄂᆞ니
172 奔走　분쥰ᄒᆞᆫ ᄃᆡ 지져괴지 마라
173 碍　걸리씨온 일이 이셔 진시 못 와시니 황공ᄒᆞ외
174 假托　가탁ᄒᆞ옵ᄂᆞᆫ 일이 아니오라 실로 연고 이셔 그리 ᄒᆞ외이다　(六十オ)
175 眄目　눈을 스ᄉᆞ 서로 ᄃᆡᄒᆞ라 ᄒᆞ옵닉
176 唐突　당돌히 와셔 긴지 안닌 말을 ᄒᆞᄂᆞᆫ다
177 臆勤　억늑ᄒᆞ여 시기옵시니 마지못ᄒᆞ여 시힝ᄒᆞ옵닉
178 指揮　지휘를 얼연히 ᄒᆞ옵시리잇가
179 斗護　투호ᄒᆞ옵신 덕으로 구실을 다ᄒᆞ고 왓ᄉᆞᆸ데　(六十ウ)
180 知委　디위ᄒᆞ엿ᄉᆞ오니 범연히 시힝ᄒᆞ오리잇가
181 周旋　쥬션ᄒᆞ여 주옵시니 샹덕을 못내 알외올쇠이다
182　　슝샹ᄒᆞ니 놈과 ᄀᆞᆺ치 ᄒᆞᆯ 밧근 업ᄉᆞ외
183 説破　셜파ᄒᆞ고 히혹을 ᄒᆞ엿ᄉᆞᆸ데
　増補　(六十一オ)

⑫逍遥

1 明々　명々ᄒᆞᆫ ᄃᆞᆯ빗치로다
2 照々　ᄆᆞᆰ웃々 빗쵠다　(六十一ウ)
3 澄々　팅々히 ᄆᆞᆰ다

4 圓々　원々ᄒᆞ여 둥시러ᄒᆞ다
5 細々　셔々ᄒᆞᆫ 허리가 츈풍의 희ᄃᆞᆫᄂᆞᆫ 버들가지 ᄀᆞᆺ다
6 隱々　은々이 멀리 뵌다
7 娟々　연々ᄒᆞ고 고온 형상 보기 ᄃᆞᆺ다　(六十二オ)
8 皎々　교々ᄒᆞᆫ 거슨 ᄃᆞᆯ이로다
9 團々　단々ᄒᆞ여 드렷다
10 亭々　뎡々ᄒᆞ여 웃둑ᄒᆞ다
11 纖々　셤々ᄒᆞᆫ 옥슈로 ᄒᆞᆫ 곡됴 타ᄂᆞᆫ 양 보기 긔졀ᄒᆞ다
12 彎々　만々ᄒᆞᆫ 빵아미로다　(六十二ウ)
13 溶々　용々이 믈이 소사 난다
14 盈々　영々이ᄒᆞᆫ 믈을 격ᄒᆞ여 못 보ᄂᆞᆫ도다
15 耿々　물긋々ᄒᆞ여 닛치 아니ᄒᆞᆫ다　耿々不寐 경々블미
16 寥々　뇨々히 혼자 안잣노라
17 點々　뎜々이 버혀도 앏픈 줄 모로다　(六十三オ)
18 森々　숨々이 비발 쑤린다
19 穆々　목々이 깁고 멀리 뵈옵닉
20 沈々　팀々ᄒᆞᆫ 밤의 어이 가리
21 悠々　유々히 멀리 간다
22 蕭々　쇼々히 ᄀᆞ올 ᄇᆞ롬이 부다　(六十三ウ)
23 飄々　표々히 가니 신션 ᄀᆞᆺ도다
24 冥々　아득々々ᄒᆞ니 졍신을 못 출혓노라
25 漠々　막々々ᄒᆞ여 갈 길을 모롤다
26 瑟々　슬々ᄒᆞᆫ 츄풍의 ᄆᆞ음이 슬프다
27 霏々　비々히 비 온다　(六十四オ)
28 班々　아롱々々ᄒᆞ니 곱다
29 濛々　몽々이 어두어 비 온다
30 頻々　빈々이 쇼식을 드릿다
31 滴々　뎍々이 믈이 ᄃᆞᆺᄂᆞᆫ다
32 昏々　혼々이 져므러 간다　(六十四ウ)
33 區々　구々히 싱각ᄒᆞ닉
34 零々　녕々이 ᄲᅳᆺᄃᆞᆺᄂᆞᆫ다
35 切々　졀々이 ᄉᆞᆷᄉᆞ오리
36 闇々　암々ᄒᆞ여 아모일도 모로ᄂᆞᆫ지라
37 欝々　울々히 안자 못 견될쇠　(六十五オ)
38 瀝々　ᄎᆞᆺ덤々々 오좀을 누이데
39 密々　빅々이 셔시니 드러 갈 틈이 업ᄉᆞ외

40 紛々　분々ᄒᆞᆫ 시졀의ᄂᆞᆫ 깁픈 산듕의 숨어야 올ᄉᆞ오니
41 片々　조각々々 버혀 내여라
42 脉々　믹々히 샹면ᄒᆞ여도 말을 못 ᄒᆞ니 답々ᄒᆞ다　(六十五ウ)
43 陣々　뼈々 ᄇᆞ롬이 부옵닉
44 凄々　쳐々ᄒᆞᆫ 풍상에 어이 갈고
45 漫々　만々ᄒᆞᆫ 바다흘 ᄇᆞᄅᆞ보니 금즉ᄒᆞ다
46 飛々　플々 ᄂᆞᄂᆞᆫ 새롤 어이 잡으리
47 整々　뎡々은 뎡졔ᄒᆞ든 말이라　(六十六オ)
48 冷々　녕々히 부ᄂᆞᆫ ᄇᆞ롬이 서놀ᄒᆞ다
49 陰々　음々ᄒᆞ여 뵈오려 ᄒᆞᆫ다
50 峩々　아々ᄒᆞᆫ 바회를 오롤 길이 업다
51 巍々　외々ᄒᆞ여 ᄀᆞ장 놉ᄉᆞ외
52 蒼々　프릇々々ᄒᆞᆫ 하ᄂᆞᆯ이 구버 보시옵ᄂᆞ니　(六十六ウ)
53 青々　쳥々ᄒᆞᆫ 산의 블긋々々ᄒᆞᆫ 쏫치 석거 픠엿다
54 鑿々　착々ᄒᆞ여 합ᄒᆞ기 어려외
55 輕々　가븨々々 거러 가ᄂᆞᆫ 양이 어엿브다
56 皓々　호々ᄒᆞ여 조출ᄒᆞ외
57 藹々　애々ᄒᆞᆫ 긔운이 하ᄂᆞᆯ의 쏘이옵닉　(六十七オ)
58 層々　층々이 놉파 간다
59 重々　듕々텹々ᄒᆞᆫ 뫼흘 어이 다 볼고
60 烈々　녈々ᄒᆞᆫ 태우로쇠
61 矗々　촉々 쇼쪽이 놉다
62 奕々　혁々ᄒᆞ니 거륵ᄒᆞ외　(六十七ウ)
63 磊々　뇌々낙々(犖々)ᄒᆞ여 뜻 잡기 어렵다
64 蔚々　울々ᄒᆞ여 뵈지 아니ᄒᆞ외
65 浸々　침々ᄒᆞ고 좀기니 걸릴 셰 업데
66 岌々　급々ᄒᆞ니 우러々 오ᄅᆞ기 어려외
67 表々　표々ᄒᆞ니 알기 쉬외　(六十八オ)
68 卓々　탁々ᄒᆞ여 뜻 마초기 어렵다
69 落々　낙々ᄒᆞᆫ 쳥숑이로다
70 滔々　도々ᄒᆞᆫ 믈결이 하ᄂᆞᆯ히 다핫다
71 潺々　조로럭々々 흘러 가ᄂᆞᆫ 믈소릐 드ᄅᆞ 보소
72 渺々　묘々히 멀리 ᄇᆞ라 뵈닉　(六十八ウ)
73 汩々　골々ᄒᆞ여 지내옵기예 인ᄉᆞ 출힐 길이 업닉
74 漾々　양々ᄒᆞᆫ 믈결 보소
75 湯々　샹々은 믈이 만타 ᄒᆞᆫ 말이라　湯(탕)

76 澹々　담々ᄒᆞᆫ 믈이 흐ᄅᆞᄂᆞᆫ도다
77 洶々　흉々ᄒᆞᆫ 파도ᄂᆞᆫ 무셥워 뵌다　(六十九オ)
78 蕩々　탕々ᄒᆞ여 긔특ᄒᆞ데
79 淺々　쳔々이 ᄲᅮ리ᄂᆞᆫ 믈방을 보기 됴회
80 湛々　담々이 흐ᄅᆞᄂᆞᆫ 강믈이 어ᄃᆡᄭᅡ지 가셔 긋치ᄂᆞᆫ고
81 灩々　넘々ᄒᆞ여 ᄆᆡ오 곱ᄉᆞ외
82 漸々　졈々 져々 간다　(六十九ウ)
83 漪々　의々ᄒᆞᆫ 프ᄅᆞᆫ 대숩피로다
84 源々　원々히 ᄌᆞ로 왕ᄂᆡᄒᆞ니 든々ᄒᆞ다
85 茫々　망々ᄒᆞᆫ 너ᄅᆞᆫ 바다흘 ᄇᆞ라 보니 ᄀᆞ이 업다
86 迢々　툐々히 멀리 ᄇᆞ라 뵌다
87 翩々　편々ᄒᆞᆫ 가공ᄌᆞ의 긔샹이로다　(七十オ)
88 遲々　디々ᄒᆞᆫ 봄 ᄒᆡ가 창 밧긔 빗췬다
89 葱々　총々ᄒᆞᆫ 긔운이 아롬답다
90 幽々　유々ᄒᆞᆫ 회포ᄅᆞᆯ 언제 포올고
91 灼々　븕읏々々ᄒᆞᆫ 곳치 픠엿고나
92 綽々　작々ᄒᆞᆫ 풍치 거륵ᄒᆞ다　(七十ウ)
93 深々　깁히々々 드러 가니 졸연이 ᄎᆞᆺ지 못ᄒᆞᄂᆞ니
94 茸々　용々ᄒᆞ여 져 산이 놉다
95 泛々　범々히 ᄯᅥ 오ᄂᆞᆫ ᄇᆡ가 한가ᄒᆞ여 뵌다
96 翳々　예々ᄒᆞᆫ 그림재 딘다
97 啾々　츄々히 오ᄂᆞᆫ 귀ᄯᅩ람의 소ᄅᆡ 슬프다　(七十一オ)
98 凜々　늠々ᄒᆞ고 ᄆᆡ오 칩ᄉᆞ외
99 忽々　홀々히 지나 간다
100 欣々　흔々히 서로 읍ᄒᆞ니 겻ᄐᆡ셔 보기 됴거든
101 瞳々　동々ᄒᆞ고 동이 붉엇숩닉
102 冷々　닝々ᄒᆞᆫ ᄇᆞ롬의 나모닙 ᄯᅥ러진다　(七十一ウ)
103 嫋々　회졍々々 거러 오ᄂᆞᆫ 형상이 ᄉᆞ랑스롭다
104 稜々　모々히 걸려 드러 가지 못ᄒᆞᆫ다
105 徐々　챤々이 거러 가 산슈 보ᄂᆞᆫ 거시 ᄌᆞ미잇ᄂᆞᆫ지라
106 醺々　훈々이 술의 취ᄒᆞ옵닉
107 郁々　욱々ᄒᆞᆫ 난초 향긔롭ᄉᆞ외　(七十二オ)
108 搖々　혼독々々 요동ᄒᆞᄂᆞᆫ 거시라
　　흔들々々도 ᄀᆞᆺ튼 ᄯᅳᆺ지라
109 担々　탄々 대로에 어ᄃᆡ로 못 가리
110 焚々　박*반독々々 블빗치 빗췬다

111 緩々　완々이 ᄒᆞ다 밋처 못 ᄒᆞ리　（七十二ウ）

⑬天干

1 甲 갑
2 乙 을
3 丙 병
4 丁 뎡
5 戊 무
6 己 긔
7 庚 경
8 辛 신
9 壬 임
10 癸 계

⑭地支　（七十四オ）

1 子 ᄌᆞ
2 丑 츅
3 寅 인
4 卯 묘
5 辰 진
6 巳 ᄉᆞ
7 午 오
8 未 미
9 申 신
10 酉 유
11 戌 슐
12 亥 히

⑮時刻

1 子時 ᄌᆞ시
2 丑時 츅시　（七十四ウ）
3 寅時 인시
4 卯時 묘시
5 辰時 진시
6 巳時 ᄉᆞ시
7 午時 오시

8 未時 미시
9 申時 신시
10 酉時 유시
11 戌時 술시
12 亥時 히시　　(七十五才)

明治六年　八月　日　久和馬壽　　(七十六才)